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에 관한 연구  
: 소리의 의미와 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undscape during 16,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Meaning of Sound and Techniques.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이얀

조선시대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에 관한 연구  
: 소리의 의미와 기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황 기 원  
이 논문을 조경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이얀

하이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원(지도교수) \_\_\_\_\_ (인)

조선시대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에 관한 연구  
: 소리의 의미와 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undscape during 16,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Meaning of Sound and Technique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이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8월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원(지도교수)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심사위원 \_\_\_\_\_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6, 17세기 조선시대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고 소리가 가지는 의미와 소리를 감상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16, 17세기에 조성된 별서원림과 이와 관련된 사료와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료를 통해 소쇄원, 부용동 원림, 명옥헌, 독락당 등의 별서원림의 조영당시의 소리경관을 파악하였고, 별서원림의 기록에서 유수, 비폭 등의 물소리와 소나무, 대나무를 통해 들리는 바람소리, 파초와 연꽃 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찢꼬리,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즐겼으며, 동시에 거문고, 피리소리 등의 악기소리와 노래를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경쇠 소리, 종소리와 같은 인공물의 소리와 물레방아, 빨래하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 바둑 두는 소리와 같은 생활 속의 다양한 소리 또한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림을 감상함에 있어 시각적 요소과 더불어 소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쇄원사십팔영, 면앙정삼십영 등의 제영시(題詠詩)와 팔경시(八景詩), 그리고 조영기록 등의 사료에서 청각적 경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를 증거한다.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자연을 즐김에 있어서 소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로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리를 즐김에 있어 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먼저 원림과 관련된 사료를 통해 조영자와 원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소리를 내는 원음체(原音體)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여 원림에서 즐긴 소리의 의미와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물소리를 가장 많이 즐겼고, 바람 소리를 또한 많이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물소리는 주로 패옥 소리, 구슬 굴러가는 소리, 거문고 소리, 우레, 용의 소리 등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옥소리의 비유가 가장 많은 것은, 그 소리의 맑고 청아함을 즐기는 물론이고, 이 옥같은 물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청정, 심신의 상쾌함, 세속을 씻음, 청명한 기운의 스미, 생각의 그윽함’ 등의 세속의 벗어남과 더불어 심신 수양의 효과를 물소리를 통해서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물소리’를 통해서 한층 더 세속에서 벗어나 선도를 소망하며, 또한 물소리를 통한 세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며 더욱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연이라는 영원한 존재와 합일하고자 하는 의식이 물과 물소리를 통해 구현되고 있었다.

또한 군자의 도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그 소리를 즐겼는데, 대나무와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는 주로 파도와 비파와 거문고 등에 비유되고 있었으며, 그 소리를 통해서도 심신을 수양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대나무, 소나무의 바람소리를 즐기는, 당시 그들이 추구하는 군자를 닮고자 하는 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빗소리’를 별서원림의 아름다운 경관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빗소리를 통해서 시심을 자극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역시 마음의 수양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소리를 즐기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원림에서는 수로, 비폭(飛瀑), 비구(飛溝) 등을 통해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물소리와 같은 자연의 물소리를 재현한 것과, 독락당의 창살문과 남간정사와 소쇄원의 원규투류(垣竅透流: 담장 아래로 흐르는 물)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자연의 소리를 원림 안으로 끌어들이 자연의 소리를 더욱 즐기고,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사상과도 부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별서원림의 소리환경을 조사하여 소리경관 현황을 파악하고, 소리지도(Sound-map)를 작성하여 사료를 통해 파악한 조성당시의 소리경관과 현재의 소리경관을 비교하여, 되살려야 할 소리와 제거해야 할 소리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별서원림의 청각적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이 연구를 통해서 원림의 연구에 있어 ‘소리’라는 관점으로 다루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별서원림의 정원문화를 시각만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조영당시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을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리, 소리경관, 16-17세기, 조선시대, 별서원림

학 번 : 2010-23911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2  |
| 1. 연구의 범위 .....                   | 2  |
| 2. 연구의 방법 .....                   | 4  |
| 3. 전통소리경관 관련 선행연구 .....           | 6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7  |
| 제 1 절 소리경관이론의 이해 .....            | 7  |
| 1. 소리경관 이론 .....                  | 7  |
| 2.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의의 .....           | 8  |
| 제 2 절 전통 소리사상과 음악의 이해 .....       | 9  |
| 1. 전통 소리사상의 이해 .....              | 9  |
| 2. 전통 음악의 이해 .....                | 13 |
| 3. 아회(雅會)와 계회(契會) .....           | 14 |
| 제 3 절 사료를 통한 소리경관 연구 .....        | 16 |
| 1. 시, 기록 속의 소리경관 .....            | 16 |
| 2. 그림 속의 소리경관 .....               | 19 |
| 3. 풍속·풍습 속에 나타난 소리경관 .....        | 24 |
| 제 3 장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연구 ..... | 27 |
| 제 1 절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    | 27 |

|                                     |     |
|-------------------------------------|-----|
| 제 2 절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현황 및 특성 .....      | 71  |
| 1. 연구대상 원림의 배경 및 범위 .....           | 71  |
| 2.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현황 및 특성 .....         | 72  |
| <br>제 4 장 별서원림에 나타난 소리의 의미와 기법 .... | 82  |
| 제 1 절 자연음에 담긴 의미 .....              | 82  |
| 1. 물소리 .....                        | 82  |
| 2. 바람소리 .....                       | 86  |
| 3. 빗소리 .....                        | 89  |
| 4. 생물의 소리 .....                     | 91  |
| 제 2 절 인공음에 담긴 의미 .....              | 96  |
| 1. 거문고 .....                        | 96  |
| 2. 피리소리 .....                       | 97  |
| 3. 경쇠소리와 종소리 .....                  | 97  |
| 제 3 절 별서원림에 나타난 소리경관 기법 .....       | 99  |
| 1. 물소리와 관련된 기법 .....                | 99  |
| 2. 바람소리와 관련된 기법 .....               | 106 |
| 3. 소결 .....                         | 107 |
| <br>제 5 장 결 론 .....                 | 108 |

참고 문헌

Abstract

## 〈표 차례〉

|          |                         |     |
|----------|-------------------------|-----|
| [표 1-1]  | 대상 원림의 개요 .....         | 3   |
| [표 1-2]  | 분석의 틀 .....             | 5   |
| [표 2-1]  | 팔경시에 등장하는 소리 .....      | 18  |
| [표 3-1]  | ‘소쇄원’의 소리경관 .....       | 33  |
| [표 3-2]  | ‘부용동 원림’의 소리경관 .....    | 39  |
| [표 3-3]  | ‘독락당’의 소리경관 .....       | 41  |
| [표 3-4]  | ‘명옥헌’의 소리경관 .....       | 43  |
| [표 3-5]  | ‘면앙정’의 소리경관 .....       | 47  |
| [표 3-6]  | ‘초간정’의 소리경관 .....       | 49  |
| [표 3-7]  | ‘암서재’의 소리경관 .....       | 51  |
| [표 3-8]  | ‘남간정사’의 소리경관 .....      | 53  |
| [표 3-9]  | ‘화담별서’의 소리경관 .....      | 56  |
| [표 3-10] | ‘태고정’의 소리경관 .....       | 58  |
| [표 3-11] | ‘신흠의 상촌별서’의 소리경관 .....  | 61  |
| [표 3-12] | ‘구루정’의 소리경관 .....       | 64  |
| [표 3-13] | ‘곡운정사’의 소리경관 .....      | 66  |
| [표 3-14] | ‘연천별서’의 소리경관 .....      | 68  |
| [표 3-15] | ‘삼부연 별서’의 소리경관 .....    | 70  |
| [표 3-16] | 현장 조사 일정표 .....         | 71  |
| [표 3-17] | 소쇄원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 72  |
| [표 3-18] | 부용동 원림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 75  |
| [표 3-19] | 명옥헌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 78  |
| [표 3-20] | 독락당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 80  |
| [표 4-1]  | 문헌 속에 나타난 물소리 .....     | 84  |
| [표 4-2]  | 문헌 속에 나타난 바람소리 .....    | 88  |
| [표 4-3]  | 소리경관기법 분석표 .....        | 107 |

## 〈사진 차례〉

|                                 |     |
|---------------------------------|-----|
| [사진 1-1] 사운드 레코더 .....          | 4   |
| [사진 1-2] 사운드 레코더의 음향 특성 .....   | 4   |
| [사진 2-1] 불교의 사물(四物) .....       | 10  |
| [사진 3-1] 소쇄원 입구의 죽림(竹林) .....   | 30  |
| [사진 3-2] 소쇄원의 계류 .....          | 30  |
| [사진 3-3] 부용동 원림의 세연지 .....      | 35  |
| [사진 3-4] 낙서재 .....              | 37  |
| [사진 3-5] 복원된 곡수당 비래폭(飛來瀑) ..... | 38  |
| [사진 3-6] 곡수당 뒤편의 계곡 .....       | 38  |
| [사진 3-7] 독락당 계정 .....           | 40  |
| [사진 3-8] 독락당 담장의 창살문 .....      | 41  |
| [사진 3-9] 독락당 담장 밖의 계류 .....     | 41  |
| [사진 3-10] 명옥헌 전경 .....          | 42  |
| [사진 3-11] 명옥헌의 수로 .....         | 42  |
| [사진 3-12] 면양정 전경 .....          | 43  |
| [사진 3-13] 초간정의 계류 .....         | 48  |
| [사진 3-14] 초간정 소나무 숲 .....       | 48  |
| [사진 3-15] 암서재 전경 .....          | 50  |
| [사진 3-16] 남간정사 유수부 .....        | 52  |
| [사진 3-17] 남간정사 솟을삼문 옆의 계류 ..... | 52  |
| [사진 3-18] 곡운정사 터 .....          | 64  |
| [사진 3-19] 삼부연 폭포 .....          | 69  |
| [사진 4-1] 경쇠 .....               | 98  |
| [사진 4-2] 명옥헌의 수로 .....          | 100 |
| [사진 4-3] 소쇄원의 원규투류 .....        | 102 |
| [사진 4-4] 부용동 세연지 판석보 .....      | 102 |
| [사진 4-5] 남간정사의 대청마루 .....       | 103 |
| [사진 4-6] 독락당의 창살문 .....         | 103 |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김홍도, <후원유연(後園遊宴)>, 100.0×48.0cm, 견본채색,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     | 12 |
| [그림 2-2]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 115.0×74.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             | 12 |
| [그림 2-3] 이경윤,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견본수묵, 31.2×24.9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     | 20 |
| [그림 2-4] 신운복, <청금상련(廳琴賞蓮)>, 『혜원전신첩』, 28.2×35.3cm, 간송미술관 소장 .....       | 21 |
| [그림 2-5] 신운복, <상춘야흥(賞春野興)>, 『혜원전신첩』, 28.2×35.6cm, 간송미술관 소장 .....       | 21 |
| [그림 2-6] 신운복, <주유청강(舟遊淸江)>, 『혜원전신첩』, 지본담채, 28.2×35.6cm, 간송미술관 소장 ..... | 22 |
| [그림 2-7] 백은배, <탄금야흥(彈琴野興)>, 지본담채, 30.3×23.0cm, 간송미술관 소장 .....          | 22 |
| [그림 2-8] 김희겸,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 87.5×119.5cm, 개인 소장 .....                | 23 |
| [그림 3-1] <소쇄원도(瀟灑園圖)>, 필사본, 35×25cm .....                              | 28 |
| [그림 3-2] 정선, <청풍계도(淸風溪圖)> 1739년, 견본담채, 58.8×133cm, 간송미술관 소장 .....      | 58 |
| [그림 3-3] 정선, <청풍계도(淸風溪圖)>, 견본담채, 58.8×96.5cm, 고려대학교미술관 소장 .....        | 58 |
| [그림 3-4] 정선, <삼부연폭포(三釜淵瀑布)>, 수묵담채, 28.1×31.4cm, 간송미술관 소장 .....         | 69 |
| [그림 3-5] 소쇄원의 소리지도 .....   | 74 |
| [그림 3-6] 부용동 원림-세연정의 소리지도 .....  | 76 |
| [그림 3-7] 부용동 원림-곡수당의 소리지도 .....  | 77 |
| [그림 3-8] 명옥헌의 소리지도 .....   | 79 |
| [그림 3-9] 독락당의 소리지도 .....   | 81 |
| [그림 4-1] 이인문, <임수담소(林叟談笑)>, 지본담채, 21.0×27.5cm .....                    | 83 |
| [그림 4-2] 이재관, <파초엽제시도(芭蕉葉題詩圖)>, 종이에 채색, 37×59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     | 90 |
| [그림 4-3] 정선, <척재제시(惕齋題詩)>, 종이에 채색, 21.0×29.0cm, 간송미술관 소장 .....         | 90 |
| [그림 4-4] 김홍도,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117.2×52.0cm, 간송미술관 소장 ..                | 92 |
| [그림 4-5] 김홍도, <단원도(부분)>, 지본담채, 135×78.5cm, 개인소장 .....                  | 93 |
| [그림 4-6]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폭포형의 분류 .....                                     | 99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감 중에서도 특히 청각의 경우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시각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인 오감은 외적으로는 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극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연상 작용을 거쳐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획득한 정보의 70%를 시각을 통해 인지하고<sup>1)</sup> 20%는 청각을 통해, 나머지 10%는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지한다.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인 소리가 융합되면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F. R. Elliot(1936)과 Pick et al.(1969) 등은 연구를 통하여 시각과 청각이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시각을 중요시 하는 서구문명이 대두가 되었고, 특히 조경계에서도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풍경식 정원’이라는 시각적 요소에 치중한 경관구성방식이 주가 된 이래로 타 감각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sup>2)</sup> 반면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만족하는 살아있는 생활문화를 영위해왔다.

우리나라의 전통 원림(園林)<sup>3)</sup>에서 청각적 요소가 공간의 체험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던 예를 원림의 조영기록, 시, 그림 등의 사료와 현존하는 원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 보고 귀로 즐겼으며, 스스로 조영한 별서원림에서도 자연의 소리인 물소리, 바람소리를 늘 곁에 두고 즐기고자 하였다. 또 자연의 소리와 더불어 거문고와 피리, 비파 등의 악기의 소리와 같은 음악으로 풍류를 즐겼다.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한 시나, 경포팔경, 경호팔경, 낙산팔경, 금사팔영, 송암팔경 등 많은 팔경(八景)<sup>4)</sup>에서 시각적 경관과 더불어 청각적 경관이 혼하게 등장한다.

---

1) 연구에 따라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가 84%라고 하기도 한다.

2) 민정희, 소리 환경을 도입한 공감각적인 환경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쪽 참고.

3) 원림(園林)이란 순수자연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최소한의 인위만을 가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원(庭園, garden)과 다르다.

4) 팔경이란 어떤 지역(地域)의 여덟 가지의 아름다운경치(景致)를 말하며 중국(中國)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유래하였다. 그 아름다움을 팔경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였



이러한 예를 통해 선조들이 청각적 요소를 시각적 요소만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조들이 즐겼던 소리경관<sup>5)</sup>을 연구하여, 소리를 즐기기 위해 사용한 기법과 소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전통 원림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료 및 유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연구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조선 시대 별서원림의 확산기였던 조선중기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시기는 4번에 걸친 사화로 인해 사림(士林)들의 귀거래(歸去來)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별서원림과 누정, 서원 등이 건립되었다. 특히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위치한 별서원림의 입지로 인해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원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공간적으로는 16 ~ 17세기에 세워진 별서 원림 중에서 현재에 그 원형이 남아있는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원림, 독락당, 명옥헌을 중심으로 사료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어 소리경관을 살펴 볼 수 있는 구루정, 태고정 등을 포함한 15개소의 원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16~17세기 별서정원의 소리경관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록 및 시문, 그림과 같은 사료의 분석을 통해 선비의 자연관 속에 나타나는 소리에 대한 상징성, 의미부여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또 현장을 조사하여 대상지의 소리를 직접 듣고, 녹음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리지도<sup>6)</sup>를 만들고, 과거 기록에 남겨져 있는 소리경관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작정자의 자연관,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하여 원림에서 표현된 소리경관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원림의 개요는 다음의 [표1-1]과 같다.

---

을 경우에는 십경(十景), 이십경(二十景), 사십경(四十景) 등으로 경관을 노래하였다.

5) R. M. Schafer가 주장한 'Soundscap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표 1-1] 대상원림의 개요

| 조영자 | 원림명       | 작성연대   | 위치     | 관련사료                  | 기타 |
|-----|-----------|--------|--------|-----------------------|----|
| 양산보 | 소쇄원       | 1520년대 | 전남 담양  | 소쇄원 48영 등             | 현존 |
| 윤선도 | 부용동<br>원림 | 1637년  | 전남 보길도 | 보길도지, 가장유사,<br>부용팔경 등 | 현존 |
| 이언적 | 독락당       | 1530년대 | 경북 경주  | 옥산십사영, 이언적의 시         | 현존 |
| 오이정 | 명옥헌       | 1630년대 | 전남 담양  | 명옥헌기                  | 현존 |
| 송순  | 면앙정       | 1533년  | 전남 담양  | 면앙정기, 면앙정삼십영          | 현존 |
| 권문해 | 초간정       | 1582년  | 경북 예천  | 초간집, 초간정사증수기          | 현존 |
| 송시열 | 암서재       | 1666년  | 충북 괴산  | 송자대전                  | 현존 |
|     | 남간정사      | 1683년  | 대전     | 기국정사실기                | 현존 |
| 서경덕 | 화담별서      | 16세기   | 경기 개성  | 월사집, 화담집 등            | -  |
| 김상용 | 태고정       | 1608년  | 인왕산    | 선원유고, 풍계집승기 등         | -  |
| 신흙  | 상촌별서      | 1613년  | 경기 김포  | 상촌집, 야언               | -  |
| 김육  | 구루정       | 1640년대 | 한양 남산  | 식암유고, 구루정기            | -  |
| 김수증 | 곡운정사      | 1689년  | 강원 화악산 | 곡운집, 김수증의 시           | -  |
| 허목  | 연천별서      | 17세기   | 경기 안산  | 임거견훤                  | -  |
| 김창흡 | 삼부연<br>별서 | 17세기   | 강원 철원  | 삼연집, 문곡집              | -  |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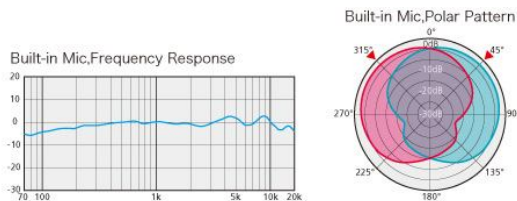
2장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당시의 사대부들이 소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소리사상의 기초가 되는 예악사상(禮樂思想)과 더불어 여러 소리사상을 살펴보고, 사대부들이 당시에 즐겼던 음악의 특성에 대해 살폈다.

3장에서는 16~17세기의 별서원림의 시대적 배경과 조영자의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조원기(造園記), 원림을 방문하고 쓴 유기(遊記), 경관을 노래한 시조, 제영시(題詠詩) 등을 통해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원림, 독락당, 명옥헌, 면양정, 초간정 등 현재에 유구가 전해지는 원림과 유구(遺構)는 소실되었으나 사료가 남아있는 태고정, 청송당, 구루정, 소용당, 곡운정사, 이양정 등의 별서원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소쇄원, 부용동 원림, 독락당, 명옥헌의 소리경관의 현황과 원림에 남아있는 소리경관 기법을 파악하였다. 현장 조사의 방법<sup>6)</sup>으로는 직접 소리를 듣고 느끼며 소리를 파악하는 방법인 ‘Sound-walking’과 사운드 레코더<sup>7)</sup>로 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원림의 소리지도(Sound map)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진 1-1] 사운드 레코더



[사진 1-2] 사운드 레코더의 음향 특성

6) 현장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R. M. Schafer의 저서 ‘soundscape’와 Keiko Torigoe의 저서인 ‘사운드스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에서 소리경관을 연구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7) 소리의 녹음은 측정점에서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향성 마이크가 2개 사용된 zoom社의 사운드 레코더 ‘zoom h1’으로 녹음하였고, 추가적으로 windscreen을 사용하여 잡음을 최소화 하였다.

4장에서는 원림에서 들린 소리에 담은 의미와 감상자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소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자연음과 인공음으로 분류하고 소리에 담긴 의미를 조선시대에서 원음체(原音體: 음을 내는 물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와 원림과 관련된 각종 사료에서 등장하는 감상자의 감상태도, 감정과 연결하여, 원림에서 들린 소리의 의미와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또 원림에서 소리를 즐기기 위해 사용했던 기법을 연구·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소리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위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분석의 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분석의 틀

| 구분       |              | 분석내용                                | 해석내용  |
|----------|--------------|-------------------------------------|---|
| 조영배경     |              | 별서원림을 조영배경과 조영자의 상황에 따른 소리경관을 파악    | 별서원림의 조영배경과 소리경관의 상관관계를 규명  |
| 소리<br>분류 | 자연음          |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등                    | 소리경관을 인공음과 자연음으로 분류하여 원림에서 들린 소리를 유형화하여 파악한다.                           |
|          | 인공음          | 노래 소리, 악기 소리, 생활 속의 소리 등            |   |
| 의미<br>해석 | 원음체의<br>의미   | 물, 바람, 기러기, 찌꼬리 등의 원음체(原音體)가 가지는 의미 | 소리를 내는 원음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원림의 감상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연결하여 원림에서 들린 소리의 의미와 이유를 찾는다. |
|          | 감상태도<br>/감정  | 원림의 감상자가 소리를 듣고 느끼는 감정              |   |
| 기법       | 소리경관<br>조성기법 | 소리를 즐기기 위한 조영 기법                    | 조영 기법을 파악하여 이를 현대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로 삼는다.                                     |

### 3. 전통소리경관 관련 선행연구

R. M. Schafer가 Soundscape 이론을 제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소리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음제어, 음향학 분야로의 연구가 대다수이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소리경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진행된 전통소리경관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정희(2002)는 석사논문인 '소리환경을 도입한 공감각적인 환경 만들기'에서 시지각에 편중되어온 환경사에 대한 반성과 소리환경 도입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전통소리경관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신훈 외(2004)는 '노랫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음풍경 인식조사' 논문을 통해 시조, 민요, 판소리, 가곡 등 한국의 전통적인 노랫말에 나타난 음풍경 사고를 추출하여 자연음과 인공음, 시간대, 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태강 외(2005)는 '고시조 속에 표현된 한국인의 소리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전통 소리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신용규(2005)는 석사논문인 '소쇄원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대표적 별서정원인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쇄원 48영시 중에서 소리경관과 관련된 시를 찾고, 계절별로 소쇄원의 소리를 녹음하여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음압, 주파수 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쇄원의 소리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전통소리경관 사례와 시문 분석, 공간의 음향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영시, 조영기록 등의 사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별서원림의 과거의 소리경관과 현재의 소리경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감상자의 감상태도와 별서원림 속에 나타난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소리경관 이론의 이해

#### 1. 소리경관이론

소리경관(Soundscape)은 1969년 캐나다의 작곡가 R. M. Schafer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Schafer는 그의 저서 『*The Turning of the World*』 (1977)에서, 근대 이후 시각 환경(visual environment)의 강조와 그에 따른 소리환경(sonic environment)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부터 자연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사운드시케이프(soundscape)를 정의했다. 그는 시각편중의 디자인 경향이 청각을 포함한 기타 감각의 고른 발달을 은연중에 억제시켰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시각 이미지가 범람하는 사태와 함께 인간 감각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첫 단계로서 사운드시케이프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기계중심의 소리환경으로부터 자연적인 소리환경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도 한다.<sup>1)</sup>

소리경관 개념의 성립과 전개의 배경으로 시각중심, 물질 중심의 근대 서양의 경관 설계와 환경 디자인의 영역에서 시각 외의 청각과 같은 보다 부드러운 감각요소를 도입하여 인간의 감성에 대응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해 간다는 사고방식과 각 지역의 독특한 조건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전개해 간다는 사고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Schafer의 사상은 현대음악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나아가 환경 디자인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리경관 디자인의 개념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 소리의 종류에는 음악과 같은 인위적인 창작물과 비, 바람, 생물의 울음과 같은 자연계의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 기계와 음향 미디어의 소리, 그리고 기억과 이미지와 같은 소리 또한 포함된다.<sup>2)</sup>

---

1) 민정희, 앞에 든 논문, 27쪽 참고.

2) 토리고에 게이코, 『사운드시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 한명오 역, (서울: 세진사, 2005), 참고.

## 2. 사운드시케이프 개념의 의의

### 1) 음향세계의 확대

소리환경 전체를 풍경으로서 해석하는 사운드시케이프라는 사고는 종래의 의미에서의 음악의 음, 그 외의 인위적인 소리 뿐 아니라 지구규모의 자연계의 소리에서 인간의 소리, 도구의 소리, 기계의 소리 등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울림에 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의, 더욱이 활기와 조용함이라는 소리환경의 다양한 특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2) 소리를 만드는 요소주의에서의 탈피

사운드시케이프라는 사고는 우선 특정의 소리 혹은 음향현상과 그 가치를 개개의 소리 그 성격과 특성으로만 고찰하였던 이제까지의 소리를 만드는 요소주의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이것은 이제까지 개별로 검토해 온 소리를 각각의 공간에 있어서 소리환경 전체의 컨텍스트(context)로써, 더욱이는 그 공간에 있어서 토탈(total)한 의미로 경관과 문화 전체의 컨텍스트로 되돌리면서, 그들과의 관련 속에서 각각의 소리를 파악하고 검토한다는 환경/경관/문화에의 소리의 환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 3) 기계론적 환경관에서 의미론적 환경관으로 확대

각종 계기에 의한 계측을 기본으로 하여 소리를 파악하는 종래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경은 그 안에 사는 주체와는 무관계로 존재하는 주위의 물리적 상황이고, 그것이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자극으로써 작용한다’ 고 하는 기계론적 환경관에 기본을 둔다. 이것에 반해서 사운드시케이프의 사고는 ‘환경은 주체에 따라서 의미되어지고 구성되는 세계이다’ 고 하는 의미론적 환경관에 속한다. 따라서 사운드시케이프의 사고는 소리를 만드는 환경과 일반을 종래의 기계론적 환경관에서 의미론적 환경관으로 전환 혹은 확대하는 의의를 갖는다.<sup>3)</sup>

---

3) 한명오, 오양기, “사운드시케이프의 개념에서 본 소리환경보전의 의의와 방향”, 『한국 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222쪽.

## 제 2 절 전통 소리사상과 음악의 이해

### 1. 전통 소리 사상의 이해

조선시대 별서원림의 소리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소리에 대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리에 대한 관념이 체계적인 사상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삼국시대 이전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유교와 도교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특히 유교는 조선 초기의 정치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른바 예악사상(禮樂思想)으로 대표되는 예(禮)와 악(樂)에 관련한 체계적인 관념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오경(五經)』<sup>4)</sup>중 하나인 「예기(禮記)」<sup>5)</sup>에는 예악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유가철학(儒家哲學)에서 경세방편(經世方便)으로 보통 예(禮)·악(樂)·형(刑)·정(政)의 네 가지를 드는데, 이들 중 악은 예를 실어내는 방편이자 예를 실천하는 수단이고, 음악의 범주를 넘어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이념으로 설명되고 있다.(국립국악원, 2007: 24)

『악학궤범(樂學軌範)』<sup>6)</sup>에서는 조화와 질서를 지향하는 정치를 위한 악(樂)의 효용성을 기저에 두고, 음악의 이론, 음률, 악곡의 진행과정 및 악기(樂器)의 설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로 전해오는 악곡 및 악기(樂器)를 정리하고 새롭게 향악을 창작하는 노력을 보이는 등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의 음과 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통의 소리와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창조하는 데 힘을 기울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조선 초 유학자들의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지역적, 민족적, 역사적, 언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악학궤범에 예시된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흠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은 「악기(樂記)」<sup>7)</sup>를 통해 살펴본 소리와

---

4) 유교의 다섯 가지 기본경전. 일반적으로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를 이른다. (네이버지식사전 참고)

5) 예기(禮記)는 유교 경전 중 오경(五經)의 하나로서 의례의 해설뿐 아니라, 음악·정치·학문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예의 근본정신에 대해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6) 악학궤범은 조선 성종 24년 성현, 유자광, 신말평, 박곤, 등이 성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조선의 음악이론 책이다. 조선 건국 이후 질서와 제도의 명문화화를 위해 소리와 음, 악에 주목한 책으로 공자(孔子)의 유가적 악론(樂論)과 그 궤를 같이하여 소리와 감성의 관계를 통한 사회 정치적 교화와 효용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감성 유형이다. 이와 같은 악기(樂記)에 나타난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소리와 감성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기(樂記)에서는 소리 자극을 애심(哀心), 락심(樂心), 희심(喜心), 노심(怒心), 경심(敬心), 애심(愛心)의 여섯 가지 감성과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유교적 세계관에서의 소리의 개념이 정치적 이념의 차원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유효한 도구였다면 불교와 민간신앙 등 종교에서의 소리는 믿음과 관련된 소망과 상징의 소리였다. 산사(山寺)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風磬)<sup>9)</sup>은 수행자의 나태함을 깨우치는 경세의 의미를 지닌 소리도구로, 수행자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운다. 사물(四物)<sup>10)</sup>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리도구이다.

사물은 풍경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리가 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바람이 담긴 소리도구이다. 무속의례에 사용되는 각종 악기(樂器)나 방울과 같은 의물(儀物) 역시 신을 청하고 신을 위해 올리는 기원과 소망의 뜻을 담는다. 이러한 소리들은 관념으로 존재하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기능성을 겸비한 소리이기도 하다.(국립국악원, 2007: 25)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

[사진 2-1] 불교의 사물(四物)

7) 예기(禮記)의 편명. 음악의 음률에 관한 서술이 있음.

8) 김태숙, “동양철학에서의 소리의 속성과 감성유형”, 『감성과학』 13(1), 2010, 215-24쪽 참고.

9)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물고기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10) 불교에서 사물은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불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자라난 악, 악학, 예술에 대한 관념은 개인적인 동시에 현실성을 띤 음악의 생산과 확산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풍류(風流)' 사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풍류는 우리민족이 누린 멋의 문화로 그 정신은 자연을 가까이하고 노래와 춤, 술과 아름다운 여인을 깊이 애호하고 즐길 줄 아는 한민족의 예술적 충동이다. 풍류인이야 말로 조선조 선비들이 꿈꾸었던 현세의 이상적 인간이었다.<sup>11)</sup>

기록에 따르면 풍류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시대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최치원(崔致遠)의 저서 난랑비서(鸞郎碑序)이다. 저서에서 최치원은 풍류를 유교, 불교, 도교의 소료(所料)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현묘한 도(道)로서 정의하고 있다. 풍류는 화랑과도 연관이 깊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정신적 종교적 교육적 이념이 풍류사상이라 알려졌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화랑들은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가악으로 즐겁게 하며, 이름난 산과 큰 내를 돌아다니며 먼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고 한다.(한홍섭, 2003: 13-14)

이처럼 풍류를 즐기는 것은 신라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행해져왔던 우리 고유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풍류는 조선시대 들어 유가사상(儒家思想)에 기반을 둔 양반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이자 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성리학적 지배규범 하에서 예술과 교양은 양반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詩), 서(書), 화(畵), 악(樂)이 자연스럽게 풍류의 주된 매개로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 각종 회화 작품에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풍류의 대표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김홍도(金弘道)의 후원유연(後園遊宴)이나 월하취생도(月下吹笙圖), 신윤복(申潤福)의 주유청강(舟遊淸江), 청금상련(聽琴賞蓮), 상춘야흥(賞春野興), 김희겸(金喜謙)의 석천한유도(石泉閒遊圖) 등이 음악을 소재로 한 개인적인 풍류를 담아낸 작품이며,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와 같이 관원들의 연회를 묘사한 작품에서는 의례적이고 집단적인 형식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sup>12)</sup>

이처럼 풍류란 탈속적인 정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태도, 운치 있고 자유분방한 멋 등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즉 단순히 유희를 즐기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사상이자 수양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홍섭, 2003: 13)

---

11)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공편, 『소리-만남, 생각 그리고 추억』(서울: 국립국악원, 2007), 140쪽.

12) 같은 책, 140쪽 참고.



[그림 2-1] 김홍도, <후원유연(後園遊宴)>, 28.2×35.6cm, 종이에 담채,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그림 2-2] 작가미상, <선전관계회도(宣傳官契會圖)>115.0×74.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 소리사상은 자연에 그 기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전통 악(樂)의 미(美)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상태를 자연스럽게 하여 자기(自己)와 자연(自然)의 일체, 또는 선(禪)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삼았던 것이다.<sup>13)</sup>

13) “고주석 교수의 ‘창조의 미에 대한 동양의 이해’”, 참고 <http://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koju.htm> (검색일: 2012년 4월 2일).

## 2. 전통 음악의 이해

전통 소리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소리 사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즐겼던 음악(音樂)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은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았던 나라이다. 유교는 예(禮)와 악(樂)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실현되는 사상이다. 그런 까닭에 건국 후 왕립음악 기관인 장악원(掌樂院)을 설립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쓴 장악원제명기의 일부분이다. “사람으로서 가히 음악을 알지 못할 수 없을 것이니, 음악을 모른다면 우울하고 짝 막혀서 무엇으로도 그 기운을 펼 수가 없을 것이요, 나라에 하루 동안이라도 음악이 없을 수 없으니, 음악이 없다면 침폐하고 야비하여 무엇으로도 그 화기(和氣)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산 정약용은 “예(禮)로는 행동을 절제하고 악(樂)으로는 마음을 화평하게 한다. 절제는 행동을 바르게 하고 화평은 덕을 기르는 것이니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쪽도 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으며, 덕은 안이며 근본이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밖으로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기에 음악으로 사람을 교화하는 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sup>14)</sup> 이처럼 조선시대에서 음악을 개인의 인격 수양에서부터 국가적 통치 차원에 이르기까지 중요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스스로 금을 타고 피리를 불며 음악을 즐기던 음악가로서 시조(時調)를 지어 부르던 것을 즐겼다. 특히 시조는 시(詩)와 함께 곡(曲)을 지어 부르는 것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와 같이 별서원림에서 지어진 시조가 현재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 상류층의 양반들이 즐기던 음악은 세속음악(世俗音樂) 중에서도 정악(正樂)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속음악인 속악(俗樂)과는 구분되는 음악이다.

정악이란 악곡진행의 속도가 촉진(促急)하지 않고 완서(緩徐)하여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음악으로, 직업연주자가 돈을 받고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연주자 스스로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이다.<sup>15)</sup>

또 음악을 즐길 때 사용되는 악기의 특징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sup>16)</sup>를 통

14) 이지양, “나만 모르나, 우리노래?”, 『국악은 나의 아름다움이다: 명사들이 쓴 한국음악 미셀러니』, 고정욱 외 22인 (공편), (서울: 한국문화예술회협회, 2008), 137쪽 참고.

15) 정농악회(正農樂會)의 정악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였다.

16) 상고(上古)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책으로 활자본 250권 50책에 달한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에 왕명으로 만

해 알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에서 악기를 만들 때, 그 재료를 8가지 자연물(쇠,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을 이용하여 악기를 제작하였고, 이를 '팔음(八音)'이라 하였다. 또한 우리음악의 기본이 되는 음(音)인 12울은 음(陰)과 양(陽)의 소리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자연적 원리를 담고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오행의 다섯 요소인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상생하며 상극하여 넘치는 것을 조절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듯, 우리음악의 5음계도 '궁상각치우'의 음(音)질서를 갖고 선율을 진행한다. 이처럼 우리 전통음악은 선조들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자연관과 닮아있다. 악기의 소리에 있어서도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추구하였고, 기악(器樂)과 성악(聲樂)에서도 모두 소리가공의 단계를 최소화시켜 나갔다. 많이가공된 소리일수록 고운 소리의 이상에는 접근되나 자연의 소리에서는 멀어져 가게 된다. 이를 위해 자연에서 비롯된 재료로부터 자연의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 안에 자연의 이치를 담고자하였다. 따라서 악기 제작의 경우에까지도 가능한 가공 단계를 축소시켰으며 공정 또한 수작업을 고수하였다. (신대철, 2001: 218-219)

많은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비들이 산수(山水)와 더불어 시를 노래하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흐르는 물소리와 더불어 거문고를 연주하던 소리가 자연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흥취가 배가(倍加)되었던 것은 전통음악과 악기가 자연의 소리를 닮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3. 아회(雅會)와 계회(契會)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궁궐이나 관에서 주도하고 참석자의 규율이 엄격한 공적인 모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참석자는 관벌의식과 태평성세를 염원하는 관료로서의 우월감을 나타내려 하였다. 조선 초 중기의 문헌을 살펴보면 ‘설연(設宴)’ 곡연(曲宴) 사연(賜宴) 연회(宴會) 시연(侍宴) 회음(會飲) 야연(夜宴) 연좌(宴坐)라 불리는 모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뒤의 모임에서는 음악, 춤, 가창, 시작의 행위보다 술과 음식이 수반되는 ‘회음’이 주가 되었고, 이것이 너무 과하여 회음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6세기부터는 계회, 요계, 갑회 등의 모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계에 관한 정의는 정약용의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들어졌으며 이후 1908년까지 여러 회에 걸쳐 편찬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리지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계(契)라고 일컫는다. 동갑인 경우 갑계(甲契) 같은 해의 과거 합격이면 방계(榜契) 그리고 같은 관청인 경우 요계(僚契)라 부르며, 홍문관에서는 계병을, 승문원에서는 계첩을 만든다. 이 풍습이 전해져서 향촌에서 금전을 각출하는 것 역시 모두 ‘계’라고 이름 한다.” <정약용, 「아언각비(雅言覺非)」, 『여유당전서』><sup>17)</sup>

계회의 확산은 모두 사림의 정계 진출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 하였던 ‘사림’은 여러 사화를 겪으면서 훈구와의 충돌 속에서도 성장하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동료 간의 결속력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사화’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문인들은 재야에 은거하였고, 자신들의 학문을 심화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김종직 중심의 영남사림과 조광조 중심의 기호사림과는 한양을 떠나 지방에 은거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입지를 펼쳤고, 문학을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 구현을 꿈꾸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성리와 도덕의 문장’을 가장 이상적인 사회 구현을 꿈꾸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성리와 도덕의 문장’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림의 모임은 풍류와 시적인 유희를 즐기는 아회가 아닌, 인격 함양과 도체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회라 할 수 있다.

17세기 들어 궁궐이나 관아가 아닌 사가에서 열린 자유로운 모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스스로 풍월향도(風月香徒)라 하였던 유희경이 자신의 거주지인 침류대에 문인을 모아 결성한 침류대 모임이 대표적인 예이다.<sup>18)</sup>

이렇듯 사대부들은 아회, 계회를 통해 시를 지어 읊고, 거문고와 같은 악기를 즐기는 풍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모임이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가 별서였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들이 아회, 계회를 통하여 즐겼던 풍류 또한 당시의 소리경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7)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서울: 일지사, 2000), 68쪽에서 재인용.

18)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서울: 다할미디어, 2008), 76-81쪽에서 재인용.

## 제 3 절 사료를 통한 소리경관 연구

### 1. 시, 기록 속의 소리경관

조선 중기의 문인 소세양은 “산과 물은 천지간의 무정한 물건이므로 반드시 사람을 만나 드러나게 된다. 황주의 적벽도 소동파가 없었더라면 한산하고 적막한 물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이름을 드리울 수 있었겠는가?” 라 말하였다. 사람의 시선이 휘돌아야 산수(山水)가 요요하고 서정이 붓에 휘감겨야 수려함이 고개든다. 옛사람들은 풍월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름 없는 산과 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산과 물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지었다. 수많은 시, 기록 등의 문헌에서 경관을 표현할 때 소리가 함께 등장하는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정자, 연당 등의 경관을 시를 통해 표현할 때 주위 식물, 암석 자체 보다는 연잎 위의 빗소리, 수면의 달빛, 오동잎 지는 소리 등에 대한 묘사가 종종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sup>19)</sup>

이학규(李學逵, 1770~1834)의 「기소지(記小池)」라는 글에서 조선후기 연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작은 방의 서쪽 창을 열면 오이 넝쿨 시렁이 있다. 길이는 몇 길, 높이는 그 절반으로, 내리찍는 석양빛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그 건너편에 작은 연못을 팠다. 넓이와 폭이 각각 세 길이다. 부들을 심어 못을 둘러싸고 수면을 부평초로 덮었다. 그 안에 낚시를 드리우고 즐기기 위해서 가물치를 길렀다. 기운 해가 물을 비취 물이 맑고 바람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면, 두꺼비·맹꽁이는 해엄치고, 잠 자리는 오르락내리락 날며, 풀과 꽃은 물속에 그림자를 담그고, 조약돌은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조용히 관찰하면 참으로 즐겁다. 그때면 물총새란 놈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크기는 때까치만 하고 부리는 딱따구리 같다. 양 날갯죽지는 오이껍질 빛깔이고, 목덜미는 노란 빛깔, 등줄기 털은 새파랗다. 때때로 물을 스쳐날며 한 치가 넘는 물고기를 잡아 오이 넝쿨 시렁으로 날아가 앉는다. 거기서 제멋대로 먹고서 가버린다. 날마다 그렇게 한다.”

<이학규, 「기소지(記小池)」>

이학규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생물들의 활동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직접적인 소리에 대한 묘사 없이도, 연못 주변에서 두꺼비·맹꽁이와 물총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 鄭榮善, 韓國人의 景觀觀에 對한 考察,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43쪽 참고.

역사서 또한 과거의 소리경관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삼국사기 백제 편에서 '궁실을 수리하고 연못을 파고 단을 만들고 기이한 새와 화초를 길렀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공간을 설계하는데 수목 등을 통해 조류를 유치하여 이를 정원 내의 청각 요소로 활용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20)</sup>

또, 전국 방방곡곡의 이름난 팔경에서도 소리경관을 찾아 볼 수 있다.

팔경(八景)이란 뛰어나게 아름다운 어떤 지역의 여덟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며 중국(中國)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명종 때 이광필(李光弼)이 임금의 명을 따라 소상팔경도를 그렸다는 고려사 기록으로 보아 이미 12세기 중엽에 도입이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화가들이 소상팔경도를 즐겨 그렸으나 그 풍경은 중국의 절경이었기에 우리나라의 풍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팔경은 대체로 15세기까지는 대부분 관각문인들에 의해 관가에서 경영하는 누정이나 군명(郡名) 등을 대상으로 한 반면, 16세기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별서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sup>21)</sup>

공간적으로는 한국적으로 변용하여 16세기 이후 사림파(士林派)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문학양식으로 수용되는 등 개성적 양상을 나타내기에 이른다. 특히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제영(題詠)조에는 팔경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sup>22)</sup>

이후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眞景山水)에 이르러 우리의 산야가 소재가 되는 실경산수(實景山水)로 발전하고 되었고 주변의 산수에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자부심을 부여하여 시와 노래 등으로 지역의 뛰어난 경치를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팔경문화를 탄생시켰다. 전해지는 팔경시는 4천여 수가 넘는 제가의 관련 작품이 각종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또 팔경으로 모자랄 경우 십경(十景), 이십영(二十詠), 사십영(四十詠) 등으로 경관을 노래하였다. 특히 팔경은 팔경시와 함께 팔경도(八景圖)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경관과 소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팔경에서 시각적 경관이 아닌 청각적 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팔경에서 나타나는 소리경관은 다음의 [표 2-1] 과 같다.

20) 민정희, 앞에 든 책, 18쪽에서 재인용.

21)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6-47쪽 참고.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팔경시” 항목. 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2년 5월 13일).



[표 2-1] 팔경시에 등장하는 소리

| 제목                                   | 명명자          | 내용             | 현대어 번역                            |
|--------------------------------------|--------------|----------------|-----------------------------------|
| 경포팔경<br>(鏡浦八景)                       | -            | 환선취적<br>(喚仙吹笛) | 환선봉에서 들려오는 피리소리                   |
|                                      |              | 한송모종<br>(寒松暮鐘) | 한송사의 저녁 종소리                       |
| 경호팔경<br>(鏡湖八景)                       | 송시열<br>(宋時烈) | 홍장문적<br>(洪莊聞笛) | 홍장의 아름다운 피리소리                     |
|                                      |              | 인월모종<br>(引月募鐘) | 인월사의 저녁 종소리                       |
| 낙산팔경<br>(洛山八景)                       | -            | 낙가모종<br>(洛迦暮鐘) | 낙산사의 저녁종소리                        |
|                                      |              | 광석야침<br>(廣石夜瞻) | 광석에서의 한밤중 다듬이소리                   |
| 금사팔영<br>(金沙八詠) <sup>23)</sup>        | 김안국<br>(金安國) | 남계수조<br>(南溪垂釣) | 남쪽 개울에 낚싯대를 드리우는 일                |
|                                      |              | 북간탁영<br>(北澗濯纓) | 북쪽 개울에서 갓끈을 씻는 일                  |
|                                      |              | 용담욕영<br>(龍潭浴詠) | 용담에서 목욕하고 시를 짓는 일                 |
|                                      |              | 죽오청풍<br>(竹塢淸風) | 대 밭의 맑은 바람                        |
| 침류대이십영<br>(枕流臺二十詠)<br><sup>24)</sup> | 유희경<br>(劉希慶) | 이원모종<br>(尼院暮鍾) | 천단의 새벽 경쇠소리                       |
|                                      |              | 천단효경<br>(天壇曉磬) | 천단의 새벽 경쇠소리                       |
|                                      |              | 류시앵가<br>(柳市鶯歌) | 버들 늘어진 거리의 피꼬리 노랫소리               |
|                                      |              | 차계완사<br>(叉溪浣紗) | 차계의 빨래터                           |
|                                      |              | 삼산모우<br>(三山暮雨) | 삼각산의 저녁비                          |
| 동호(東湖)<br>팔경시 <sup>25)</sup>         | 이항복<br>(李恒福) | 전교목적<br>(前郊牧笛) | 앞 들판 목동의 피리소리                     |
|                                      |              | 후산초창<br>(後山樵唱) | 뒷산에서 들려오는 어사용                     |
| 비우당팔경<br>(庇雨堂八景)                     | 이수광<br>(李睟光) | 동지세류<br>(東地細柳) | 동지(東地)의 버들이 봄바람에 날리고 피꼬리가 지저귀는 모습 |
|                                      |              | 아차모우<br>(峨嵯暮雨) | 아차산에서 부터 별판을 지나 불어오는 저녁비          |

|                |              |                |   |
|----------------|--------------|----------------|---|
| 송암팔경<br>(松巖八景) | 권호문<br>(權好文) | 류막앵가<br>(柳幕鶯歌) | 봄이 저물면 긴 제방에 수양버들이 어른거리고 찌꼬리 울음소리가 막 바뀔 무렵 주렴을 걷고 이를 듣는다.           |
|                |              | 원촌목적<br>(遠村牧笛) | 평원에 낙조가 드리워질 때 작은 병거지를 쓴 초동이 송아지를 타고 젖대를 비껴 불면 난간에 기대어 이를 듣는다.      |
|                |              | 맥랑파<br>(麥浪波)   | 매우(梅雨)가 막 그칠 때 먼 곳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드넓은 언덕의 푸른 물결이 반짝 거리면 난간에 기대어 구경한다. |
|                |              | 대월금<br>(對月琴)   | 고요한 밤 그윽한 창가에서 책을 덮고 홀로 앉아 있는데 싸늘한 달빛이 비치면 거문고에게 말을 건네 회포를 풀다.      |

## 2. 그림 속의 소리경관

그림 또한 역사 속의 소리경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양에서는 시와 그림을 동격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를 시정화의론(詩情畫意論)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후기 문인화(文人畫)가 들어옴과 동시에 화제(畫題)를 쓰기 시작하였다. 시와 그림이 결합하는 방식 중에서 화자무성시 시자유성화(畫者無聲詩 詩者有聲畫)의 형식은 그림은 곧 “소리 없는 시(無形詩)” 요, 시는 곧 “소리 있는 그림(有聲畫)”이라는 개념에 입각한다. 왕유(王維)는 스스로 시인이자 화가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의 소산은 후대에 소식(蘇軾)으로 하여금 마힐(摩詰), 즉 왕유의 시를 맛보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보면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 라고 성찬케 했다. 이러한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畫中有詩)'라는 논리는 소식 자신의 시화론이기도 했다. 즉 그는 “내가 지은 시는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라 했다. 여기에서 시중유화라는 것은 시의 경계가 그림처럼 선명하다, 즉 구양수(歐陽脩)가 말한 대로 “시를 보는 것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는 것이다.

그리고 화중유시는 그림에 시와 같은 의경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경미

23)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태평성세와 그 균열』 (서울: 휴머니스트, 2006a), 384쪽.

24) 같은 책, 24쪽. 여기서의 침류대는 유희경이 말년에 도봉산에 마련한 침류대와 구분되어 '원골 침류대'라고 불렸다.

25)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 도성에서 쫓겨나게 되어 동호(東湖)의 독포(禿浦, 뚝섬)에 영산군 소유의 집을 빌려 살았다. 그때의 경관을 팔경시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는 자연경물을 관찰한 다음, 생각을 옮겨 묘를 얻고, 또한 정과 경을 서로 융합하여 얻어낸 우미한 경계이다.<sup>26)</sup>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실제 경관을 그림으로 옮긴 것으로 그림과 화제를 통해 시각적 경관, 청각적 경관과 더불어 그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심상(心象)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풍속화(風俗畵)를 통해 조선 시대의 양반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소리를 찾아내고자 한다.

### 1) 이경윤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월하탄금도는 이경윤의 작품으로 소경산수(小景山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그림의 초점은 거문고를 타는 선비에게 주어지고, 주변의 바위와 나무, 그리고 달은 배경 구실을 하고 있다. 앞쪽의 바위는 흑백의 대비가 뚜렷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의 바위는 비스듬히 솟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간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던 절파(浙派) 계통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화면은 간략하고 단순한 구도로 되어 있지만 미처 화면에 표현되지 않은 거문고의 침묵의 소리가 들리는 듯 시적(詩的)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일반적으로 정통 회화가 화가의 개성적인 창의성보다 동시대(同時代) 사람들의

[그림 2-3] 이경윤,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전본수묵, 31.2×24.9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공통된 의식이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월하탄금도는 이경윤 개인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배후의 화의는 어디까지나 그를 포함한 당시 선비 계층의 공통된 의식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면의 주인공은 이경윤 자신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선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월하탄금도는 이경윤의 손을 빌렸으며, 당시 선비들의 공통된 정신세계가 반영된 그림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26) 황기원,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480-82쪽 참고.

27) “월하탄금도” <http://koreandb.nate.com/culture/detail?sn=15> (검색일: 2012년 3월)

## 2) 신윤복 청금상련(廳琴賞蓮)

청금상련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기와를 얹은 돌담과 2단으로 쌓은 축대 방지형의 연못으로 보아 호화로운 양반의 고급주택으로 추정된다. 그림에 남자 세 명과 기생 세 명이 등장하는데 남자들의 의관으로 보아 지체 높은 양반임을 알 수 있다. 맨 오른쪽의 악기는 가야금인데 가야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기생을 금기(琴妓)라 하였다. 즉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연꽃을 감상하는 풍류를 엿볼 수 있다.<sup>28)</sup>

## 3) 신윤복 상춘야흥(賞春野興)

언뜻 야외처럼 보이는 그림의 배경은 아래쪽의 석축을 통해 양반가의 원림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의복으로 보아 지체 높은 양반들이 기생과 악공을 불러 봄날의 풍류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악공들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젓대와 해금 그리고 거문고임을 알 수 있다.<sup>29)</sup>



[그림 2-4] 신윤복, <청금상련(廳琴賞蓮)>, 『해원전신첩』, 28.2×35.3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2-5] 신윤복, <상춘야흥(賞春野興)>, 『해원전신첩』, 28.2×35.6cm, 간송미술관 소장.

20일).

28) 조경진, 서영애,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해 본 정원의 풍류적 의미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5), 2008, 99쪽.

29) 같은 책, 100쪽 참고.

#### 4) 신윤복 주유청강(舟遊淸江)

신윤복의 <주유청강(舟遊淸江)>에는 양반들이 기생, 그리고 노 젓는 뱃사공과 젓대 부는 소년을 대동하고 즐기는 뱃놀이가 그려져 있다.

그림 속의 양반들은 생황과 젓대의 소리를 즐기며 선유놀음에 한창이다. 제화시를 통해 바람소리와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흰 갈매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갈매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유청강 이외에 『한양가(漢陽歌)』에도 공물방(貢物房)의 뱃놀이가 언급되고 『계우사』<sup>30)</sup>에는 주인공 무숙이 한참 허랑방탕하게 주색잡기에 전념할 때 일화 가운데 하나로 선유놀음이 나온다. 이러한 사료들을 통하여 볼 때 사대부들의 선유놀음에는 기생과 악공을 대동하거나 혹은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며 풍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신윤복, <주유청강(舟遊淸江)>, 『혜원전신첩』, 종이에 담채, 28.2× 35.6cm, 간송미술관 소장.

#### 5) 백은배 탄금야흥(彈琴野興)

백은배는 탄금야흥에서는 한적한 야외에서 풍류를 즐기는 양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가로이 담뱃대를 물고 기녀의 가야금 연주를 즐기고 있는 여유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 그림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의 여흥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백은배, <탄금야흥(彈琴野興)>, 종이에 담채, 30.3x23.0cm, 간송미술관 소장

30) 『계우사』는 판소리 12마당가운데 하나로서 19세기 후반까지 창으로 불렸던 판소리 “무숙이 타령(武叔—打令)의 사설 정착본으로 판단된다.

#### 6) 김희겸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

석천한유도는 화가 김희겸(金喜謙, 생몰년미상)이 그린 그림으로 조선시대의 무신(武臣)인 석천(石泉) 전일상(田日祥) 선생이 정자 위에 앉아 한가로이 더위를 피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림에서 석천은 언덕 위의 기와 정자에 기대어 손등에 매를 올려놓고 냇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굽이진 시내를 흐르는 물소리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와 여인이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가 그림 밖까지 들리는 듯하다. 이외에도 개와 말, 매의 울음소리 역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리다.



[그림 2-8] 김희겸,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 87.5x119.5cm, 개인 소장.

이처럼 조선시대의 풍속도를 통하여 당시의 양반들이 자연을 벗 삼아 다양한 소리를 즐긴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류 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리경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글로서 미처 표현되지 못하는 경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3. 풍속 · 풍습 속에 나타난 소리경관

#### 1) 청참(聽讖) 풍속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궁금하게 여기거니와 점복(占卜)을 통하여 판단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참도 일종의 점복이다.

설날 아침 일찍 집 근처를 서성거리면 날짐승이나 길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맨 처음 들은 짐승의 소리를 연운(年運)을 미리 알리는 예조(豫兆)로 해석한다. 까치소리는 길조로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고, 까마귀 소리는 흉조(凶兆)로 그해에 불행이 있을 징조로 해석하였다.

설날은 한 해의 첫출발이기 때문에 1년의 운수를 설날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사전에 점복하고자 하였다. 첫 마수를 운명적으로 긍정하는 관습은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왔으며, 옛사람들은 길성(吉聲)을 듣기 위하여 일부러 까치가 많은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도 있었다.

농촌 가옥 둘레에 죽나무를 심는 것은 목재로도 쓰거니와 까치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아침 · 저녁으로 까치소리를 들으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신앙에서 조류중 까치는 길조에 속하며, 까마귀는 흉조에 속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굳이 정월 초하룻날이 아니라도 이른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며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로 여겨왔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 길조라고 여기는 곳도 있다.<sup>31)</sup>

청참(聽讖)에 관한 문헌 기록은 조선 순조 때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그 내용이 보이는데, “새벽에 저자 거리로 나가서 방향에 상관없이 처음에 듣게 되는 소리로 일년의 길흉을 점치는데 이것을 청참이라고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행해진 풍속으로 보인다.<sup>32)</sup>

이렇듯 선조들은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길조로 여겨지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다.<sup>33)</sup>

31) 『인터넷두산백과사전』, “청참” 항목.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2년 6월 2일).

3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청참” 항목. <http://folkency.nfm.go.kr> (검색일 2012년 6월 2일).

33) 특이한 것은 전통적으로 꿈을 해몽하는데 있어 길조로 해석되는 소리들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별서에 관한 사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길하게 여겼던 것들이 꿈을 풀이할 때에 있어서도 길조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꿈에 학이 청아하게 울면 명성을 떨치게 된다.’ 또 ‘내리는 비를 맞

## 2) 까치를 기르는 풍습

까치는 전통적으로 길조로 여겨왔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희소식이 있다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겨져 까치를 선망하고 보호해왔다.

또 집안에 과거를 칠 자제가 있으면 까치집을 울 안에 있는 나무에 옮겨다 짓는 민속이 있었다. 까치는 서조(瑞鳥)요 집 안에 까치가 집을 지으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속전이 있었기에 인공적으로라도 까치집을 뜯어 옮겨뒀던 것이다.<sup>34)</sup>

또 기록에 신라 효공왕은 성안에 까치집이 몇 개나 되는가를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였다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이 까치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선조들은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모두 거두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었다. 벼이삭을 논바닥에 떨어뜨려놓았고,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할 때도 꼭대기에 몇 개씩은 씨감(까치밥)이라고 하여 남겨두었다. 이처럼 새와 자연과 공존하는 미덕을 지녔기에 겨울철에도 까치를 비롯한 새들의 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

## 3) 연꽃 피는 소리 감상(聽蓮花聲)

옛날 선비들의 격조 높은 친목모임으로 시사(詩社) 라는 것이 있었다.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며 연작시(連作詩)를 짓는 풍류모임이다. 정약용(丁若鏞), 이치훈(李致訓), 한치응(韓致應) 등 14명이 멤버인 죽란시사(竹欄詩社)에서는 가을이면 연꽃 좋기로 이름난 서대문 밖 서지(西池)에서 모임을 가졌다.

땅거미가 걷히기 전인 이른 새벽, 연못에 배를 띄워 연꽃 속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먼동이 트면 눈을 감고 숨을 죽여 가며 여기저기 연꽃이 피는 소리를 듣는다. 물론 감지하기 어려운 미성(微聲)이지만 둔탁하면서도 청량한 미성을 내는데, 그 소리가 오묘하기 이를 데 없어 심금(心琴)을 파고든다 하였다.<sup>35)</sup>

---

는 꿈을 꾸면 더 높은 벼슬에 오른다’ 고 한다. ‘물오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기고’, ‘노루와 사슴이 집안에서 노니는 꿈을 꾸면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된다’ 고 풀이된다. 경쇠소리, 노루 혹은 사슴, 오리, 학의 울음소리, 내리는 빗소리 등은 조선시대 기문과 시에서 흔히 팔경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소리들로서 별서에서 즐겼던 소리와 꿈 해몽에 있어 길조가 되는 소리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리를 즐기기에 있어서도 꿈 해몽에서와 같이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34) 이규태, 『한국인의 환경문화』 (서울: 신원문화사, 2000), 27쪽.

35) 같은 책, 41-42쪽.



#### 4) 눈 쌓이는 소리 감상

밤눈 쌓이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이었다. 좌선(坐禪)으로 어느 경지에 이르면 눈 쌓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 각기 아홉 가지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줄 알았다고 한다.

성종 때 성현(成俔)이라는 학자는 매화꽃이 필 무렵, 눈이 내리면 그 아래에 앉아서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도락(道樂)이었다던데, 그 소리에서 암향(暗香, 매화꽃 내음)이 풍길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한다. 눈 소리를 듣는 것도 신기한데 소리에서 냄새까지 맡다니, 자연과 인간이 융합되어 자연과 인간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겠다.<sup>36)</sup>

#### 5) 생활 속의 소리

옛날에는 빨래터의 풍경도 자못 하나의 시적인 정경이었다. 완산(完山)<sup>37)</sup>에는 완산십경(完山十景)이 전해지는데 그중 남천표모(南川漂母)가 바로 빨래터의 광경을 나타낸 것이다. 남천표모란 전주천에서의 빨래하는 광경을 일컬은 것으로, 춘분 무렵이면 빨래소리가 울려 뒷산과 골짜기 까지 울려 메아리쳤다고 한다.

옛 민요에도 '빨래노래'가 전해진다.

은하수라 깊은 물에 / 전하수야 젖넷물에 / 옥돌이라 정 맞은데  
천도복숭 정 맞은데 / 광포(廣布) 텅텅 씻다가이 / 난데없는 호강새가  
갓을 벗어 등에 지고 / 신을 벗어 손에 들고 / 안 봤는가 안 봤는가  
매가 온 것 안봤는가 / 산진(山陳) 맨가 수진(水陳) 맨가 / 여화동천 그림맨가  
저 달안에 월정(月精) 맨가.<sup>38)</sup>

또 유희경은 침류대이십영(枕流臺二十詠)의 하나로 차계완사(叉溪浣紗) 차계의 빨래터를 꼽고 있다. 이러하듯 물소리, 빨래 방망이소리, 아낙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빨래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낙산팔경(洛山八景)의 '광석에서의 한밤중 다듬이소리(廣石夜臚)'와 소쇄원 48영에서 '바둑 두는 소리' 또한 아름다운 경관 요소의 하나로 꼽은 것을 통해 선조들은 생활 속의 흔한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며, 그 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36) 이규태, 앞에 든 책, 42쪽 참고.

37) 전주(全州)의 옛 지명

38) 최승범,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서울: 주식회사 예음, 1992), 53-54쪽 참고.

## 제 3 장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연구

### 제 1 절 16~17세기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 1. 소쇄원(瀟灑園)

소쇄원이라는 이름은 소쇄(瀟灑), 즉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건립자인 소쇄양산보(梁山甫, 1503 ~ 1557)가 그 이름을 지었다.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던 그의 뜻이 담겨 있다.

양산보는 전라도 창평(현재의 담양) 출신으로 14세(1516년)에 아버지 양사원을 따라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 1482 ~ 1519)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스승인 조광조가 사약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을 결심하였다. 이듬해인 1520년 18세 때부터 소쇄원을 짓고 이곳에서 학문 정진을 위해 힘썼으며 이후 죽을 때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sup>1)</sup>

소쇄원은 흔히 ‘소리의정원’이라 부른다. 물소리와 바람소리, 새소리 즉 하늘과 땅과 생물의 소리가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소쇄원 입구와 제월당(霽月堂) 뒤편 언덕의 무성한 대나무 숲에서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를 이렇게 노래한다. “무정한 바람과 대나무지만 밤낮 생황(笙簧)을 분다네.” 대나무 잎의 흔들림으로 바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찼다하며 서로 부딪히는 대나무 잎의 소리를 통해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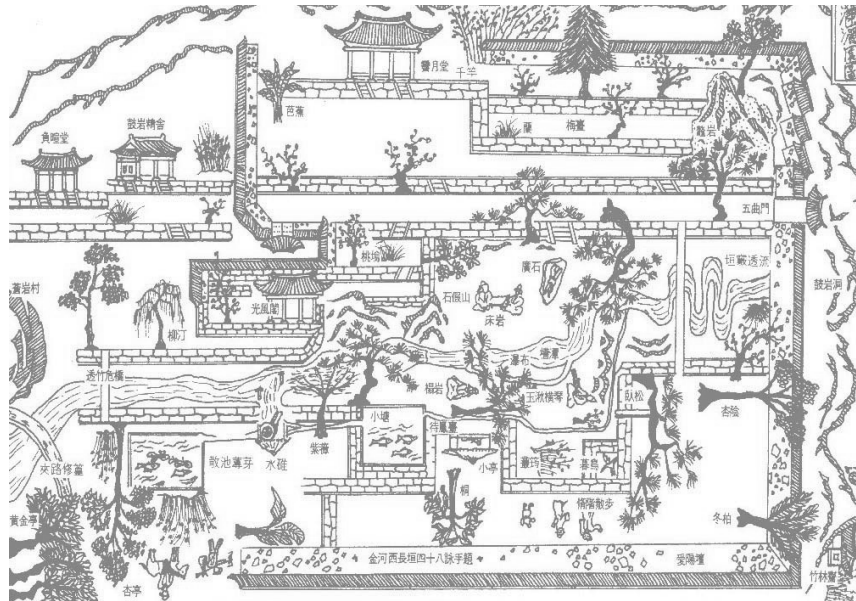
소쇄원에 관련된 자료로는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 김창흡의 남유일기(南遊日記), 소쇄원도 등이 전해지는데 자료에 소쇄원의 경관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소쇄원의 옛 소리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

“21일 맑음. 소쇄원을 방문하였다. 작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고 굽이굽이 흘러 몇 길이나 되는 폭포를 이루었다. 그 위에는 조담(槽潭)이 있는데 좌우에 무성한 대나무와 늙은 매화가 있었다.” <김창흡, 「남유일기」, 『삼연집(三淵集)』><sup>3)</sup>

1) “호남 선비의 풍류와 멋이 담긴 곳, 담양의 정자들”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2&id=1597&nP=1&ordering=&cate\\_type=1&sk=%EB%8B%B4%EC%96%91&rUrl=%2Fsearch%2Fsearch\\_story.asp](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2&id=1597&nP=1&ordering=&cate_type=1&sk=%EB%8B%B4%EC%96%91&rUrl=%2Fsearch%2Fsearch_story.asp) (검색일: 2012년 5월 15일).

2) 신용규, 남기봉, 국찬, “한국전통별서정원 소쇄원의 음풍경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4(1), 2004, 22쪽.

3) 박경자, 『조선시대 정원: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조경구조물을 중심으로』 (서울:



[그림 3-1] <소쇄원도(瀟灑園圖)>, 필사본, 35x25cm,

대숲 너머 부는 바람은 귀를 맑게 하고  
 시냇가의 밝은 달은 마음 비추네  
 깊은 숲은 상쾌한 기운을 전하고  
 엷은 그늘 흘날려라 치솟는 아지랑이 기운  
 술이 익어 살며시 취기가 돌고  
 시를 지어 흥얼 노래 자주 나오네  
 한밤중에 들려오는 처량한 울음  
 피눈물 자아내는 소쩍새 아닌가  
 <김인후, 「소쇄원을 위한 즉흥시」>4)

또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은 1574년 소쇄원을 방문하고 소쇄원의 물소리에 감탄하며 글을 남겼는데, 「유서석록(遊瑞石綠)」에서 소쇄원의 폭포소리를 거문고 튕기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학연문화사, 2009), 405쪽.

4) 강영조, 『풍경에 다가서기』(서울: 효형출판, 2003), 24쪽.

“계류(溪流)가 집의 동쪽에서 담장을 통해 흘러 들어와 물소리도 시원스레 아래로 돌아내린다. 그 위에는 자그마한 외나무다리가 걸려 있다. 다리 아래쪽에 있는 돌 위에는 저절로 패인, 절구처럼 생긴 웅덩이가 있는데 이것을 조담이라 부른다. 여기에 괴었던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는데, 물소리가 마치 거문고 통기는 소리처럼 영롱하다.”

〈고경명, 「유서석록(遊瑞石錄)」〉<sup>5)</sup>

소쇄원의 소리경관은 특히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명에 잘 나타나 있다.

48명 중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알 수 있는 시는 다음과 같다.

제1명 작은 정자의 난간에 의지해(小亭憑欄)

瀟灑園中景 소쇄원의 빼어난 경치

渾成瀟灑亭 한데 어울려 소쇄정 이루었네

擡眸輪颯爽 눈을 쳐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側耳聽瓏玲 귀 기울이면 구슬 굴리는 물소리 들려라

제1명에서 물소리를 패옥(佩玉)에 비유하였는데, 여기서 패옥은 계곡의 물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소쇄원을 드나들었던 선비들의 패옥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를 통해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는 청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제3명 높직한 바위에 펼쳐 흐르는 물(危巖展流)<sup>6)</sup>

溪流漱石來 흐르는 물은 바위를 씻어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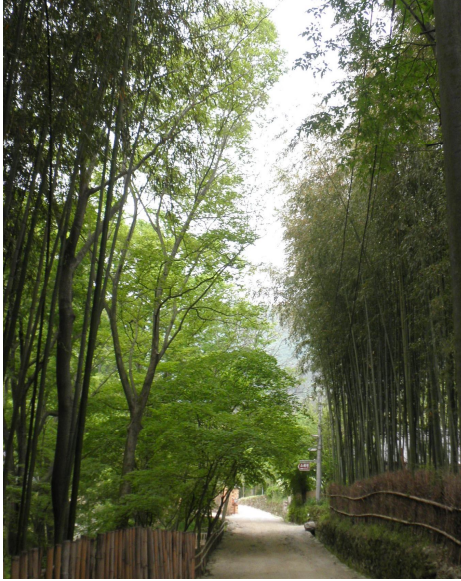
一石通全壑 하나의 돌이 개울에 가득하네.

匹練展中間 가운데는 잘 다듬어졌으니

傾崖天所削 경사진 절벽은 하늘의 작품이로다.

5) 황기원, 유명림, 박종화,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989), 211-12쪽.

6) 제3명은 소쇄원 계곡의 승경을 모두 말한 시다. 물의 흐름은 도통의 흐름을 상징한다. 아래로 학문을 해서 상달하는 뜻이 있다. 무이도가의 일곱번째에서 이런 시상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학도의 뿌리가 뻗어 자손 대대로 지치의 경지인 선계가 될 것을 비는 뜻이 있다. (출처: 소쇄원 홈페이지 <http://www.soswaewon.co.kr>)



[사진 3-1] 소쇄원 입구의 죽림(竹林)



[사진 3-2] 소쇄원의 계류

양산보는 흐르는 물의 이치와 더불어 단차를 이용한 폭포를 표현하였다. 조담이라 부르는 괴였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소쇄원도에서는 이를 폭(瀑)이라 부르고 있다. 이 폭은 제3영(危巖展流)의 시제 내용 속에 그 원형이 나타나는데, 계류는 깨끗한 바위 위를 흘러서 온 계곡이 한 바위로 깔린 벼랑을 흘러, 폭포가 중간에서 펼쳐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역동성은 물론 영롱한 분위기를 안겨준다.<sup>7)</sup>

제7영 나무 흠통을 뚫고 흐르는 물(剗木通流)  
 委曲通泉脈 샘 줄기의 물 흠통을 뚫고 굽이쳐 흘러  
 高低竹下池 높낮은 대숲 아래 못에 내리네  
 飛流分水碓 세차게 쏟아져 물방아에 흠어지고  
 鱗甲細參差 물 속의 인갑들은 갈아서 들쭉날쭉 해

제8영 물보라 일으키는 물방아(春雲水碓)  
 永日潺湲力(영일잔원력) 온종일 줄줄 흐르는 물의 힘으로  
 春來自見功(용래자견공) 찼고 찼어서 절로 공을 이루네  
 天孫機上錦(천손기상금) 직녀성이 짜놓은 베틀의 비단  
 舒卷孺聲中(서권도성중) 조용히 방아소리를 따르네.

7) “별서정원 내 수경관: 떨어져 내리는 물(落水)이 만들어내는 풍경의 아름다움, 폭(瀑)”,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http://www.heritagechannel.tv> (검색일: 2012년 5월 14일).

제7영과 제8영의 시는 대붕대 아래 하지에 설치되어 있던 물레방아를 노래한 시로서, 대나무 흙통을 타고 물레방아로 떨어지는 물소리와 함께 방아소리가 어우러졌음을 짐작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물레방아는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다.

제10영 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千竿風響)  
已向空邊滅(이향공변멸) 하늘 가 저 멀리 이미 사라졌다가  
還從靜處呼(환중정처호) 다시 고요한 곳으로 불어오는 바람  
無情風與竹(무정풍여죽) 바람과 대 본래 정이 없다지만  
日夕奏笙簫(일석주생황) 밤낮으로 울려 대는 대피리 소리

제11영 못 가 언덕에서 더위를 식히며(池臺納涼)  
南州炎熱苦(남주염열고) 남쪽 고을은 무더위가 심하다지만  
獨此占涼秋(독차점량추) 이 곳만은 유달리 서늘한 가을  
風動臺邊竹(풍동대변죽) 바람은 언덕 가의 대숲에 일고  
池分石上流(지분석상류) 연못 물 바위 위에 흩어져 흐르네

제10영과 제11영의 시는 소쇄원을 감싸고 있는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를 노래한 것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소리를 생황(대나무 피리)에 비유하고 있다.

제14영 담장 밑구멍을 뚫고 흐르는 물(垣竅透流)  
步步看波去(보보간파거)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보고 지나며  
行吟思轉幽(행음사전유) 글을 읊으니 생각은 더욱 그윽해  
眞源人未泝(진원인미기) 사람들은 진원을 찾아 거슬러 가지도 않고  
空見透牆流(공견투장류) 부질없이 담 구멍에 흐르는 물만을 보네

제14영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행음(行吟)하였던 것을 나타낸 시이다. 이를 통해 물소리가 생각을 더욱 그윽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제15영 살구나무 그늘 아래 굽이도는 물(杏陰曲流)  
咫尺潺湲池(지척잔원지) 지척에 물줄기 줄줄 내리는 곳  
分明五曲流(분명오곡류) 분명 오곡의 구비 도는 흐름이라  
當年川上意(당년천상의)<sup>8)</sup> 당년 물가에서 말씀하신 공자의 뜻  
今日杏邊求(금일행변구) 오늘은 살구나무 가에서 찾는구나

---

8) 천상의(川上意) : 공자가 川上에서 ‘세월은 물과 같아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간다’고 한 것을 말한다.

제20영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 비껴 안고(玉湫橫琴)  
 瑤琴不易彈(요금불이탄) 소리내는 거문고 타기 쉽지 않는 건  
 舉世無種子(거세무종자) 세상에는 종자기같은 친구 없어서라  
 一曲響泓澄(일곡향홍정) 맑고 깊은 물에 한 곡조 울리고 나면  
 相知心與耳(상지심여이) 마음과 귀만은 서로 안다네

제22영 평상바위에서 바둑을 두며(床巖對棋)  
 石岸稍寬平(석안초관평) 평상바위 조금은 넓고 평평하여  
 竹林居一半(죽림거일반) 죽림에서 지냄이 대부분이라네  
 賓來一局碁(빈래일국기) 손님이 와서 바둑 한판 두는데  
 亂雹空中散(난박공중산) 공중에서 우박이 흩어져 내려

22영에서는 계류 옆의 평상 바위에 앉아 바둑을 두는 소리를 우박이 흩어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자연과 벗삼아 흐르는 물소리를 즐기며 바둑을 두는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제26영 다리 너머의 두 그루 소나무(斷橋雙松)  
 瀼瀼循除水(꺅꺅순제수) 팔팔 소리내며 섬돌 따라 흐르는 물  
 橋邊樹二松(교변수이송) 다리 너머에 두 그루 소나무 서 있네  
 藍田猶有事(남전유유사) 옥이 나는 남전(藍田)<sup>9)</sup>은 오히려 일이 분주해  
 爭急此從容(쟁급차중용) 그 다툼은 조용한 여기에도 미치리라

제29영 좁은 길가의 밋밋한 대나무들(夾路脩篁)  
 雪幹縱橫直(설간창창직) 눈에 덮인 대 줄기 곧아서 창창하고  
 雲梢嫋嫋輕(운초노노경) 구름에 싸인 대 끝 솔솔바람에 간드러지네  
 扶藜落晚籜(부려낙만탁) 지팡이 짚고 나가 묵은 대껍질 벗기고  
 解帶繞新莖(해대요신경) 띠를 풀어서 새 줄기는 동여준다네

제43영 빗방울 떨어지는 파초잎(滴雨芭蕉)  
 錯落投銀箭(착락투은전) 어지러이 떨어지니 은 화살 던지는 듯  
 低昂舞翠綃(저앙무취초) 푸른 비단 파초잎 높낮이로 춤을 추네  
 不比思鄉聽(불비사향청) 같지는 않으나 사향의 소리인가  
 還憐破寂寥(환연파적요) 되레 사랑스러워라. 적막함 깨뜨려 주니

9) 남전(藍田): 아송남전(哦松藍田)의 고사를 지칭. 당나라의 최사림이 남전에서 삶의 감회를 노래했다는 고사에서 연유함.

43영에서는 제월당의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노래한 것으로 그 소리가 사랑스럽다고 묘사하고 있다.

제47영 애양단의 겨울 낮맞이(陽壇冬午)  
 壇前溪尙凍(장원횡백적) 애양단 앞 시냇물 아직 얼어 있지만  
 壇上雪全消(일일사신시) 애양단 위의 눈은 모두 녹았네  
 枕臂延陽景(유사열병장) 팔 베고 따뜻한 별 맞이하다 보면  
 鷄聲到午橋(물위풍우기) 한낮 닭울음소리가 타고 갈 가마에 들려 오네<sup>10)</sup>

소쇄원은 계곡을 중심으로 물소리, 바람소리, 새들의 울음소리와 거문고, 물레방아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 소리들은 시각적 경관과 더불어 소쇄원의 경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청각적 경관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사료를 통해 파악한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소쇄원’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패옥 부딪히는 소리     | 물소리    | 자연음 | 내부<br>공간 | 대봉대         | 소쇄원 48영 |
| 흐르는 물소리        |        |     |          | 수대          |         |
| 수대에 흐르는 물소리    |        |     |          | 폭포          |         |
| 떨어지는 물소리       |        |     |          | 대나무숲        |         |
|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 바람소리   | 인공음 |          | 물가          |         |
| 거문고 소리         | 거문고    |     |          | 하지(下池)      |         |
| 물레방아 도는 소리     | 물레방아   |     |          | 평상바위        |         |
| 바둑 두는 소리       | 바둑     |     |          | 제월당         |         |
|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 빗소리    | 자연음 | 외부공간     | 소쇄원을 위한 즉흥시 |         |
| 닭 울음소리         | 생물     |     |          |             |         |
| 소쩍새 울음소리       |        |     |          |             |         |
| 종달새 울음소리       |        |     |          |             |         |

10) 소쇄원48영시의 번역은 소쇄원 홈페이지([www.soswaewon.co.kr](http://www.soswaewon.co.kr))를 참고하였다.



## 2. 보길도 부용동(芙蓉洞) 원림

보길도 부용동 원림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1637년부터 조영한 원림이다.

윤선도의 자는 약이(約而)이며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후사가 없던 해남윤씨 종가에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아버지 이외에는 특별한 스승이 없었으나 경사백가(經史百家)를 두루 읽고 의약, 복서(卜筮), 음양, 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독서하여 교양을 쌓았다. 특히 소학을 평생 가까이하며 처신과 공부의 지침으로 삼았다.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 유생으로서 공부하던 30세(광해군 8년, 1616) 때 윤선도는 이이첨, 박승중, 윤희분 등 당시 집권세력의 죄상을 격렬히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처음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경상남도 기장으로 이배되었고 인조반정(1623)이 일어나 이이첨 일파가 처형되기까지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가 풀린 후에 의금부 도사로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가서 지냈다. 42세가 되던 인조 6년(1628)에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후 송시열과 함께 봉림대군·인평대군의 사부로 임명되었고, 사부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에 힘입어 공조좌랑, 형조 정랑, 한성부 서윤 등을 5년간 역임했다. 그후 예조정랑,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으나 48세 되던 해에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성산 현감으로 좌천되었으나 이듬해에 파직, 해남으로 내려갔다. 이 무렵부터 그는 당쟁으로 번잡한 세상을 멀리하고 숨어 살 뜻을 가졌다고 한다.

51세 되던 인조 15년(1637)에 왕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세상을 멀리하고자 제주도로 향하던 도중에 보길도를 발견, 그 빼어난 산수에 매혹되어 그곳에 자리잡고 부용동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듬해에, 난이 평정된 두이에도 그 동안 고초를 겪은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다시 경상북도영덕으로 유배되었지만 1년 만에 풀렸다. 이후 10년 동안, 윤선도는 보길도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해남 현산면의 금쇄동을 오가며 자연에 묻혀 지냈다.<sup>11)</sup>

격자봉 밑에 낙서재를 짓고 연못을 파 뜰을 꾸몄으며, 맞은편 산 중턱에는 동천석실(洞天石室)을 꾸며 놓았다. 또한 마을 입구 계천(溪川)가에 넓은 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 세연정이라 하였으며, 또 나이 67세 때 낙서재 앞의 거북바위 아래에 무민당(無憫堂)을 세우고 못을 팠으며 82세 때에는 낙서재의 동쪽 냇물가에 곡수당(曲水堂)을 짓는 등 25동이나 되는 많은 건물을 지었으나 지금은 일부만이 전해진다.<sup>12)</sup>

11)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 5권』 ( : 돌베개, 1995) 94쪽.

12) 민경현, 『숲과 돌과 물의 문화: 한국고대문화의 뿌리와 변천과정』 (서울: 도서출판

고산은 부용동 곳곳에 팔경(八景)을 선정하고 낙서재에서 글을 읽고 시를 짓는 틈틈이 부용동 산야를 소요했다. 부용팔경은 격자봉 기슭에서부터 청별 앞바다까지 내려오면서 산재해 있다.<sup>13)</sup>

#### 부용팔경(芙蓉八景)

- 제1경 곡수당의 연꽃 - (蓮塘曲水)
- 제2경 은병 석벽에 부는 맑은 바람 - (銀瓶清風)
- 제3경 세연정의 홀로 선 소나무 - (然亭孤亭)
- 제4경 곡수당의 늙은 동백 - (水塘老柏)
- 제5경 석실에 감도는 저녁 연기 - (石室暮煙)
- 제6경 격자봉을 두른 해운 - (紫峰歸雲)
- 제7경 술재에 등우리를 튼 갈가마귀 떼 - (松峴捷鴉)
- 제8경 미산에 뛰노는 푸른 사슴 - (薇山遊鹿)

#### ■ 세연정(洗然亭)

세연정은 계간(溪澗)에 판석 제방을 막아 만든 계원(溪苑)으로, 부용동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물과 바위와 정자와 대와 소나무, 대나무 등을 이용한 변화한 조원 공간이다. 세연정은 기능상 유희의 장소로 쓰였다. 그러나 조선 선비의 청정한 세계관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sup>14)</sup>



[사진 3-3] 부용동 원림의 세연지

예경, 1998), 309쪽 참고.

13) “보길도유적지” [http://yungosan.hosting.paran.com/zbxe/?mid=yj2\\_1](http://yungosan.hosting.paran.com/zbxe/?mid=yj2_1) (검색일: 2012년 3월 26일).

14) 정재훈, 『보길도 부용동 원림』, 제4판, (과주, 열화당, 2004), 24쪽 참고.

고산의 예술적 취향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시와 음악이다. 고산은 음악을 단순히 취미나 기호차원을 넘어 성정양성의 방안으로까지 간주함으로써 생활 속에 깊숙이 수용하였다.<sup>15)</sup> 이는 보길도지의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정자에 당도하면 자제들은 시립(侍立)하고, 기희(妓姬)들이 모시는 가운데 못 중 양에 작은 배를 띄웠다. 그리고 남자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혀 배를 일렁이며 돌게하고, 공이 지은 어부수조(漁父水調)등의 가사로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했다. 당 위에서는 관현악을 연주하게 했으며 여러 명에게 동·서대에서 춤을 추게 하고 혹은 옥소암(玉簫岩)에서 춤을 추게도 했다. 이렇게 너울너울 춤추는 것은 음절에 맞았거니와 그 몸놀림을 못 속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 . . 이러한 일과는 공이 아프거나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거른 적이 없었다 한다. 이는 ‘하루도 음악이 없으면 성정(性情)을 수양하며 세간의 걱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위(尹偉), 「보길도지(甫吉島識)」 中><sup>16)</sup>

이렇듯 세연정은 고산 윤선도의 예술 활동의 주가 되는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정자, 연못의 배, 동서대는 물론 산위의 옥소대를 포함하여 고산은 자신의 예술을 정원 넘어 대자연 속에까지 펼치면서 즐겼던 것이다.<sup>17)</sup>

또 세연지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관련된 특이한 기법으로는 판석보(板石湫)가 있다. 판석보는 우리나라 조원 유적 중 유일한 석조보로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만들었다.<sup>18)</sup>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계원 공간 속의 돌다리가 되어 아름다운 조형을 이루고, 폭우가 와서 개울의 물이 넘칠 때는 폭포가 되었다.

## ■ 낙서재(樂書齋)

낙서재와 곡수당은 격자봉의 북쪽기슭의 낙서재 동쪽으로 흐르는 계천인 낭음계(朗吟溪) 근처에 지어진 건물이다.

『고산유고(孤山遺稿)』 제 1권에 의하면 중국 남쪽지방에 있는 동정호(洞庭湖)에 비유하여 지은 시문에서 물소리를 구슬이 부딪치는 소리에 비유하였으며 동정호를 찾는 손이라면 마땅히 이곳도 찾아야 한다고 읊고 있다.

15) 성종상,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고산 윤선도 원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35쪽.

16) 정재훈, 앞에 든 책, 74쪽.

17) 성종상, 위에 든 책, 136쪽 참고.

18) 같은 책, 37쪽.

옥으로 장식한 듯 아름다운 경요굴  
 옥류의 물 소리 소대에 얹혀 있다  
 동정호를 날아 넘어지나는 과객  
 응당 이곳을 향해 찾아오리  
 <윤선도, 「낭음계(朗吟溪)」><sup>19)</sup>

또 낙서재(樂書齋) 우음(偶吟)이라는 시를 통해 낙서재에서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눈은 청산에 귀는 거문고 소리에 있으니  
 세간의 무슨 일이 마음에 내키랴  
 마음에 가득한 호연지기 알아줄 이 없어  
 미친 노래 한 곡조를 혼자 부르리  
 <윤선도, 「낙서재(樂書齋) 우음(偶吟)」><sup>20)</sup>



[사진 3-4] 낙서재

또 무민당(無悶堂)은 낙서재의 남쪽에 지은 1칸의 사랑채로 '세상을 피해 산다.'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무민당 옆에는 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고 한다. 현재는 연못지와 건물만이 남아 있다. 보길도지의 기록에 윤선도는 늘 무민당에 거처하면서 첫닭이 울면 일어나서 경옥주(瓊玉酒) 한 잔을 마셨다고 한다.

19) 박정옥,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1), 177쪽.

20) 같은 책, 177쪽.

### ■ 곡수당(曲水堂)

곡수당은 고산의 아들 학관(學官)이 공부하고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석가산(石假山), 연못, 화계(花階), 비구(飛溝) 등 다양한 조경양식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곡수당에서는 지형과 산세를 지혜롭게 이용하여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길도지에 곡수당의 못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취적현의 아래 유의교(有意橋)의 위에 못을 파놓았는데 넓이는 대와 비슷하고 깊이는 두어 칸이며 석축(石築) 한 것이 꽤 높았다. 후면에는 두어층의 작은 화계를 만들어 화초와 괴석을 열 지어 심었으며 동남쪽에 방대를 높이 축조하고 대(臺) 위에는 암석을 쌓아 가산(假山)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한길 남짓하다. (중략) 허리부분에는 구멍 하나를 뚫어 그 가운데에 석통(石筒)을 끼워 넣고 뒤에는 은통(隱筒)으로 물을 끌어들여 구멍을 통하여 못 속으로 물이 쏟아지게 하고 이를 비래폭(飛來瀑)이라 불렀다. (중략) 이 연못에 물이 차면 수통을 가산 뒤로 옮겨 작은 언덕(短阜)에 대는데 그 언덕에는 단풍나무, 산다(山茶:동백)나무 소나무들이 서있다.

<윤위(尹偉), 「보길도지(甫吉島識)」中><sup>21)</sup>



[사진 3-5] 복원된 곡수당 비래폭(飛來瀑)



[사진 3-6] 곡수당 뒤편의 계곡

또 부용동 원림에서 지은 시조인 어부사시사에서는 계절별로 새가 등장한다. 봄에는 들셋씩 오락가락하는 기러기와 버들 숲의 뺨꼭새, 여름에는 무심한 갈매

21) 정재훈, 앞에 든 책, 79쪽.

기와 푸른 나무 숲 찌꼬리, 가을에는 석양의 기러기, 겨울에는 자러가는 까마귀와 거위떼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부용동이 새와 벗하는 장소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sup>22)</sup> 이처럼 다양한 새소리를 즐기고, 부용팔경으로 사슴의 울음소리를 쫓은 것은 소리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와 사슴과 벗하는 신선들의 삶을 닮고자 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료를 토대로 부용동 원림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부용동 원림’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 갈가마귀 소리       | 자연음    | 생물  | 솔재  | -   | 부용팔경    |     |
| 사슴 울음소리       |        |     | 미산  | -   |         |     |
| 어린이의 노래       | 인공음    | 노래  | 세연정 | 세연지 | 보길도지    |     |
| 관현악           |        | 음악  |     | 판석보 |         |     |
| 폭포 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     |         |     |
| 피리 등 관악 소리    | 인공음    | 음악  | 낙서재 | -   |         |     |
| 거문고 소리        |        |     |     | -   |         |     |
| 비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        | 물소리 | 곡수당 | 계곡  |         |     |
| 계곡의 물소리       |        |     |     | -   |         |     |
| 흙통을 흐르는 물소리   |        |     |     | 석가산 |         |     |
| 비래폭의 물소리      |        |     |     | -   |         |     |
| 닭 우는 소리       |        |     |     | 자연음 | 생물      | 무민당 |
| 기러기 소리        | 부용동 일대 | -   |     |     |         |     |
| 갈매기 소리        |        | -   |     |     |         |     |
| 빼꾸기 소리        |        | -   |     |     |         |     |
| 찌꼬리 소리        |        | -   |     |     |         |     |
| 까마귀 소리        |        | -   |     |     |         |     |
| 거위 떼의 소리      |        | -   |     |     |         |     |

22) 박정욱, 앞에 든 책, 179쪽 참고.



### 3. 독락당(獨樂堂)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독락당은 옥산서원(玉山書院)<sup>23)</sup>과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사랑채로 중종(中宗)때의 문신이자 유학자로서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정여창(鄭汝昌)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의 한사람으로 밀양부사(密陽府使), 사헌부장령(掌令) 등을 지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 ~ 1553)의 고택에 딸린 별당건물이다. 이언적은 1530년 사간(司諫)으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 숙청당한 뒤, 고향인 경주 자옥산(紫玉山)에서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다. 그는 독락당 주변의 경물에 관어대(觀魚臺), 영귀대(詠歸臺), 탁영대(濯纓臺), 세심대(洗心臺), 정심대(澄心臺)등의 이름을 붙이고, 처세의 명분과 수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듯 회재 선생은 계류 일대의 자연환경을 도가와 유교정신이 가득한 인문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sup>24)</sup>



[사진 3-7] 독락당 계정

전체 가택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바람 길을 만들어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채와 독락당 사이의 연결부, 즉 독락당 앞마당과 계천 사이에 위치한 광장 등은 바람을 집중적으로 통과시키는 문의 역할을 한다. (박정욱, 2001: 76)

독락당의 동쪽에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은 지형을 따라 다채로운 형상의

2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서원으로서 1572년(선조 5)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배향하기 위해 지었다.

24) 허균, 『한국의 누와 정: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 (서울: 다른세상, 2009), 54~55쪽 참고.

로 다양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린다. 또 계곡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와 온갖 새소리를 감상 할 수 있다.



[사진 3-8] 독락당 담장의 창살문



[사진 3-9] 독락당 담장 밖의 계류

특이한 것은 독락당의 담장 벽으로 창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계류 소리를 담장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담장을 둘러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직 계류를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열고자 한 것으로, 그의 시 독락(獨樂)에서 자연과 화합하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離群誰與共吟壇 밋 떠나고 혼자 남아 시를 읊으니  
巖鳥溪魚慣我顔 산새와 물고기가 얼굴을 바라보는 구나  
浴識箇中奇絶處 이렇게 기묘한 곳 어디서 찾을 손가  
子規聲裏月窺山 두견새 울어대고 달님은 몰래 산을 훑쳐보는도다.

<이언적, 「독락(獨樂)」,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sup>25)</sup>

이처럼 이언적은 독락당에서 혼탁한 정치와 당쟁을 떠나, 계곡이 연주하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는, 자연과 화합하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료를 토대로 독락당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독락당’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계류의 물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독락당 | 창살문 | 현장 조사            |
| 새 울음소리  |        | 생물  |     | -   | 이언적의 시<br>독락(獨樂) |
| 두견새 소리  |        |     | 계곡  | 바위  |                  |

25) 역사경관연구회, 『한국정원답사수첩』, (파주: 도서출판동녘, 2008), 321쪽.



#### 4. 명옥헌(鳴玉軒)

명옥헌 원림은 조선조 중엽에 명곡(明谷) 오희도가 산천경계를 벗하며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 오이정이 선친의 뒤를 이어 이곳에 은둔하면서 지은 정원이다. 오이정은 자연경관이 좋은 도장곡에 정자를 짓고, 정자의 전면에 연못을 파서 주변에 배롱나무와 적송 등을 심어 가꾸었다.



[사진 3-10] 명옥헌 전경



[사진 3-11] 명옥헌의 수로

이곳은 시냇물이 흘러 뿔 연못을 채우고 넘치면 그 물이 다시 아래의 연못으로 흘러가는데,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 1592 ~ 1650)이 쓴 「명옥헌기(鳴玉軒記)」에서 “한천(寒泉)에 가득찬 물은 울타리를 따라서 흘러내리는데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더러움이 사라지고 청명한 기운이 스며들어 온다” 하여 명옥헌(鳴玉軒)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오희도는 1602년(선조 35)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4년(광해군 6)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가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것은 광해군 시대의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명옥헌기에 따르면 오희도의 손인 오대경이 명옥헌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정자 우측 계류를 따라 오르면 작은 바위위에 우암 송시열이 쓴 명옥헌 계축(鳴玉軒 癸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명옥헌 원림은 원림의 자연스런 기단과 지형적인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산위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sup>26)</sup>

26) “배롱나무 정원- 명옥헌 원림”,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http://www.heritagechannel.tv> (검색일: 2012년 5월 15일).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명옥현의 소리경관은 고요한 가운데 졸졸 흘러 내리는 물소리와 바람에 사각대는 배롱나무와 느티나무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산새들의 지저귀 소리가 현재에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명옥현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명옥현’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계류의 물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명옥현 | 수로 | 명옥현기      |
| 나뭇잎 소리  |        | 바람소리 |     | -  | 현존 유구(遺構) |
| 산새 울음소리 |        | 생물   |     | -  |           |

## 5. 면양정(倅仰亭)

면양정은 면양정(倅仰亭) 송순(宋純, 1493 ~ 1583)이 41세 되던 1533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 마을인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에 위치한 제월봉 산자락에 지은 정자로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현재의 정자는 1654년 후손들에 의해 중수된 것이다. 면양정의 규모는 전면3칸, 측면 2칸으로 건물의 중심부에 1칸 규모의 방이 있다.



[사진 3-12] 면양정 전경

기대승은 면양정이 중수된 후의 기록을 남겼는데 완성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면양정은 세 칸으로 되어 있다. 긴 대들보를 걸쳐놓았는데, 대들보의 길이가 처마의 두 배다. (중략) 담을 둘러치고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었으며, 책으로 안을 채웠다. 산허리를 따라 좌우의 골짜기로 뻗어 내리면서 긴 소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어 울창함을 더한다. 정자가 서 있는 땅이 시원한데다 대나무를 다시 사방에 둘러쳐 두어 사람들의 자취와 접하지 않게 하였다.

〈기대승, 「면양정기(倅仰亭記)」, 『고봉집(高峯集)』 ><sup>27)</sup>

27)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귀거래와 안분』 (서울: 휴머니스트, 2006), 49-50쪽.

송순은 1519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1533년(중종 28)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고향으로 돌아와 면양정을 지었다. 김안로 일파의 실각 후 다시 조정에 나아가 대사헌 이조참판 등 요직을 지냈으나 1550년 권신인 이기 등에 의하여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1551년 석방된 후 1552년 면양정을 증축하였다. 송순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면양정에 머물면서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며 시와 가사를 지으며 유유자적하는 생을 보냈다.

면양이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 다는 뜻으로, 정자에 걸려있는 면양정 삼언가(倅仰亭 三言歌) 현판에는 면양정을 지은 뜻이 잘 나타나 있다.

倅有地 仰有天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亭其中 興浩然 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취가 호연하다.  
招風月 揖山川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끌어 들여  
扶藜杖 送百年 청려장 지팡이 짚고 백년을 보내네.  
<송순, 「면양정 삼언가(倅仰亭 三言歌)」><sup>28)</sup>

송순은 면양정가를 통하여 면양정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면양정가의 현대어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무등산(無等山)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치고 나와 제월봉(霽月峯)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벌판(無邊大野)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한 곳에 움츠려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하고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亭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靑鶴)이 천리(千里)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끝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쌍용(雙龍)이 뒤흔는 듯, 긴 비단을 펴놓은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

28) 면양정 삼언가의 현대어 번역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damyang.go.kr> 를 참고 하였다.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沙汀)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느라고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 흩어졌다가  
갈대꽃(蘆花)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느냐.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屏風)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 뽐내며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여러 산봉우리 가운데, 추월산(秋月山)이 머리를 이루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漁燈山(어등산)  
涌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허공(虛空)에 떨어져 있으니  
멀리 가까이에 있는(遠近) 푸른 절벽(蒼崖)에 머문 것도 많기도 하구나.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煙霞),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山嵐)로구나.  
수많은 바위(千巖)와 골짜기(萬壑)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날아오르다가, 내려 앉다가 공중으로 떠났다가, 넓은 들로 건너갔다가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석양(斜陽)과 섞이어 가랑비(細雨)조차 뿌리느냐.  
남여(籃輿)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綠楊)에서 우는 피꼬리(黃鶯)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와 억새풀이 우거져 녹음이 짙어진 때에  
백척(百尺) 난간(欄干)에서 긴 줄을 내어 펴니  
수면(水面)의 서늘한 바람(涼風)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된서리 견힌 후에 산 빛이 수놓은 비단(錦繡)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黃雲)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어부가 부는 피리(漁笛)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가?  
초목(草木)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하늘과 땅(乾坤)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柴扉)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니 저녁이라고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 싫을소냐.  
 오늘도 (자연을 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有餘)하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煩勞) 마음이지만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도 없는 데 길이나마 (사람들에게)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하나의 청려장(靑藜杖: 명아주 대로 만든 지팡이)이 다 무뎌어져 가는구나.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을 소냐  
 (노래를) 부르며, (가야금, 거문고 등의 악기를) 타며 (해금 등의 악기를) 켜  
 게 하며, (방울 등을)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 있겠는가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구부리기도 하고 짓히기도 하며  
 (시름)을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으며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 복희씨)도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더니 지금이야말로 그때로다  
 신선이 어떤 것인가, 이 몸이야말로 신선이로다

아름다운 자연(江山風月)을 거느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위에 이태백(李太白)이 살아온들  
 넓고 끝없는(浩蕩) 정다운 회포(情懷)야 이보다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亦君恩)시다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면앙정가를 통하여 면앙정의 아름다운 경관과 사계의 변화, 그리고 강호에서의 풍류생활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노니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노래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 ‘역군은이샷다’와 같은 표현 또한 당시 사대부들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송순 스스로 유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草廬) 한간 지어내니 반간은 청풍(淸風)이요 반간은 명월(明月)이라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는 그의 자연가(自然歌)에서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자연풍의 정원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면앙정 뜰에서 이러한 그의 자연관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당대의 시인 묵객들이 제영시를 읊었으며 그중에서도 김인후(金麟厚), 임억령(林億齡), 박순(朴淳), 고경명(高敬命), 양대박(梁大撲), 이홍남(李洪男) 등이 남긴 「면앙정삼십영(俛仰亭三十詠)」이 전하는데, 이는 송순과 여러 시인묵객들이 면앙정에서 즐긴 소리를 파악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면앙정삼십영 중에서 소리와 관련된 경관은 다음과 같다.

어등산의 저녁비 대추의 어사용 / 목촌산 어부의 피리소리  
 석불사의 성긴 종소리 / 칠천의 돌아가는 기러기 / 산성의 이른 뿔피리 소리  
 / 죽곡의 맑은 바람 / 뒷 숲에 깃든 새 / 모랫벌에서 조는 해오라기

사료를 토대로 면앙정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면앙정’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저녁 빗소리   | 자연음    | 빗소리  | 면앙정<br>외부<br>공간 | 어등산 | 면앙정삼십영<br>/면앙정가 |
| 바람소리     |        | 바람소리 |                 | 죽곡  |                 |
| 기러기 울음소리 |        | 생물   |                 | 칠천  |                 |
| 새 울음소리   |        |      |                 | 뒷숲  |                 |
| 해오라기 소리  |        |      |                 | 모랫벌 |                 |
| 어사용소리    | 인공음    | 악기   | 대추              |     |                 |
| 어부의 피리소리 |        |      | 목촌산             |     |                 |
| 뿔피리 소리   |        |      | 산성              |     |                 |
| 종소리      |        | 종소리  | 석불사             |     |                 |
| 노래소리     |        | 노래   | 면앙정 실내          |     | 면앙정가            |
| 가야금, 해금  |        | 악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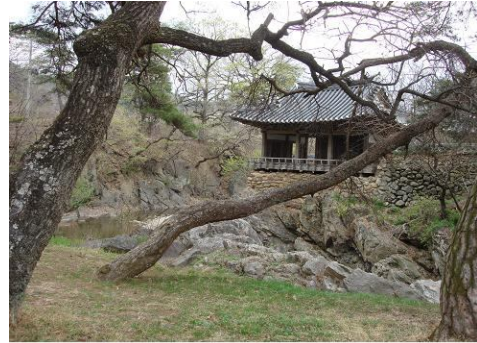
## 6. 초간정(草澗亭) 원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에 위치한 초간정은 1852년(선조 15)에 학자이자 문신인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 ~ 1591)가 오랜 관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정자다. 권문해는 예천 권씨이며 일찍이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명종 15년(156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좌부승지, 관찰사 등을 지냈다. 초간정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으로 초간정사(草澗精舍)라고 하였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폐허가 되어 터만 남았다가 1612년(광해군 4)에 후손들이 권문해를 추모하기 위하여 재건하였고, 이후 병자호란으로 불타서 또다시 중건하였다. 이후 점차 도괴(倒壞)되어 1870년에 권문해의 유고를 보관하기 위하여 와가(瓦家) 한 채만을 세우고 초간정이라 하였다.<sup>29)</sup>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초간정” 항목. <http://encykorea.aks.ac.kr>에서 ‘초간정’으로 검색, (검색일: 2012년 5월 15일).



[사진 3-13] 초간정의 계류  
\*출처: 문화재청



[사진 3-14] 초간정 소나무 숲  
\*출처: 문화재청

“이제 수석(水石)은 옛날처럼 변함이 없고 정사(精舍)의 옛 경관도 이미 복구가 되었으니, 무릇 당시에 사계절 어조(魚鳥)를 바라보실 때의 아취(雅趣)와, 명승(名勝)을 오고 가실 때의 즐거움과, 조용히 서사(書史)에 침잠(沈潛)하실 때의 즐거움에 대해서 모두 개연히 떠올려 사모(思慕) 할 수 있거니와, 유독 공께서 정자 이름을 지으신 뜻에 대해서는 끝내 은미한 취지를 들어볼 수 없으니, 이는 진실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손경, 「초간정사중수기(草澗精舍重修記)」><sup>30)</sup>

초간정은 풍류나 안식을 위해 지은 정자가 아니다. 초간(草澗)이라는 뜻은 당나라 시인 위응물(韋應物)이 읊은 시에 ‘홀로 물가에 자라는 우거진 풀 사랑하노니’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초간정의 정문 방향에는 초간정사(草澗精舍)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 현판은 조용히 독서와 집필에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정사란 학문에 정진하는 집을 뜻하는 말로서, 초간정과 별채의 사이에는 담으로 가로 막아 엄격하게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문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초간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맑은 계곡과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위치한 암석 위에 서있는 초간정은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맑은 물소리,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속삭임이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절경을 이룬다.

초간정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30) 예천군예천문화원 공편, 『예천 누정록』(서울: 예일출판사, 2010), 60쪽.

31) “묵향의 공간- 초간정 원림”,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http://www.heritagechannel.tv> (검색일: 2012년 5월 15일).

[표 3-6] ‘초간정’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흐르는 물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초간정<br>외부<br>공간 | 계류   | 초간정사중수기<br>/ 현존유구(遺構) |
| 바위에 부서지는<br>물소리  |        |      |                 | 소나무숲 |                       |
| 소나무 잎<br>흔들리는 소리 |        | 바람소리 |                 |      |                       |
| 지저귀는 새소리         |        | 생물   |                 |      |                       |

## 7. 암서재(岩棲齋)

암서재는 화양구곡(華陽九曲) 제4곡 금사담(金沙潭) 물가의 큰 반석가에 있는 서재로 문신 학자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정치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학문과 강학을 펼치던 곳이다. 우암의 제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암서재기(岩棲齋記)에 ‘우암선생어병오년간축정사어계남(尤庵先生於丙午年間築精舍於溪南)’이라고 써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666년(현종 7) 8월 암서재를 짓고 이곳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양구곡은 화양동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명승으로 계곡의 주변 바위 사이에는 노송이 울창하고 밑으로는 맑은 물이 감돌며, 층암(層巖)절벽이 즐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암서재에 관한 기록으로는 송시열의 송자대전과 권상하의 한수재집에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서재에서 지내던 송시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선생이 일찍이 이르기를 ‘회덕(懷德)으로부터 이 골짜기를 들어오면 심신이 상쾌하여 마치仙境(仙境)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회덕을 돌아보면 회덕은 참으로 진세(塵世)이더니, 정사로부터 다시 북재(北齋)로 옮긴 뒤에는 북재는 더 좋은 선경이라서 정사가 도리어 진세처럼 보인다. 이곳은 심분 맑고 신기하다 이를 만하니, 어찌 다시 무릉도원(武陵桃源) 길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 대(臺) 아래는 깊은 못이 있어 충분히 뗏목도 배도 띄울 만하였으므로, 가끔 일엽편주(一葉片舟: 한 조각의 작은 배)를 띄우고 물결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이 밑바닥까지 환히 보이도록 맑아서 물고기를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밤에 현창(軒窓)을 기대고 있노라면 마치 낮과 같이 환한 달빛이 영롱하게 서로 비추어 수정세계(水晶世界)를 방불케 하였다. 선생이 여기에서 지팡이를



끌고 시문을 읊으면 소리가 금석(金石) 같았고, 언뜻 세속 밖에 우뚝 서 있는 듯한 생각이 있었으니, 무이정사(武夷精舍) 덧집의 맑은 홍취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우세했을까.”

<권상하(權尙夏), 「암서재중수기(巖棲齋重修記)」, 『한수재집(寒水齋集)』><sup>32)</sup>



[사진 3-15] 암서재 전경

우암 송시열은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 ~ 1584)의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說)을 계승하여 이(理)와 기(氣)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파악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자연 앞에서는 동물이나 식물도 모두 동일한 존재로 여겼으며, 자연에서 인간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암의 별서는 산과 천을 끼고 있으며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건물과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풍수지리의 배산임수를 고려하여 속세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는 삶을 지향하여 학문과 심신을 다스리며 지내고자 하였다. 또 자연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자연을 관망하여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하광철, 2009: 96) 우암은 암서재 시를 통해 비가 온 후의 계곡의 큰 물소리를 우레와 용의 울음소리에 비유하였다. 또 비가 그친 후에 잔잔해지면서 평온해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골짜기에 비도 많아 시냇물 흩어진 돌 사이 달린다  
우레 같아 도깨비 도망치겠고 용이 소리치듯 바위 봉우리 울리네  
비록 용문산 어구를 뚫을지언정 지주산을 넘어뜨리긴 어려우리

32)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이윽고 거센 물결 멈추니 옛과 같이 잔잔한 소리 들려오네  
 <송시열, 「화양동에서 비온 뒤에」, 『송자대전(宋子大全)』 ><sup>33)</sup>

위의 사료들을 통해 우암 선생은 경관 수려한 화양동 냇가의 암서재에서 굽이쳐 흐르는 물을 즐기고, 소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에 맞추어 주자서(朱子書)를 읽고 시를 읊으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헤아리고 본받으려 하는 노력과 항상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를 토대로 암서재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암서재’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사료 / 근거 |
|---------|--------|-----|-----|---------|
| 흐르는 물소리 | 자연음    | 생물  | 냇가  | 우담십경    |
| 시 읊는 소리 |        |     | 모래밭 |         |
| 저녁비 소리  |        | 빗소리 | 귀암  |         |
| 경쇠소리    | 인공음    | 악기  | 원암  |         |

## 8. 남간정사(南澗精舍)

남간정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별서로서,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 중의 한사람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 ~ 1689)이 지었다.

우암은 소제동에 살 때 서재를 짓고 능인암이라 하여 학문을 연마하였다. 숙종 9년(1683) 능인암 아래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많은 제자를 기르고 그의 학문을 대성한 유서 깊은 곳이다. 계곡의 샘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청 밑을 통하여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조경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양식이다.<sup>34)</sup> 기국정사실기에서 남간정사의 경관을 묘사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우암선생의 집은 회덕 남쪽의 선제동에 있는데, 집은 전면으로 큰 못에 임하여 있다. 이 못에는 봄물이 들이차 거울 같은 지수(止水)가 끝이 없으며, 여름에는 버드나무가 녹음을 이루고 가을에는 연화가 향기를 진동시키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기국정사실기(杞菊亭事實記) 中><sup>35)</sup>

33) 하광철, 조선 중기 사림계층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4쪽.

34)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남간정사” 항목 참고. <http://www.cha.go.kr>에서 ‘남간정사’로 검색, (검색일: 2012년 5월 13일).



[사진 3-16] 남간정사 유수부



[사진 3-17] 남간정사 솟을삼문 옆의 계류

특징적인 양식으로 계곡의 샘에서 흘러내린 물이 건물의 대청 밑을 통하여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한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아래로 유수를 관통시켜 물의 시각적인 요소와 더불어 청각적 효과까지 상승시키고 있다.

마루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또 물소리의 울림, 즉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음파의 진동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적 조경·건축양식으로 우암 송시열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을 알 수 있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팔분체(八分體: 서체의 하나)를 써준 당액(堂額)을 새로 벽에다 걸어 두고 한가로이 맑은 산골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고명(高明) 상대를 높여서 이르는 말)과 더불어 주서(朱書: 주자의 글)를 함께 읽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서글픈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었네. 차제에 뜻밖에 멀리에서 사람이 와서 차의(筭疑) 2책과 근사(近事) 1계(啓), 편지 1통을 전하기에 바빠 떼어 보니, 나도 모르게 심신(心神)이 시원스러워져 지병(持病)이 몽땅 없어지는 듯 하였네.”

<송시열, 「이동보에게 답함(答李同甫) 정묘년(1687) 5월 3일」中, 『송자대전(宋子大全)』><sup>35)</sup>

35) “별서정원 내 수경관- 고인 물이 만들어내는 투영성의 미”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3&id=965> (검색일: 2012년 5월 21일).

36)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위 글은 송시열이 이동보(李同甫)에게 답한 편지로 우암 선생이 남간정사에서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독서에 열중하던 노년의 삶을 잘 알 수 있다.

남간정사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남간정사’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흐르는 물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남간정사 | 계류 | 송자대전 / 현존유구(遺構) |
| 대청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 |        |     |      | 대청 |                 |

## 9. 서경덕(徐敬德)의 화담별서(花潭別墅)

화담별서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 ~ 1546)이 화담(현재의 개성)의 산골에 지은 한간 초가로 벼슬도 마다한 채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곳이다.

서경덕은 1519년 조광조(趙光祖)에 의해 채택된 현량과(賢良科)에 수석으로 추천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개성 화담(花潭)에 서재를 세우고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1531년 어머니의 요청으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 연구에 힘썼다. 1544년 김안국(金安國) 등이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계속 화담에 머물러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였다.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중종과 인종이 죽자 “임금의 상(喪)에 어찌 복(服)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자취삼월(齊衰三月)의 상복을 입었다.

황진이(黃眞伊)의 유혹을 물리친 일화가 전해지며, 박연폭포(朴淵瀑布) ·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린다. 화담 서경덕이 남긴 산거, 화담별서 등의 시와 이정구의 유화담기, 심의의 대관재집을 통해 화담별서의 경관을 상세히 알 수 있으며, 허균의 「성웅식소록(惺翁識小錄)」을 통해 황진이와 거문고와 술을 즐기던 화담 선생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화담은 서경덕 선생의 옛집이다. 흥원례와 많은 선비들이 의논하여 그 땅에 서원을 지어 제향하기로 하였다. 정자와 대, 섬, 화단이 모두 선생이 꾸민 것이라 한다. 산에는 철쭉꽃이 많았다. 붉은 빛이 물에 비치는데 이로써 화담이라 이름한 것이다. 두 산이 담장처럼 서 있는데 물이 원통사에서 발원하여 여러 골짜기로 나누어 흐르다가 합쳐져 큰 하천을 이루어 화담에 떨어진다. 그 소리가 맑다.

화담위에는 바위가 늘어서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는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다. 화담의 서쪽은 그윽한 곳인데 땅이 조용하고 맑다. 흙을 쌓아 대를 만들어 설 곳으로 삼았다. 앞쪽 좌우의 석벽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빼곡히 서 있고 가는 샘 물이 떨어진다. 대 아래에서 물이 다시 떠처럼 빙 두르고 있다. 겹겹의 모래톱이 되고 맑은 물가도 되고 빙 도는 굽이도 된다. 어느 하나 기이하게 팔리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정구, 「유화담기(遊花潭記)」, 『월사집(月沙集)』><sup>37)</sup>

雲巖我下居 구름 낀 바위 옆에 사는 것은  
 端爲性傭疎 그저 성품이 게으르기 때문.  
 林坐門幽鳥 숲에 앉아 산새로 벗을 삼고  
 溪行伴戲漁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짝한다네.  
 閒揮花塢帚 한가하면 화단에 비질을 하고  
 時荷藥畦鋤 때때로 호미 들고 약초밭은 맨다네.  
 自外渾無事 그밖에 도무지 일이 없으니  
 茶餘閱古書 차 마시고 옛책을 읽을 뿐이라.

花潭一草廬 화담의 한 칸 초당  
 瀟灑類僊居 조출하여 신선집 같다네.  
 山簇開軒面 산빛은 마루에서 마주 보이고  
 泉絃咽枕虛 샘물은 빈 베갯가에 울리네.  
 洞幽風淡蕩 골짜기 그윽하여 바람이 요란한데  
 境僻樹扶疎 땅이 외져 나무가 무성하다네.  
 中有逍遙子 그 안에 소요하는 이 있어  
 清朝好讀書 신새벽에 책읽기를 좋아한다네.  
 <서경덕, 「산에 살면서(山居)」, 『화담집(花潭集)』><sup>38)</sup>

紅樹映山屏 붉은 단풍나무 병풍산을 비추는데  
 碧溪瀉潭鏡 파란 개울물은 거울 같은 못으로 흘러드네.  
 行吟玉界中 옥처럼 고운 땅(옥계)을 가면서 읊조리니  
 陡覺心淸淨 그저 마음이 맑아짐을 알겠네  
 <서경덕, 「대흥동(大興洞)」, 『화담집(花潭集)』><sup>39)</sup>

37)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귀거래와 안분』 (서울: 휴머니스트, 2006), 132쪽.

38) 같은 책, 134쪽.

39) 같은 책, 138쪽.

새벽녘 술밭길을 걷노라면 물기가 촉촉한데  
 사립문에는 산새 울음소리만 들리네.  
 이슬이 이끼 낀 바위에 아롱지니 거북이 햇살을 쬐는 듯  
 나뭇잎이 구름 속 숲속에 질푸르니 말이 발굽을 모은 듯.  
 거둬 장황거가 되니 비단에서 향기가 풍기는데  
 백번 소동파가 되어 개울가에서 서성이겠지  
 눈으로 볼뿐 말을 아끼라 한 것 그대 기억하소  
 종일 함께 취하는 일도 사양하지 마시게나  
 <심의, 「화담으로 서가구를 방문하다」, 『대관재집(大觀齋集)』 >40)

허균(許筠, 1569~1618)이 1611년 지은 성옹식소록(惺翁識小錄)에 전하는 이야기로 화담과 황진이의 일화가 있는데, 황진이가 화담을 일컬어 ‘술과 거문고를 들고 화담별서(別墅)를 찾아가서 마음껏 놀다 오곤 했는데, 지족선사는 30년 면벽수도(面壁修道)를 했어도 나에게 무너졌지만, 오직 화담선생만은 여러 해를 가까이 지내 왔어도 끝내 문란한데 이르지 않았다. 이분이야말로 참다운 성인이다’ 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또, 화담 서경덕은 줄 없는 거문고에 새긴 글(無絃琴銘)이라는 시를 지어 잠언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시를 통해 화담 선생은 소리를 들음에 있어 귀로만 즐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기고자 했던 그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금(琴)에 줄이 없는 것은  
 체(體)는 두고 용(用)을 없앤 것이다.  
 정말로 용을 뺀 것이 아니라  
 정(靜)에 동(動)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소리를 통하여 듣는 것은  
 그것을 소리 없음에서 듣는 것만 못하며,

그것을 형체를 통하여 즐기는 것은  
 형체 없음을 통하여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형체가 없음에서 그것을 즐기므로  
 그 오묘함을 체득하게 되며,  
 소리 없음에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미묘함을 체득하게 된다.  
 밖으로 유(有)에서 얻고  
 안으로 무(無)에서 얻는다.  
 그 가운데에서 흥취를 얻는 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줄(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는가?

---

40) 이종묵, 앞에 든 책, 135쪽.

그 줄을 쓰지 않고  
 줄의 줄소리 밖의 가락을 쓴다.  
 나는 그 본연을 체득하고  
 소리로써 그것을 즐긴다.  
 그 소리를 즐긴다지만,  
 소리는 귀로써 듣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지표이거늘  
 내 어찌 금(琴)을 귀로 들으리  
 <서경덕, 「무현금명(無絃琴銘)」, 『화담집(花潭集)』 ><sup>41)</sup>

사료를 토대로 화담별서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 ‘화담별서’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샘물 흐르는 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화담별서        | 내부 | 화담집     |
| 거문고 소리             | 인공음    | 악기   |             | 공간 | 성웅식소록   |
| 바람에 흔들리는<br>소나무 소리 | 자연음    | 바람소리 | 화담의<br>외부공간 | 옥계 | 화담집     |
| 시냇물 소리             |        | 물소리  |             |    |         |
| 산새 울음소리            |        | 생물   |             | -  | 대관재집    |

41) 서경덕, 『화담집(花潭集)』, 김학주, 임조욱 역(서울: 세계사, 1992), 255쪽.

## 10. 태고정(太古亭)

태고정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선조 41년(1608)에 인왕산 청풍계(淸風溪)에 지은 별서로 김상용은 정원에 시원한 대나무를 가꾸어 그 그늘에서 바람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는 여유를 누렸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김상용과 절친하게 지내던 이항복(李恒福), 유근(柳根), 심희수(沈喜壽) 등이 시회를 벌였다. 김상용의 선원유고(仙源遺稿)와 김상용의 손자인 김양근(金養根)이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에서 경관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시내가 우레처럼 돌아내리고 세 연못이 거울처럼 열려있다. (중략) 창옥봉 서쪽 수십 보에는 작은 정자가 날아갈 듯이 시내 위에 올라 앉아 있다. 띠로 지붕을 이었는데 한간은 넘을 듯하고 두간은 못되나 수십 인이 앉을 수 있으니 ‘태고정’이다. (중략) 늙은 삼나무 몇 그루와 푸른 소나무 천여그루가 있어 앞뒤로 뻗뻗이 에워싸고 정자를 따라 왼쪽에 세 못이 있는데 모두 돌을 다듬어서 네모나게 쌓아 놓았다. 정자 북쪽 구멍으로 시냇물을 끌어들여 바위 바닥으로 흘러들게 하니 (중략) 함벽지 왼쪽에 큰 돌이 있는데 평평하고 반듯한 표면은 두께가 서로 비슷하고 사방 넓이는 흡사 자리 몇 잎을 펴 놓은듯하여 가야금을 앉아서 탈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탄금석(彈琴石)’이라 하였다.”

<김양근(金養根),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sup>42)</sup>

“뻗뻗한 숲에 짙은 그늘 고요한데 정자는 텅 비어 작은 대자리가 서늘하다. 샘물은 계단 아래로 옥소리를 울리고 연꽃은 배갯머리에 향기를 보내주네 손은 게을리 시집을 던져버렸는데 정신은 흥몽하여 낮잠에 빠져드네 산중의 한가한 맛을 이제야 나 홀로 즐기게 되었네.”

<김상용, 「태고정에서(太古亭卽事)」, 『선원유고(仙源遺稿)』><sup>43)</sup>

또 겸재 정선이 그린 청풍계도를 통해 과거의 태고정이 위치했던 청풍계의 경관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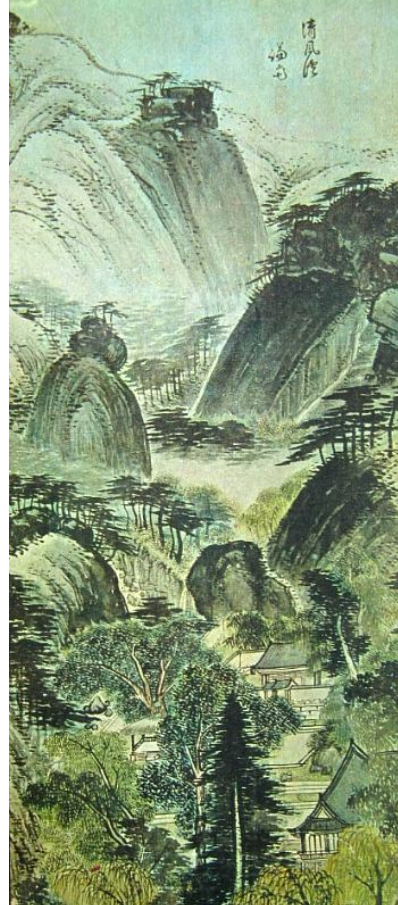
42)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2006), 77-78쪽.

43) 같은 책, 79쪽.





[그림 3-2] 정선, <청풍계도(淸風溪圖)> 1739년, 견본담채, 58.8x133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3-3] 정선, <청풍계도(淸風溪圖)>, 견본담채, 58.8x96.5cm, 고려대학교미술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태고정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0]과 같다.

[표 3-10] ‘태고정’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 | 자연음    | 바람소리 | 태고정 | 정원 내부 | 선원유고    |
| 시냇물 소리          |        | 물소리  |     |       | 풍계집승기   |
| 가야금 소리          | 인공음    | 악기   |     |       |         |

## 11. 신흘의 상촌(象村) 별서

현헌(玄軒) 신흘(申欽, 1566 ~ 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85년(선조 18) 진사시와 생원시에 차례로 합격하고 1586년 승사랑(承仕郎)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일로 파직된 적도 있었지만 평탄한 벼슬길을 걸어,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sup>44)</sup>가 일어나자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敎七臣)인 까닭에 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다행히 1613년 4월에 방면되었으나 조정(朝廷)에서 신흘에 대한 가죄(加罪: 죄를 더함) 여부의 논의가 일어. 몇 달 동안 하명(下命)을 기다리다 8월에 선영(先塋)이 있는 김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신흘이 지내던 별서가 하루암(何陋菴)과 감지정(坎止亭)이다. 김포 가현산 자락에 초가 몇 칸을 얻고는 하루암이라 편액하였고, 또 아들 신익성(申翊聖, 1588 ~ 1644)이 부친을 위하여 산기슭에 못을 파고 나무를 심어 감지정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전략) 사립문은 흐르는 물을 굽어 누르고 서재는 산벼랑을 마주 대했는데 서쪽으로는 천 겹의 수은 물결 방장(方丈)의 바다로 통하고 동쪽으로는 몇 송이 연꽃 화악(華岳)의 봉우리가 임하였다. 대부(大夫)에 봉해진 소나무는 없으나 갈피(葛陂) 땅에 용으로 변한 대나무가 있어 바위언덕은 그 빛을 더하고 골짜기 새들은 노래를 부른다. 개울의 물풀과 시내의 고기는 사철의 먹을거리를 이바지하고 거문고통과 바둑판은 온종일의 소일거리가 된다. 경관은 정신과 어울리고 땅은 사람으로 인해 명승이 된다. 마음에 들면 그뿐이니, 어찌 반드시 맹성요(孟城坳)를 건너고 화자강(華子岡)을 오를 것이 있겠으며, 만나는 곳에 따라 만족을 하니, 그 저 홍애(洪厓)의 어깨를 치고 부구(浮丘)의 소매를 당기고 싶다.” (후략)

<신흘, 『감지정상량문(坎止亭上梁文)』, 『상촌집(象村集)』><sup>45)</sup>

신흘이 이집을 감지정(坎止亭)이라 한 까닭은 ‘그칠 데 그치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요, 이를 즐기는 것이 군자’라는 뜻으로 신흘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이를 붙인 것이다. 신흘은 상촌 별서에서 첩거하면서 좌우에 책을 쌓아두고 살았고 전해진다. 그는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생사의 갈림에서도 벗어나 초연하게 살고자 하였으며, 대낮에 베개에 기대어 즐기고, 깨어나면 술바람 소리를 들었다.

44) 1613년(광해군 5)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로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45)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小亭高絕壓烟汀 드높은 작은 정자 안개 물가 임했는데 /  
 六月寒風撼石扃 차가운 바람 한여름 돌문을 스쳐가네 /  
 園栗過拳秋計足 주먹 만한 터밭 밤은 가을 생계 충분하고 /  
 海魚盈尺客盤腥 한 자 되는 바다고기 손님 밥상 구수하네 /  
 誰言相法無侯骨 내 관상에 공후 골상 없다고 뉘 말하리 /  
 自喜生年有壽星 사주에 수성이 있어 스스로 기쁘다네 /  
 欹枕倦眠消白日 베개 기대어 졸면서 밝은 낮을 보내는데 /  
 萬山松籟聽泠泠 맑디맑은 일만 산의 솔바람소리 들리네 /  
 <신흥, 「새집이 완성되어(新構居成)」, 『상촌집(象村集)』><sup>46)</sup>

一逕穿蒙密 길 하나 풀숲을 뚫고 나 있는데  
 懸厓有少茨 높은 벼랑에 작은 초가 있다네.  
 藝蘭仍作苗 난초를 심어 밭을 일구려 하고  
 貯月欲成池 달을 담으려 못을 만들려 하였지.  
 竹塢還聽瑟 대밭에 부는 바람 비파소리 같은데  
 香燈却對棋 등불아래에서 문득 바둑판을 대한다.  
 山家清事足 산속의 집은 맑은 흥치 많아서  
 煮茶又題詩 차를 끓이고 다시 시를 짓노라.  
 <신흥, 「못가에서(池上)」, 『상촌집(象村集)』><sup>47)</sup>

野藤拖地少人行 들판 덩굴 땅에 뻗어 다니는 사람 적은데  
 露草離離暗水鳴 이슬 젖은 풀숲에 도랑물 소리 들리네  
 數點疎螢流客幌 두세 점의 반딧불 객창 휘장 떠다니고  
 一聲寒雁過江城 한 소리 찬 하늘 기러기 가람성을 지나가네  
 孤燈依壁花成暈 벽에 기댄 외론 등불 둥근 불꽃 이루고  
 小雨經林葉盡驚 숲 지나는 가랑비에 잎사귀 모두 놀라네  
 最是殊方腸斷處 무엇보다 타향에서 애가 끊어지는 건  
 舊遊零落隔平生 한평생에 서로 막힌 옛벗들의 사라져 감  
 <신흥, 「밤중에 앉아(夜坐)」, 『상촌집(象村集)』><sup>48)</sup>

喬木千章合 일천 그루 거목이 우거졌는데  
 山家竝海村 산중 집 해변 마을이웃하였네.  
 牽蘿補茅屋 등나무 끌어다가 띠집 기우고  
 藝菊傍苔垣 국화 심어 담장을 장식하였다.  
 翰墨慵來廢 문묵은 게을러서 폐기했으나

46)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47)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서울: 휴머니스트, 2006), 171쪽.

48)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琴棋病後存 거문고 바둑판은 병중에 여전.  
 不須爲却掃 문 닫아 손 사절할 필요 없으니  
 庭宇自無喧 뜰과 집안 저절로 시끄럼 없네.  
 <신흙, 「익량의 시에 차운하다(次翊亮韻) 中 제3수」, 『상촌집(象村集)』 ><sup>49)</sup>

이렇듯 신흙은 저서인 상촌집을 통하여 별서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고 시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또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글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야언(野言)』이라 하였는데, 마음에 드는 청언(淸言)을 모으고 자신의 것을 보태는 것은 허균이 한정록을 지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유행종의 하나였다.<sup>50)</sup> 이를 통해 신흙 선생이 즐긴 소리와 그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뜻에 따라 꽃과 대를 기르고  
 성격에 맞게 새와 물고기 기르는 것  
 이것이 산림(山林)의 경제(經濟)라네.”

“뽕밭과 보리밭 여기저기 하나같이 빼어난데  
 뽕은 봄별에 비둘기는 빗속에 우는 것,  
 이것이 시골살이의 진정한 경물이라네.”

“구름이 희고 산이 푸르다. 강물은 흐르고 바위가 서 있다.  
 꽃이 인사하고 새가 노래를 하니 메아리가 나무꾼의 노래에 답한다.  
 온땅이 모두 적막하니 사람의 마음이 절로 한가하다.”  
 <신흙, 『야언(野言)』 ><sup>51)</sup>

사료를 토대로 상촌별서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1]과 같다.

[표 3-11] ‘신흙의 상촌별서’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소나무 소리 | 자연음    | 바람소리 | 상촌 | 숲  | 상촌집     |
| 시냇물 소리 |        | 물소리  |    | 계곡 | 풍계집승기   |
| 거문고 소리 | 인공음    | 악기   |    | 실내 |         |

49) 한국고전종합번역원의 번역

50)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2006), 175-76쪽.

51) 같은 책, 175-76쪽.

## 12. 구루정(偈樓亭)

조선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잠곡(潛谷) 김육(金堧, 1580 ~ 1658)은 만인지상 일인 지하의 자리에 올랐고 세자빈의 조부이기도 하였다. 조광조(趙光祖)에서 이원익(李元翼)으로 이어지던 대동법(大同法: 조선시대에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주창하여 민의(民意)를 살폈던, 그는 영의정에 오른 뒤 처음으로 한양에 집을 지었는데 당시 상류층이 모여 사는 북촌이 아니라 비천한 남촌에 위치하였고, 구루정이라는 현판을 단 남루한 초가집이었다.

누가 알리 의정부서 삼공으로 있었는 줄 / 誰識巖廊作相公  
 몇 칸의 떠돌집서 살아가는 산골 노인 / 數間茅屋舊山翁  
 창 열고서 오랫동안 잠두 보며 앉았음에 / 開窓長對蠶頭坐  
 술과 바위 있어 되레 산 속 있는 것 같구나 / 松石還如在峽中  
 <김육, 「구루정(偈樓亭)」, 『잠곡유고(潛谷遺稿)』 ><sup>52)</sup>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고, 방에 들어와서는 곱어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감히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해지기만 즐겨, 속세를 떠나 초야에 묻혀 사는 처사처럼 창가에 기댄 채 오만함에 취해서야 되겠는가? 옛 술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보면 ‘한번 명을 받은 벼슬아치는 몸을 구부리고, 두 번 명을 받은 벼슬아치는 허리를 굽히고, 세 번 명을 받은 벼슬아치는 머리를 수그린다. 나는 이 말에 매우 깊은 느낌과 울림을 받아, 머리를 수그리면서 내 정자를 구루정이라고 이름하였다.’”

<김육, 「구루정기(偈樓亭記)」, 『잠곡유고(潛谷遺稿)』 ><sup>53)</sup>

이처럼 김육은 교만해짐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허리도 다 펴지 못하게 정자를 지어 자신을 단속하였다. 구루정의 자세한 모습은 김육이 지은 구루정기(偈樓亭記)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우거하고 있는 집의 뒤편에 세 칸짜리 집을 세울 만한 작은 언덕이 있었다. 이에 드디어 떠돌을 엮어서 초가집을 세우고는, 안쪽에 있는 당(堂)을 공극당(拱極堂)이라 이름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정자를 구루정(偈樓亭)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지붕이 낮아서 머리가 부딪히므로 반드시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야

52)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53) 고전연구회 사암, 『조선 지식인의 아름다운 문장』, (서울: 포럼, 2007), 54-55쪽.

움직일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 지었다. (중략) 나는 팔도(八道)를 두루 유람 하였지만 경치를 감상할 마음이 일어나는 곳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70여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명승지를 얻어서 정자를 지었으니, 돌 틈 사이의 물은 갯간을 뿔 만하고 바위 사이의 물은 양치질을 할 만하며, 대나무를 쪼개 만든 수로(水路)로 물을 대어 연못에는 연꽃을 심을 수가 있고, 고기를 기르고 학을 기르며 만물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종일토록 적료(寂寥)하여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 이는 참으로 평소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하던 곳이다.” <김육, 「구루정기(樞樓亭記)」, 『잠곡집(潛谷集)』><sup>54)</sup>

김육의 손자 김석주(金錫胄)의 기문에 남산에 세워진 많은 집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기이하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 식암유고(息庵遺稿)의 기문(記文)을 통하여 통하여 구루정의 소리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

“빙 둘러있는 바위 앞뒤로 수목을 뒤섞어놓았는데 나무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가 많고 화훼는 국화, 원추리, 철쭉, 창포가 많다. 매번 바람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면 기운이 동탕쳐서 나무가 다투어 울린다. 큰 소리는 궁음(宮音)이 되고 작은 소리는 상음(商音)이 되어, 거문고를 치는 듯 비파를 타는 듯하다.” <김석주, 「호위편비청벽기(扃衛偏裨聽壁記)」, 식암유고(息庵遺稿)><sup>55)</sup>

“정자는 남산 기슭에 있어 새벽 이내와 저녁 안개가 푸른빛을 실어오고 변화하는 모습이 날마다 내 눈앞에 드러난다. 정자 앞의 개울물이 돌 위로 흐르고 뒤쪽으로 소나무가 뒤덮여 있어 쟁그랑쟁그랑 패옥이 울리는 듯한 물소리와 췌췌 비파를 타는 듯한 술바람 소리가 날마다 내 귀에 들어온다.”

<김석주, 「집 남쪽 작은 언덕 위의 초가정자에 대한 기문(宅南小丘茅亭記)」, 『식암유고(息庵遺稿)』><sup>56)</sup>

비록 비루(鄙陋)한 초가집인 구루정에서 지냈던 김육이었으나, 구루정의 아름다운 경관과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고 무척 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료를 토대로 구루정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2]와 같다.

54)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55)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2006), 136쪽.

56) 같은 책, 137-138쪽.

[표 3-12] ‘구루정’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 흐르는 물소리       | 자연음    | 물소리  | 남산 | 바위틈   | 잠곡집     |  |
| 흙통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        |      |    | 연못    |         |  |
| 학 울음소리        |        | 생물   |    | -     |         |  |
| 개울물 소리        |        | 물소리  |    | 정자 앞  | 식암유고    |  |
| 솔바람 소리        |        | 바람소리 |    | 정자 뒤쪽 |         |  |
|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 |        |      |    | 골짜기   |         |  |

### 13. 곡운정사(谷雲精舍)

곡운정사는 현재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었던 정사(精舍)로서 조선 현종 때의 문신·학자인 김수증(金壽增, 1624 ~ 1701)이 1670년에 화악산(華嶽山) 북쪽 절경을 이룬 계곡, 즉 으로 들어와 초당을 짓고 곡운정사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그후 잠시 관계에 나갔다가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후학을 가르치며 은둔하던 곳이다.



[사진 3-18] 곡운정사 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화음동지(華陰洞誌)』에 따르면, 김수증은 정자를 짓고 요엄류정(聊淹溜亭), 계곡의 남쪽 언덕에 네 칸 집을 짓고 부지암(不知庵), 암자 왼쪽에 두어 칸 집을 지어 자연실(自然室),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닫아 함청문(含淸門), 울타리 밖의 채포(菜

圃 : 채소밭)를 불가부지포(不可不知圃), 문 밖에 우물을 파고 한청정(寒淸井), 우물 아래 못을 파고 청여허당(淸如許塘), 못가에 축대를 쌓고 표독립대(表獨立臺), 정자 아래 물가의 넓은 바위를 천관석(川觀石), 천관석 옆에 있는 다리를 추진교(趨眞橋), 추진교 옆의 바위를 음송암(蔭松巖)이라고 하였다.

현재, 건축물은 전부 소멸되고 그 터와 자연석, 바위에 새겨진 글자와 도상만이 남아 있으나 저서인 곡운집(谷雲集)의 여러 기록에서 당시의 곡운정사의 경관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암 송시열이 지은 곡운정사기(谷雲精舍記)가 전해진다.

“서쪽 언덕에서 샘물을 끌어다 서쪽 창가에 이르게 하고 나무를 깎아 지탱하여 목조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난간과 높이를 같게 하였다. 남은 물은 처마 끝에서 떨어져 못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맑고 시원한 빛과 옥처럼 고운 소리가 늘 곁에 있으니 깊은 산이나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중략) 또 처마 너머에 산비들이 있어 지붕 위로 높이 솟아 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 때면 그늘이 짙어 새들이 가까이 다가와 높고 낮은 소리로 지저귀곤 하였다. 이것이 곧 옛사람이 이른바 ‘나무 위와 대나무 끝에서 새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는 것이다.”

〈김수증, 「청몽루기(淸夢樓記)」, 『곡운집(谷雲集)』 >57)

絶境端宜養性靈 절경이라 성정을 수양하기 알맞은데  
暮年心跡喜雙淸 만년의 마음과 자취 모두 맑아 즐겁네.  
白雲東畔華山北 백운산 동쪽 화악산 북쪽이라  
曲曲溪流滿耳聲 굽이굽이 개울물 소리 귀에 가득하구나.

〈김수증이 곡운의 풍경을 읊은 시>58)

정사 옆 화음동의 개울을 집으로 끌어들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물레방아를 두고 그 이름을 용운대(春雲碓)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전략) 또 암자 서쪽으로 흘러나오는 작은 개울물이 있으니, 골짜기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물을 대어 물레방아를 만들고는 용운이라고 이름지었다.

〈김수증, 「화음동지(華陰洞誌)」, 『곡운집(谷雲集)』 >59)

사료를 토대로 곡운정사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3]과 같다.

57)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2006), 388-390쪽.

58) 같은 책, 405쪽.

59) 박경자, 앞에 든 책, 441쪽.



[표 3-13] ‘곡운정사’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새 우는 소리         | 자연음    | 생물   | 곡운    | 바위 위  | 곡운집     |
| 바람 소리           |        | 바람소리 |       | 시냇가   |         |
| 빗소리             |        | 빗소리  |       | 개울가   |         |
| 개울물 소리          |        | 물소리  | 정사 내부 | 울타리 밖 |         |
| 물레방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        |      |       |       |         |
| 물레방아 도는 소리      | 인공음    | 물레방아 |       |       |         |

#### 14. 허목(許穆)의 연천별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 ~ 1682)은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1626년(인조 4) 유생으로서 동학(東學)의 재임(齋任)을 맡고 있을 때, 생부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왕으로 추송해 나가려는 인조의 뜻을 지지한 박지계(朴知誠)에게 그 이름을 유생 명부에서 지우는 벌을 가했다가 과거 응시를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과거와 벼슬에 뜻을 끊고 광주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여러 곳을 이주한 끝에 1646년 연천에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이후 정릉참봉·내시교관·조지서별좌·공조좌랑·용궁현감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거나 곧 사직하였다. 1657년 공조정랑·사복시주부를 거쳐 1659년에 장령에 임명되자 상소를 올려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의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659년에 현종이 즉위한 후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장령이 되었다. 1676년에 사직하고, 특명으로 기로소에 들어간 후로는 허적의 전횡을 비판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을 뿐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관직을 삭탈당하고 학문과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죽은 후 1688년에 관직이 회복되고 경기도 마전에 있는 미강서원(湄江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허목은 사상적으로 이황(李滉)·정구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익(李瀾)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다. 사서(四書)나 주희(朱熹)의 저술보다는 시·서·역·춘추·예의 오경(五經) 속에 담겨 있는 원시 유학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진한(秦漢) 이전의 문물에 대한 탐구는 문자에도 적용되어 특히 전서(篆書)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한 사상은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고 당시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의 개척을 의미하였다.<sup>60)</sup>

「임거전흥(林居遣興)」에 따르면 허목은 20년 동안 연천 산촌(山村)에 살면서 10가지 일로 세월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첫째는 봄날 산에 꽃이 피고 바위 곁에 새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이요

둘째는 우거진 숲에 해가 저물면 그늘진 벼랑에 짙은 안개가 끼는 것을 보는 것이며,

셋째는 해뜰 무렵 첩첩산중에 노을이 어리는 것을 보는 것이며,

다섯째는 비 그친 후 물이 불어난 앞개울에서 낚시를 드리우는 것이며,

여섯째는 시냇가 바람이 비를 몰아올 때 낙조가 산에 어리는 것을 보는 것을 보는 것이며,

일곱째는 저녁 무렵 산기운이 아름다운데 숲 너머에 아스라이 안개가 끼는 것을 보는 것이며,

여덟째는 한밤 모든 동물이 잠들었을 때 성긴 숲 그림자를 즐기는 것이며,

아홉째는 가을날 협곡에 안개가 어리고 단풍이 천 겹으로 퍼지는 것을 보는 것이며,

열 번째는 눈이 가득 쌓인 산속의 푸른 소나무를 보는 것이다.

또 허목은 1682년에 십청원 근처에 만목춘도(萬木春島)라 이름 지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였다고 전해진다.

“봄날 맑게 개이고 날이 길면 숲속에서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를 듣는다. 노인은 일이 없다. 내 사는 집을 만목춘도라 하였다. 즐거움을 기록한 것이다. 임술년(1682) 입춘저녁 임거노인(林居老人)이 쓴다.”

<허목, 「임거전흥(林居遣興)」, 『기언(記言)』><sup>61)</sup>

정치의 혼탁한 현실을 벗어나 한가로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보고 듣고 느끼며 즐거워했을 허목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사료를 토대로 연천별서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4]와 같다.

60) 『인터넷두산백과사전』, “허목” 항목,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7903](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7903) (검색일: 2012년 6월 11일).

61)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2006), 366쪽.

[표 3-14] ‘연천별서’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새 우는 소리 | 자연음    | 생물   | 연천 | 바위 위 | 임거견흥    |
| 바람 소리   |        | 바람소리 |    | 시냇가  |         |
| 빗소리     |        | 빗소리  |    | 개울가  |         |
| 개울물 소리  |        | 물소리  |    |      |         |

## 15. 김창흡의 삼부연(三釜淵) 별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가 진도(珍島)의 배소(配所)에서 사사되자 형 창집(昌集) · 창협(昌協)과 함께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그는 철원의 삼부연에 집을 정한 까닭을 증조부였던 김상헌이 찾아 헤매던 피세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김창흡은 자신의 집을 진나라의 학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의 피란처인 도원(桃源)에 비유하였다.<sup>62)</sup>

새로 초가를 지은 곳은 진나라 옛 유민들의 마을.

복사꽃은 세월을 잊게 하는데 폭포수는 세상을 갈라놓았네.

침침 바위는 인적이 끊겼는데 뭉게구름은 고목에 걸려 있다.

그 옛날 우리 선조께서 이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셨지.

<김창흡, 「삼가 증조부의 삼연폭포 시에 차운하다(敬次曾王考三釜瀑韻)」, 『삼연집』 ><sup>63)</sup>

또 삼부연 별서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한 삼연집과 김수항의 문곡집의 시에서 삼부연 별서의 소리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

鷄犬人煙瀑布東 폭포동쪽 닭 울음 개 짖는 소리 밥짓는 연기

白茅爲屋據穹崇 흰 초가가 높다란 곳에 솟아 있네

千巖映發秋冬際 가을과 겨울사이 천겹 바위는 어른어른

一徑盤紆雲霧中 운무 속으로 길 하나 엮기설기 엮혀있다.

削玉蓮花峰秀出 옥을 깎은 듯한 연화봉이 빼어나게 솟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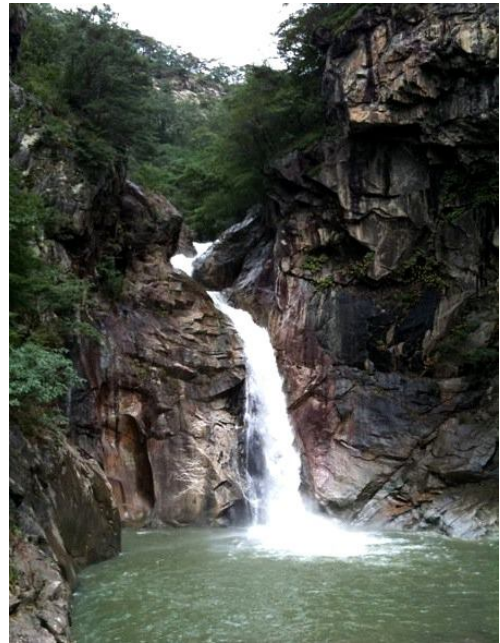
62)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내가 좋아 사는 삶』 (서울: 휴머니스트, 2006), 29~30쪽.

63) 같은 책, 30쪽.

彈琴鬼谷水回通 거문고 소리인 양 귀곡의 물이 휘돌아 흐르네.  
 此中洗藥兼風珮 이 속에서 약초 씻고 맑은 바람소리 들으리니  
 未必僊居讓葛翁 신선이 사는 땅 갈홍에게 양보할 것 없다네.  
 <김창흡, 「삼연의 새집(三淵新構)」, 『삼연집(三淵集)』><sup>64)</sup>



[그림 3-4] 정선, <삼부연폭포(三釜淵瀑布)>, 수묵담채, 28.1x31.4cm, 간송미술관 소장



[사진 3-19] 삼부연 폭포

千巖萬壑繞西東 천겁 만겁 바위와 골짜기가 동서로 둘러는데,  
 別有蓮峰竦處崇 연꽃 봉오리가 우뚝 솟은 별천지가 있구나.  
 但逐清溪穿谷口 그저 푸른 시내 따라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니  
 忽看精舍在丘中 갑자기 정사가 언덕 위에 나타나네.  
 雲間鷄犬村非遠 구름 사이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가까워지는데  
 日暮漁樵路自通 저물녘 나무꾼의 산길이 절로 통해 있구나.  
 分占華山吾與爾 너와 내가 용화산을 나누어 차지하였으니  
 不應長羨鹿門翁 녹문산의 방덕공(龐德公)이 부럽지 않네”  
 <김수항, 「흙아가 태화산에서 노닐면서 지은 여러 시에서 차운하다(次翁兒遊太華諸作韻)」, 『문곡집(文谷集)』><sup>65)</sup>

64) 이종묵, 앞에 든 책, 27-28쪽.

65) 같은 책, 28-29쪽.

사료를 토대로 삼부연 별서의 소리경관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15]와 같다.

[표 3-15] ‘삼부연 별서’의 소리경관

| 소리      | 소리의 분류 |      | 장소  |           | 사료 / 근거     |
|---------|--------|------|-----|-----------|-------------|
| 닭 우는 소리 | 자연음    | 생물   | 삼부연 | 폭포동쪽      | 삼연집/<br>문곡집 |
| 개 짖는 소리 |        |      | 별서  | 내부공간      | 삼연집         |
| 솔바람 소리  |        | 바람소리 | 삼부연 | 삼부연<br>폭포 |             |
| 폭포 소리   |        | 물소리  |     |           |             |

## 제 2 절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현황 및 특성

### 1. 연구대상 원림의 배경 및 범위

#### 1) 연구 대상 원림 선정기준

전통 원림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료 및 유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원림은 16~17세기 조선시대 별서원림 중에서 현재에 사료와 유구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소리경관 요소가 풍부한 소쇄원, 명옥헌, 부용동 원림, 독락당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연구의 방법으로는 R. M. Schafer의 저서 ‘soundscape’와 Keiko Torigoe의 저서인 ‘사운즈스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에서 소리경관을 연구한 방법을 기초로, 직접 소리를 듣고 느끼며 소리를 파악하는 방법인 ‘Sound-walking’과 사운드 레코더<sup>66)</sup>로 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원림의 소리지도(Sound map)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2) 연구조사 일정

2012년 3월 7일에서 7월 8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소리경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비교적 날씨가 맑은 날에 실시하였으며, 원림의 개장시간 동안의 소리를 조사/녹음하였다.<sup>67)</sup> 현장 조사 일정은 다음의 표 [3-16]과 같다.

[표 3-16] 현장 조사 일정표<sup>68)</sup>

|     | 1차 답사 | 날씨 | 2차 답사     | 날씨 | 3차 답사     | 날씨     | 4차답사   | 날씨 |
|-----|-------|----|-----------|----|-----------|--------|--------|----|
| 소쇄원 | 3월 7일 | 흐림 | 3월 26일    | 맑음 | 5월 11~12일 | 맑음     | 6월 25일 | 맑음 |
| 명옥헌 | 3월 7일 | 흐림 | 3월 26일    | 맑음 | 5월 11~12일 | 맑음     | 6월 25일 | 맑음 |
| 부용동 | 3월 8일 | 흐림 | 3월 27~28일 | 맑음 | 5월 21일    | 맑음     | 7월 8일  | 맑음 |
| 독락당 | 4월 2일 | 맑음 | 5월 22일    | 맑음 | 6월 26일    | 맑음 /구름 | -      | -  |

66) 사운드 레코더의 특징은 본고의 5쪽을 참고할 것.


67) 독락당의 경우에는 현재 회재 이연적 선생의 자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여 계정과 독락당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68) 답사 일정 중 6월 25일, 26일은 가뭄이 심하여 소쇄원, 명옥헌, 독락당의 계곡물이 대부분 말라서 물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들의 소리 또한 다른 답사들과 비교하여 그 빈도가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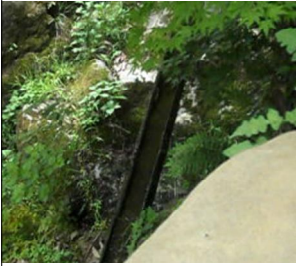

## 2. 별서원림의 소리경관 현황 및 특성

### 1) 소쇄원

[표 3-17] 소쇄원의 소리경관 현황분석<sup>69)</sup>

| 원림명            | 소쇄원(瀟灑園)   |  |                       |
|----------------|--|--|-----------------------|
| 원림<br>개요       |         | 조영자  | 소쇄 양산보<br>(1503~1557) |
|                |  |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br>남면, 지곡리  |
|                |  | 조영년도   | 1520년대                |
|                |  | 분류   | 개인 정원                 |
| 공간<br>특성       | 소쇄원은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된 원림으로 정원을 관통하여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지형이 가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수경방법을 연출 하고 있다. |  |                       |
| 구분             | 내용   |  |                       |
| 소리<br>경관<br>특성 | 물소리  | 소쇄원에서는 다양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곡문 앞의 곡류에서 굽이쳐 흐르는 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계곡을 따라 폭포와 계류가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물소리를 감상 할 수 있다. 이런 물소리들은 가까이에서는 각기 다른 소리를 감상 할 수 있고, 멀리서는 여러 소리가 합쳐져 오케스트라와 같은 풍부한 물소리를 감상 할 수 있다. |                       |
|                | 바람소리   | 계곡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정원 내부의 소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의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감상 할 수 있으며, 정원 외부의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를 정원 내부에서도 생생히 들을 수 있다.   |                       |
|                | 새소리  | 소쇄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새소리를 즐길 수 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소리와 소쇄원 입구에서 키우는 오리 울음소리, 주변 민가에서 키우는 닭 울음소리와 참새, 까치 소리 등 다양한 새소리가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                       |
|                | 기타   | 관람객의 이야기 소리, 발자국 소리,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진땀개의 짖는 소리  |                       |

69) 소리경관 현황분석 방법은 이호석(2012)의 논문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의 분석을 틀을 참고하였다.

| 기법   | 내용   |   |
|------|--|---|
| 원규투류 |   | 소쇄원 오곡문의 담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소쇄 양산보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기법이다. 개울이 흐르는 것을 담장 아래를 비워 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처럼 계곡의 물길을 정원 내로 끌어 들임으로서 시각과 더불어 창각적으로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한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
| 비구   |   | 소쇄원의 비구는 계곡의 물을 대붕대 아래에 위치한 연지(蓮池)에 물을 대기 위한 장치로 대나무 홈통을 흐르는 물소리와 비구를 넘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물의 끌어들임은 다양한 수경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형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수경기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 석간   |  | 대붕대 남쪽의 상지와 하지를 잇는 약 25cm 폭의 물도랑으로 오곡문 아래로 흘러든 물이 비구를 통해 상지로 유입되고, 상지에서 넘친 물이 석간을 통해 다시 하지로 유입된다. 과거에는 물레방아가 이곳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유실되었다.  |

소쇄원은 조영당시의 소리경관<sup>70)</sup>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등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으나, 대붕대 아래의 하지(下池)에 위치하였던 물레방아가 소실되어 물레방아 도는 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는 현재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또 제월당의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파초가 소실되어,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역시 현재에는 들을 수 없다.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던 현재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관람객의 소리가 있다. 소쇄원의 개방시간에는 늘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관람객의 이야기 소리와 발자국 소리 또한 현재의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쇄원의 소리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소음으로는 소쇄원 입구의 도로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비행기의 소리가 있다.

답사를 토대로 소쇄원의 소리현황을 mapping한 결과물은 다음의 [그림3-5]와 같다.

70) 조영 당시 소쇄원의 소리경관은 [표 3-1] ‘소쇄원’의 소리경관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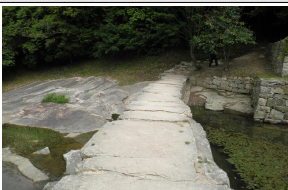



[그림 3-5] 소쇄원의 소리지도<sup>71)</sup>

71) [그림 3-5]는 3월에서 6월 사이 4회의 답사를 통하여 조사된 소쇄원의 소리경관 중에서 이벤트성의 소리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평면도에 mapping하여 소리지도를 만든 것이다. 본 연구의 소리지도 작성방법은 모두 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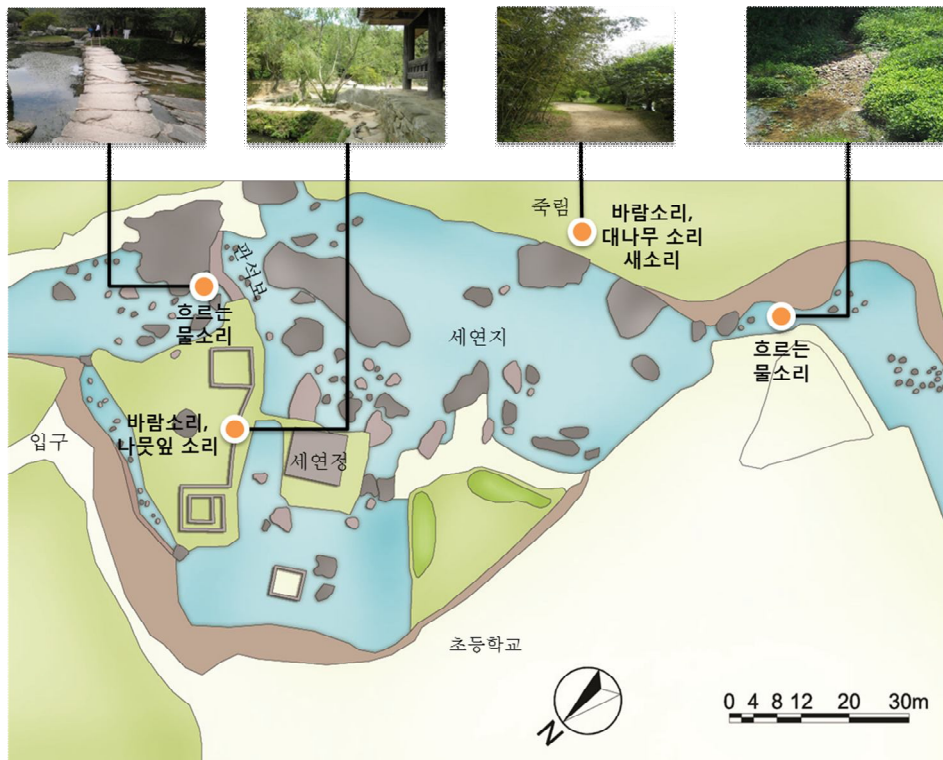
## 2) 부용동 원림

[표 3-18] 부용동 원림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원림명            | 부용동 원림  |  |                       |
|----------------|---|--|-----------------------|
| 원림<br>개요       |    | 조영자  | 고산 윤선도<br>(1587~1671) |
|                |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br>보길면      |
|                |   | 조영년도   | 1637년                 |
|                |   | 분류   | 개인 정원                 |
| 공간<br>특성       | 부용동 원림 중 세연정은 계곡의 물을 이용한 거대한 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원림으로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만든 판석보가 특징적이다.<br>곡수당은 격자봉 북쪽 기슭으로 흐르는 계천 옆에 지어진 건물로 지형과 산세를 이용하여 산에서 흐르는 계곡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  |                       |
| 구분             | 내용  |  |                       |
| 소리<br>경관<br>특성 | 물소리   | 세연정에서는 계곡에서 세연지로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곡수당에서는 뒤편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나무 흠통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석가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                | 바람소리  | 세연정 맞은편 죽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연정에서는 주변에 식재된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감상 할 수 있다.                                  |                       |
|                | 새소리   | 세연정과 곡수당에서는 산 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                | 기타  | 세연정 방문객의 이야기 소리, 세연정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음,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                       |
| 기법             | 내용  |  |                       |
| 판석보            |    | 세연정의 판석보는 세연지의 저수를 위해 만든 석조보로서 폭우로 인해 개울의 물이 넘칠 때는 폭포가 되어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다. 판석보의 내부는 비어있어 물소리가 세연정까지 울려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

|     |   |  |
|-----|---|--|
| 석가산 |  | 보길도지에 따르면 은통(隱筒)으로 물을 끌어들이 구멍으로 물이 떨어지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복원된 석가산은 은통이 아니라 외부로 노출된 나무 홈통을 통하여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 잘못된 복원이라 하겠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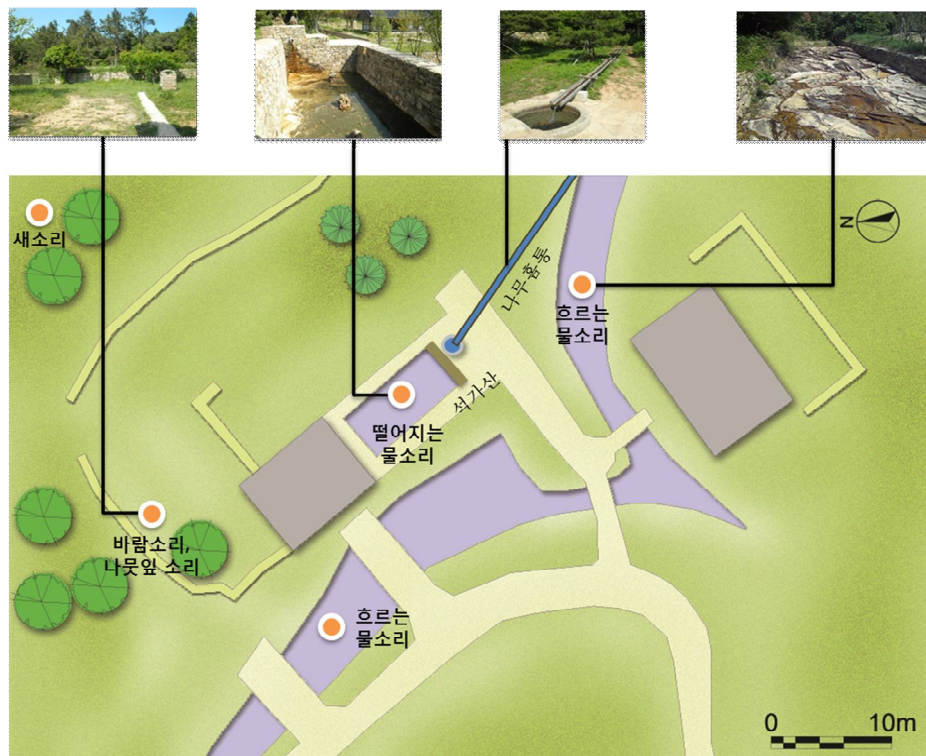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연정의 소리경관은 판석보의 물소리외에도 세연지에서 연주하였던 음악과 가사(歌詞)가 있었으나 소실되어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세연정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는 지저귀는 산새소리와 죽림에 부는 바람소리, 계곡에서 세연지로 흐르는 물소리가 있으며, 세연정의 소리를 즐기며 있어 방해가 되는 소음으로는 가이드의 해설소리, 관광객 소리와 세연정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음, 자동차 소리가 있다. 답사를 토대로 세연정의 소리 현장을 mapping한 결과물은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부용동 원림-세연정의 소리지도

곡수당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와 석가산의 인공폭포를 통해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우러지며,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귀음이 곡수당의 소리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답사를 토대로 곡수당의 소리현황을 mapping한 결과물은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부용동 원림-곡수당의 소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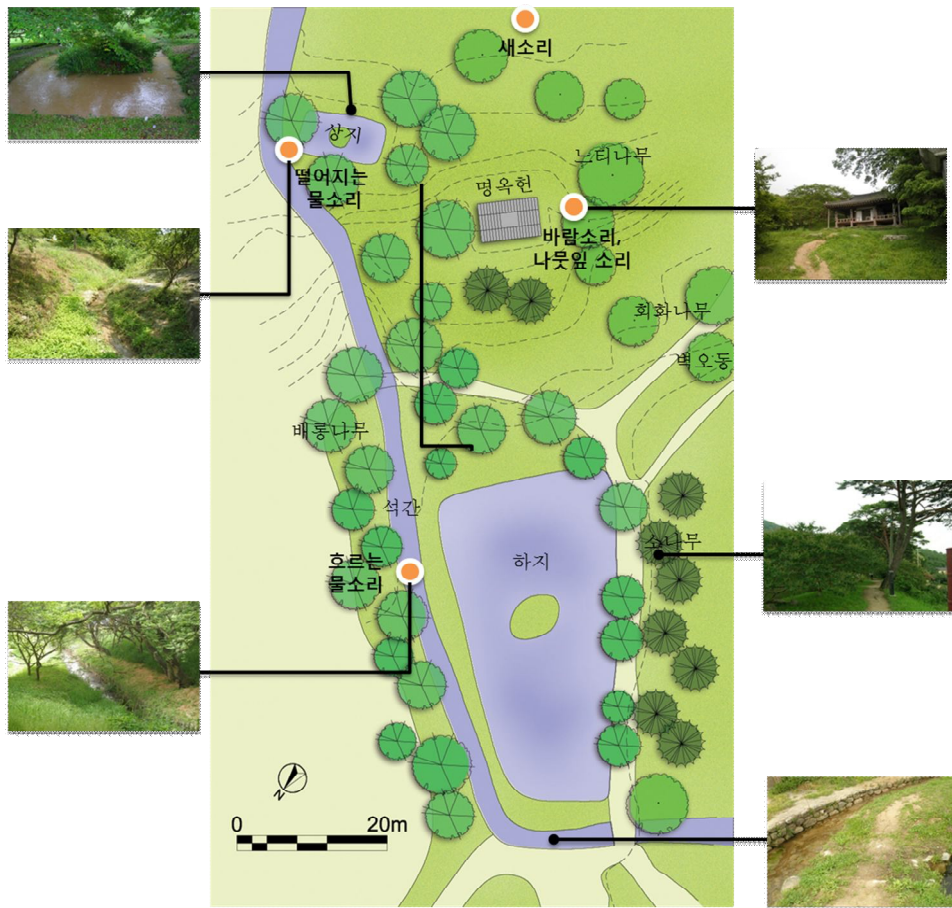


### 3) 명옥헌

[표 3-19] 명옥헌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원림명            | 명옥헌(鳴玉軒)  |  |                                  |
|----------------|---|--|----------------------------------|
| 원림<br>개요       |                        | 조영자  | 오희도(1583~1623)<br>오이정(1619~1655) |
|                |   |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br>고서면, 산덕리            |
|                |   | 조영년도   | 17세기                             |
|                |   | 분류   | 개인 정원                            |
| 공간<br>특성       | 명옥헌은 후산마을 깊은 곳의 계류가에 위치한 원림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원림이다. 명옥헌에는 상지(上池)와 하지(下池) 두 곳의 방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석간을 통해 이를 잇고 있다. |  |                                  |
| 구분             | 내용  |  |                                  |
| 소리<br>경관<br>특성 | 물소리   | 기록에 의하면 ‘명옥헌의 서쪽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영롱하여 심신을 맑게 씻어준다.’ 라 하였으나 현재에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계곡 근처에 가지 않으면 물소리를 듣기 힘들다. |                                  |
|                | 바람소리  | 원림 내부로는 정자 주변의 느티나무와 방지 주위의 배롱나무,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외부로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                                  |
|                | 새소리   |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 속에서 들려오는 찌꼬리의 소리와 마을에서 들려오는 참새, 까치 소리 등의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                | 기타  | 방문객의 발걸음 소리, 이야기 소리, 논에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                                  |
| 기법             | 내용  |  |                                  |
| 석간             |                      | 명옥헌 서쪽에 위치한 상지와 하지를 잇는 작은 개울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                                  |



답사를 토대로 명옥헌의 소리현황을 mapping한 결과물은 다음의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명옥헌의 소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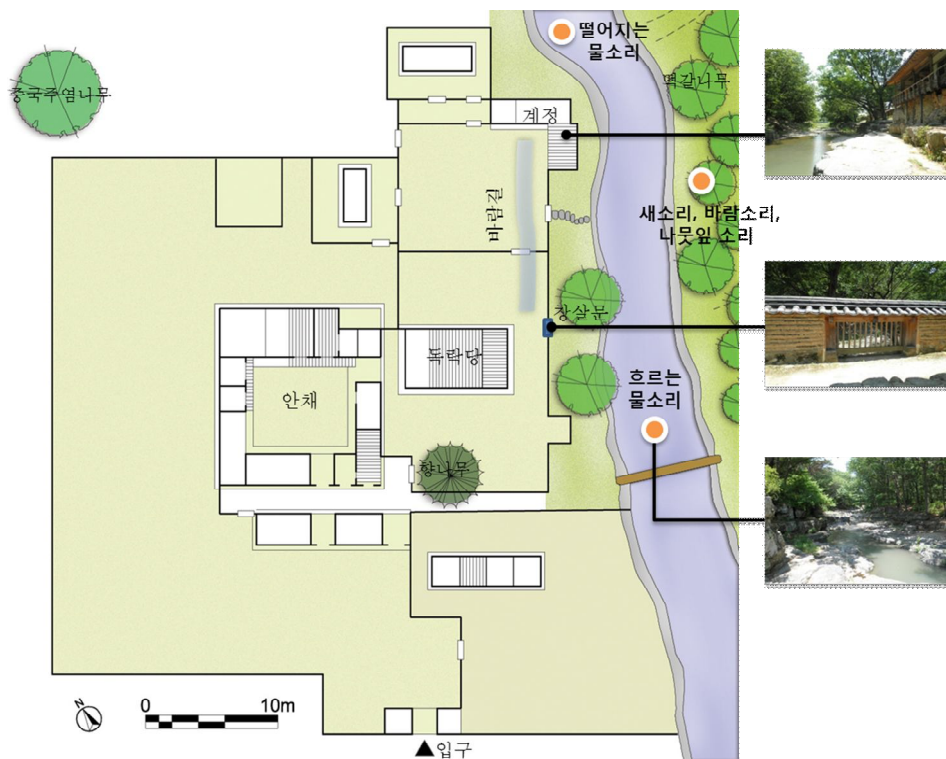
#### 4) 독락당

[표 3-20] 독락당의 소리경관 현황분석

| 원림명        |   | 독락당(獨樂堂)  |                       |
|------------|---|---|-----------------------|
| 원림<br>개요   |                | 조영자   | 회재 이언적<br>(1491~1553) |
|            |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br>안강읍 옥산리   |
|            |   | 조영년도  | 1530년대                |
|            |   | 분류  | 개인 정원                 |
| 공간특성       | 독락당은 계곡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곡을 향해 열린 계정과 독락당의 담장에 설치된 창살문을 통하여 계곡의 소리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을 보인다. |   |                       |
| 구분         |   | 내용  |                       |
| 소리경관<br>특성 | 물소리   | 가뭄이 든 6월을 제외하면 계곡의 수량이 풍부하여 팔팔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창살문을 통해 독락당 내부에서도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            | 바람소리  | 독락당의 창살문과 밖으로 열린 계정을 통해 형성된 바람길을 따라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계곡 주변의 떡갈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온다.   |                       |
|            | 새소리   | 계곡을 따라 다양한 산새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에서 들려오는 참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
|            | 기타  | 계곡에서 들려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 소리, 입구 도로의 자동차 소음   |                       |
| 적용기법       |   | 내용  |                       |
| 창살문        |              | 답사를 통해 소리를 녹음한 결과 창살문 주위에서는 소리의 압력(dB: 데시벨)이 72.0dB~73.4dB로 나타났으며, 완전히 담장으로 가려진 곳에서는 63.8dB~66.8dB로 측정되었다. 외부의 계곡에서 녹음한 물소리가 약78~80db임을 감안하면 창살문이 가지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

독락당은 계곡 옆에 위치하고 있어 계곡을 따라 흐르는 풍부한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독락당 내부에서도 담장에 설치된 창살문을 통하여 담장 밖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또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에 가득 울려 퍼진다. 하지만 계곡의 피서객들의 말소리와, 독락당 앞을 주기적으로 다니는 버스와 자동차의 소리 또한 독락당의 소리를 즐기기에 있어 방해가 되는 소음이다.

답사를 토대로 독락당의 소리현황을 mapping한 결과물은 다음의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독락당의 소리지도



## 제 4 장 별서원림에 나타난 소리의 의미와 기법

### 제 1 절 자연음에 담긴 의미

조선시대 16, 17세기의 선비들은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으로 얼룩진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을 떠나 강호(江湖)에 묻혀 자연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에 물소리, 바람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곁에 두기를 원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림은 자연의 인위적 조작을 최소화하고, 경관 좋은 곳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입지하는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전통조경에서 차경(借景)을 통해 경관을 빌려오듯 주변의 자연음을 차음(借音)의 기법으로 활용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 1. 물소리

전통 정원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리의 소재는 물이다. 전통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물은 ‘지지혈기(地之血氣)’, ‘중용(中庸)’, 구평준(構平準)이라 하여 시원성(始原性)과 생동성(生動性), 그리고 영원성과 수평성의 이미지를 지닌 지구의 골격인 바위와 혈액인 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과학과 사상의 합일체로 전통문화로서 발전시켜 왔다. 즉 전통적인 정원 공간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는 사상적 측면에서 유토피아 사관과 정서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유학자들의 별서원림에 조성된 연못은 ‘인성을 수양하는 세심(洗心)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으며, ‘선도(仙道)가 있는 신선의 세계관’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우리 자연이라는 영원한 존재와 합일 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선조들은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선비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상향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 자연과 일치된 이상세계를 꿈꾸어 왔다.<sup>1)</sup>

노자는 물에 관하여 말하되, 물을 ‘최상의 선(上善若水)’ 이라고 하였으며, 고려말·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은 그의 저서인 <고간기(高澗記)> 《양촌집(陽村集)》에서 물의 맑은 본성과 인간의 천성에 대해 말하되, ‘사람의 천성이 선함은 물의 성질이 맑음과 같은 것이다. 천성이 본래 선한 것이지만 악이 생기는 것은 물욕이 유혹하기 때문이요, 물이 본래 맑은 것이지만 흐리게 보이는 것은 오물이 더럽혀서이니 그 악을 버리고 선을 보존한다면 사람들의 성품이 그 시초대로 회복되는 것이요, 그 흐린 것을 없애고 맑은

1) 조연호,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庭苑) 공간에서의 수경(水景)의 의미와 그 현대적 수용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6-37쪽 참고.

것을 솟게 하면 물의 성질이 정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의 본성을 수기적(修己的)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그는 계곡 물을 선비의 정신 자세와 관련지어 말하되, ‘계곡의 물은 그 근원이 높기 때문에 오물이 모여들 수 없고 그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흐린 것이 머물 수 없으며, 돌이 있어 부딪치고 모래가 있어 걸러진다. 비록 쏟아져 흐름이 차서 넘치며 더디고 급하고 부딪치고 솟아오르며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서 소용돌이치며 평탄한 데서는 곧게 흐르고 굽은 데서는 굽이치며, 그 변화함이 한이 없으나 그 맑음은 자약(自若)하며, 졸졸 팔팔 밤낮 없이 만고(萬古)를 지나도록 쉬지 아니하니 도를 닦는 선비가 마땅히 이를 보고 자강(自強)하여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천성을 회복해서 선(善)에 머물러 두고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선비인 채제공(蔡濟恭, 1720 ~ 1799)은 그의 「회룡사관폭기(回龍寺觀瀑記)」에서, “고요히 생각하니 하늘이 물을 낳을 때 어찌 그렇게 하게 하였는가 물의 본성은 아래로 내려갈 뿐이다. 허(虛)하면서도 실(實)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질다. 그 자연을 따라 흐르지 않을 수 없으며, 흠어지는 것은 바로 그 뿔뿔함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실학자였던 서유구(徐有渠, 1764 ~ 1845)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연못은 고기를 기르면서 감상 할 수 있고 논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sup>2)</sup> 즉, 실용과 관상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양을 위한 장치로서 물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조선중기의 선비인 고산 윤선도 역시 물을 사랑하여, 75수의 시조에 비단 같은 물결, 맑은 시냇물, 청아한 냇소리,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 등의 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민경현, 1998: 137) 특히 오우가를 통해 물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 뿐인가 하노라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中>

여러 기록과 더불어, 이인문의 <임수담소(林叟談笑)>, 윤두서의 <송하관폭도(松下觀瀑圖)>, 강희안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정선



[그림 4-1] 이인문. 임수담소(林叟談笑). 지본담채. 21.0x27.5cm

2) 허균,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서울: 북폴리오, 2004), 114-16쪽 참고.

의 〈관폭도(觀瀑圖)〉 등의 그림을 통해서도 당시 사대부의 물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서 물은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비취 주는 의미 상징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서원림에서 나타난 물소리의 비유와 감정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4-1]과 같다.

[표 4-1] 문헌 속에 나타난 물소리

| 문헌               | 저자  | 장소        | 내용   | 비유       | 감정         |
|------------------|-----|-----------|--|----------|------------|
| 소쇄원48영<br>(小亭憑欄) | 김인후 | 소쇄원       | 귀 기울이면 구슬 굴리는 물소리 들려라  | 옥        | -          |
| 소쇄원48영<br>(壑竅透流) |     |           |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보고 지나며 글을 읊으니 생각은 더욱 그윽해                        | -        | 사유<br>(思幽) |
| 유서석록             | 고경명 |           |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는데, 물소리가 마치 거문고 통기는 소리처럼 영롱하다       | 거문고      | -          |
| 송자대전             | 송시열 | 암서재       | 시냇물 흘러진 돌 사이 달린다. 우레 같아 도깨비 도망치겠고 용이 소리치듯 바위 봉우리 울리네         | 우레<br>/용 | -          |
| 낭음계              | 윤선도 | 부용동<br>원림 | 옥으로 장식한 듯 아름다운 경요굴, 옥류의 물 소리 소대에 얹혀 있다                       | 옥        | -          |
| 윤선도의 시<br>우음(偶吟) | 윤선도 | 수정동<br>원림 | 수정암 아래 물소리는 우레와 같다   | 우레       |            |
| 서경덕의 시<br>무제     | 서경덕 | 화담<br>별서  | 벽옥 같은 물줄기 거울 같은 연못에 쏟아지네, 옥계 속에 거닐며 시 읊노니 갑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네      | 벽옥       | 청정<br>(淸淨) |
| 서경덕의 시<br>화담별서   |     |           | 베개 밑에는 샘물의 노래  | 노래       | -          |
| 선원유고             | 김상용 | 태고정       | 샘물은 계단 아래로 옥소리를 울리고  | 옥        | -          |
| 곡운집              | 김수증 | -         | 맑고 시원한 빛과 옥처럼 고운 소리가 늘 곁에 있으니 깊은 산이나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 옥        | -          |
| 구루정기             | 김육  | 구루정       | 쟁그랑쟁그랑 패옥이 울리는 듯한 물소리  | 패옥       | -          |
| 풍계집승기            | 김양근 | 태고정       | 시내가 우레처럼 돌아내리고 세 연못이 거울처럼 열려있다.                              | 우레       | -          |

|           |     |      |  |            |                          |
|-----------|-----|------|--|------------|--------------------------|
| 명옥헌기      | 정홍명 | 명옥헌  |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더러움이 사라지고 청명한 기운이 스며들어 온다 | 옥          | 세심<br>(洗心)<br>청명<br>(淸明) |
| 삼연집(三淵集)  | 김창흡 | 삼연별서 | 거문고 소리인 양 귀곡의 물이 휘돌아 흐르네.  | 거문고        | -                        |
| 지변신당기     | 하수일 | 지변신당 | 원편으로 시내가 흐르는데 쇠와 돌이 쟁그랑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 쇠와 돌       | -                        |
| 와운유거기     | 장위항 | -    | 개울물이 졸졸 흘러 마치 금이나 옥이 쟁그랑거리는 것 같으니,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듣노라면 심신이 상쾌해진다.            | 거문고 / 옥    | 세심<br>(洗心)               |
| 운주사       | 이산해 | -    | 썩썩 물 떨어지는 소리가 패옥 소리와 같았다.  | 패옥         | -                        |
| 석루집       | 이경전 | -    | 한줄기 개울물이 비뿔비뿔한 틈에서 졸졸 흘러나왔다. 패옥처럼 소리를 내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 패옥         | -                        |
| 죽음집       | 조희일 | -    | (흐르는 샘물 소리가) 패옥 풀어 놓아도 어슴푸레 옥소리 들리는 듯하고, 거문고 멈추어도 여전히 가늘게 줄 뜯는 소리 들리는 듯  | 패옥/<br>거문고 | -                        |
| 치악대승암 유람기 | 안석경 | -    | 물이 우는 소리가 또한 비장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이 마음을 씻어 바꾸어주는 것이 이와 같다.                   | -          | 세심<br>(洗心)               |

위의 표를 통해 원림에서 물소리는 옥이 쟁그랑거리는 소리와 거문고 소리, 우레 소리와 돌과 쇠 소리에 비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물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 심신이 상쾌, 마음을 씻어줌, 더러움이 사라지고 청명한 기운이 스며들, 생각이 그윽해짐” 등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별서에서 물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은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비취주는 의미 상징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물이 가지는 ‘더러움을 씻음과 마음의 청정’ 등의 효과를 물소리를 통하여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별서에 물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은둔을 위해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위치하였던 별서의 입지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 2. 바람소리

물소리와 더불어 바람소리 역시 원림에서 즐겨들던 소리 중의 하나로 임억령은 「청송당기(聽松堂記)」에서 “갑자기 바람이 허공에서 불어와 산중을 휘젓더니,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떨어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가 치는 듯, 비가 퍼붓는 듯, 눈이 내리는 듯, 비파를 연주하는 듯, 피리를 부는 듯, 휘파람을 부는 듯, 물이 끓어 넘치는 듯, 새가 지저귀는 듯하였다. 몸과 마음이 절로 맑아지니 임억령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종묵, 2006a: 73) 라고 하였고, 또 허목의 연천별서의 시냇가 바람소리, 면앙정삼십영의 죽곡의 맑은 바람소리, 김상헌의 청풍계등의 사료를 통해 바람소리를 들음으로서 몸과 마음이 맑아 졌다고 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별서원림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바람소리는 그 자체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나무, 소나무 등과 같은 식물과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나무와 소나무의 의미와 더불어 별서원림의 사료에서 나타난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식(李植, 1584 ~ 1647)의 송죽문답(松竹問答)을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대나무와 소나무에 부여한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松問竹 술이 대에게 말을 걸었다.  
風雪滿山谷 눈보라 몰아쳐 산골 가득해도  
吾能守強項 나는 강직하게 머리 들고서  
可折不可曲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는다오.  
竹答松 대가 술에게 대답했다.  
高高易摧折 고고할수록 부러지기 쉬운지라  
但守靑春色 나는 청춘의 푸르름 고이 지킬 따름  
低頭任風雪 머리 숙여 눈보라에 몸을 맡긴다오.  
<이식, 「송죽문답(松竹問答)」>

### 1) 대나무

연암 박지원은 『연암집(燕巖集)』 「죽오기(竹塢記)」에서 “예부터 대나무를 찬양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시경(詩經)』 기옥(淇奥)편은 대나무를 읊고 노래하며 감탄하는 일만으로도 부족해 ‘군(君)’ 이라고 높여 부르기까지 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대나무로 호를 삼는 자가 그치질 않고, 더욱이 글을 지어 기록까지 한다. 글이 모자란 나조차 대나무의 덕성을 칭송하고, 대나무의 소리와 색깔을 표현해 시문을 많이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대나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대나무는 고대부터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는 피리를 통해 남녀음양의 이치를 상징하면서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였으며,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즉 ‘대쪽 같은 사람’이란 말은 불의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군자의 행실에 비유된다.

유교적 가치관에 젖은 선비들은 대를 그들의 척도로 삼았다. 정몽주가 피살된 다리를 선죽교(善竹橋)라 명명하고 민영환이 자결한 곳에 혈죽(血竹)이 돋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뜻을 부여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대를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도우며 자비의 마음을 돕는다고 하였으며 뗏가지는 관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기도 한다. 선가(禪家)에서는 수행자를 지도할 때의 도구로서 죽비(竹篋)를 사용하는데 수행의 증진을 상징한다.<sup>3)</sup>

소쇄원의 제10영 밤낮으로 울려 대는 대피리 소리, 제29영 좁은 길가의 밋밋한 대나무, 면앙정삼십영 죽곡의 맑은 바람, 신통사의 긴 대나무, 신희의 상춘집 등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 2) 소나무

소나무는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화목(花木) 일품(一品)에 속하며 사시에 푸른 절개를 상징한다. 이 밖에도 예로부터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푸른 잎 덕분에 군자의 상징으로 대변된다.<sup>4)</sup> 선조들은 세속(世俗)의 일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산란해질 때 심산(深山)을 찾아가 노송(老松)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솔잎 사이를 가르며 바람소리를 들곤 하였다고 전해진다. 시성(詩聖) 두보(杜甫)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장중한 소리 라고 말했던 솔바람 소리의 중량으로 산란한 마음을 눌러 가라앉히곤 했던 것이다.(이규태, 2000: 42)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은 “초간정의 맑은 바람소리를 들으니 신선이 사는 땅인 갈흥도 부럽지 않다” 라고 하였고, 이산해는 소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묘사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쓸쓸하여 비감이 들게 하고, 숙연하여 두렵게 하고, 오싹하여 놀라게 하였다. 마치 신선이 학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먼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소리가 가물가물 귀에 들릴 듯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식암유고」, 「지변신당기」, 「상춘집」 등의 문헌에서 소나무 소

3) 『인터넷두산백과사전』, “대나무의 신화와 상징”, 항목, <http://www.doopedia.co.kr>에서 ‘대나무의 신화와 상징’으로 검색,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4) “獨也靑靑, 늘 푸른 소나무”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2&id=1090&sk=%EB%8F%85%EC%95%BC%EC%B2%AD%EC%B2%AD&rUrl=%2Fsearch%2Fsearch.asp> (검색일: 2012년 5월 15일).

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별서원림에서 나타난 바람소리의 비유와 감정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문헌 속에 나타난 바람소리

| 문헌   | 저자  | 대상  | 내용   | 비유                   | 감정        |
|------|-----|-----|--|----------------------|-----------|
| 식암유고 | 김석주 | 나무  | 매번 바람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면 (중략) 거문고를 치는 듯 비파를 타는듯하다.  | 비파, 거문고              | -         |
| 청송당기 | 임억령 |     |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떨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가 치는 듯, 비가 퍼붓는 듯, 눈이 내리는 듯, 비파를 연주하는 듯, 피리를 부는 듯, 휘파람을 부는 듯, 물이 끓어 넘치는 듯, 새가 지저귀는 듯하였다. | 파도, 빗소리, 비파, 피리, 새소리 | 마음이 깨끗해짐  |
| 모재집  | 김안국 |     | 바람이 스치면 푸른 그림자가 난간에 걸치고, 나무를 스치며 부는 천뢰(天籟) 소리가 시운(詩韻)을 실어보내고 설상(雪霜)이 교대로 위풍을 보이니, 맑고 차가움이 뼈를 찌르는 듯하다                   | 천뢰                   | 시운자극 / 맑음 |
| 남유일기 | 김창흡 | 바람  |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자 비파 같은 바람소리가 절로 흥취를 일으켜 읊시 한 수를 읊고 돌아왔다.   | 비파                   | 시운자극      |
| 청송당서 | 박상  | 소나무 | 비파처럼 가늘었다가 생황처럼 높아지는 것은 그 소리가 맑은 것이요.  | 비파, 생황               | 소리가 맑음    |
| 식암유고 | 김석주 |     | 췌췌 비파를 타는 듯한 솔바람 소리가 날마다 내 귀에 들어온다.”   | 비파                   | -         |
| 상촌집  | 신흙  |     | 맑디맑은 일만 산의 솔바람소리 들리네   | -                    | 소리가 맑음    |
| 월송정기 | 이산해 |     | 해풍이 불어오면 송뢰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마치 균천광악을 하늘에서 번갈아 연주하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털이 쭈뼛하고 정신이 상쾌하게 한다.                                    | 균천광악                 | 정신이 상쾌해짐  |
| 상촌집  | 신흙  | 대나무 | 대밭에 부는 바람 비파소리 같은데   | 비파                   | -         |

|            |     |             |   |          |                    |
|------------|-----|-------------|---|----------|--------------------|
|            |     |             | 구름에 싸인 대 끝 솔솔바람에 간드러지네  | -        | 간드러짐               |
|            |     |             | 밤낮으로 울려 대는 대피리 소리   | 생황       | -                  |
| 소쇄원<br>48영 | 김인후 |             | 대숲 너머 부는 바람은 귀를 맑게 하고   | -        | 귀를 맑게함             |
| 영벽헌기       | 김안국 | 대나무         | 대의 스치는 소리에 이르러서는 옥이 부딪치고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데 곧은 줄기와 곧은 마디, 텅빈 속과 거센 잎이 마음이 상쾌하고 깨끗하고 아득하다. | 옥,<br>금속 | 마음이 상쾌하고 깨끗하고 아득하다 |
| 지변신당기      | 하수일 | 소나무,<br>대나무 | 동쪽 봉우리에는 기다란 소나무, 북쪽 동산에는 곧은 대나무 숲이 있어 짙은 먹색의 산빛이 하늘에 떠 있고 맑은 바람소리는 거문고를 타는 듯하다.        | 거문고      | 소리가 맑음             |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별서원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나무 소리를 즐긴 것은 그 소리가 시원하여 거문고, 비파, 생황에 비견될만한 것도 이유지만, 사대부를 대변하는 나무인 대나무와 소나무를 당시 정원에서 즐겨 심었고, 이를 보며 군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마음을 대나무와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에도 투영하였던 것이다.

### 3. 빗소리

김득신 취묵당 팔경시 중 ‘용추의 저녁비’, 채득기의 우담십영 중 ‘귀암에 내리는 저녁비(龜巖暮雨)’, 김안국의 이호십육경 중 ‘도룡이를 입고 비 내리는 교연에 나가는 것(交淵雨蓑)’ 또 김인후, 임억령, 박순 등이 남긴 면양정삼십영 중의 하나로 어등산의 저녁비를 꼽고 있다. 이처럼 많은 원림에서 빗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金昌翕)의 「남유일기(南遊日記)」 중 환벽당(環碧堂)을 방문한 기록에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자 비파 같은 바람소리가 절로 흥취를 일으켜 읊시 한 수를 읊고 돌아왔다’ 고 하였고, 신희의 시(詩)인 밤에 홀로 앉아(夜坐)에서 ‘숲 지나는 가랑비에 잎사귀 모두 놀라네’ 라 하였다. 장옥 역시 호호정의 기록에서 ‘소나기 소리가 시심(詩心)을 자극했다.’ 고 하였다. 이를 통해 빗소리가 시심을 자극하는 흥취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문헌에서 파초 잎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연꽃 잎 위로 떨어지는 잎소리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파초를 처음 도입한 것은 매미 소리를 듣기위해 중국에서 들여와서 식재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파초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잎이 넓고 평평하여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즐기기에 적합하였다.

이이엄, 장흔의 「평생지(平生志)」에서는 이상적인 정원의 모습을 말하면서 “빗소리를 듣자고 파초를 심어둔다.” 라고 하였고 또 유박은 『양화소록』에서 파초를 초왕(草王)이라 칭하고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의 2등품 중에서 양우(仰友:우러러볼만한 벗)란 품격을 두었으며, 백화암의 풍경과 주변을 노래한 시에서는 ‘파초와 괴석(怪石)을 마당가에 두어 명산으로 삼는다.’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란 글에서 자신이 꾸민 정원을 소개한 글에서 “파초는 크기가 방석만 한 것이 한 그루다.” (김미옥, 2010: 76-77) 라고 하였으며, 정원도(庭園圖) 중 소쇄원도와 다산초당도 등에서 파초가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과 겸재 정선의 그림 적재제시에서도 정원에 심겨진 파초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2] 이재관, <파초엽제시도(芭蕉葉題詩圖)>, 종이에 채색, 37x59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4-3] 정선, <적재제시(惕齋題詩)>, 종이에 채색, 간송미술관 소장.

또 김인후가 지은 소쇄원 48영 중 43영에서 파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어지러이 떨어지니 은 화살 던지는 듯  
푸른 비단 파초잎 높낮이로 춤을 추네  
갈지는 얇으나 사향의 소리인가

되레 사랑스러워라. 적막함 깨뜨려 주니”

<하서 김인후, 소쇄원48영><sup>5)</sup>

자연의 소리를 즐기기 위하여 심은 파초이기에 적막을 깨는 것도 밋지 않다. 비를 은화살로, 파초잎의 흔들림을 푸른 비단 춤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 박지원은 「하풍죽로당기(荷風竹露堂記)」에서 “파초의 잎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갑자기 개운해지는 것. . .” (박경자, 2010: 205) 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이산해의 「오곡연당기(梧谷蓮塘記)」에서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전략) 바람이 불면 춤을 추고 빗줄기가 때리면 소리를 내어 한가로이 마치 스스로 즐기는 듯하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않는 이가 아니겠는가? 나는 세상에 숨어 사는 이가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니, 비록 볼 만한 향기와 덕은 없지만 끝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은 저 연꽃과 자못 비슷하다.(후략)”<sup>6)</sup>

이처럼 별서원림에서 빗소리를 듣기 위해 파초를 식재하고, 또 연꽃 잎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즐겼음을 위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 4. 생물의 소리

우리나라의 원림에서는 유실수를 즐겨 심었다. 열매를 먹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새들을 정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발합경(鵲鵲經)<sup>7)</sup>과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녹앵무경(綠鸚鵡經)<sup>8)</sup> 등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들이 관상용으로 새들을 길렀음을 파악 할 수 있다. 김수증은 「청몽루기(淸夢樓記)」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 때면 그늘이 짙어 새들이 가까이 다가와 높고 낮은 소리로 지저귀곤 하였다 이것이 곧 옛사람이 이른바 ‘나무 위와 대나무 끝에서 새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허목은 「임거전흥(林居遣興)」에서 ‘봄날 맑게 개이고 날이 길면 숲 속에서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를 듣는다.’ 고 하였다. 이처럼 문헌을 통하여 원림에서 다양한 새의 울음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5) 소쇄원 홈페이지 <http://www.soswaewon.co.kr>의 번역.

6) 박경자, 앞에 든 책, 250쪽.

7) 한양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관상용 비둘기 사육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한 책.

8) 이서구가 자신의 초록 앵무새를 관찰 하면서 역대 문헌 속에 나오는 앵무새 이야기를 집대성한 책.

## 1) 피꼬리

피꼬리는 울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그 생김새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새다. 많은 시가에서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에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가 특히 유명하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피꼬리 오락가락, 암수 서로 노니는데  
念我之獨 誰其與歸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뉘와곰 돌아가라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유리왕은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암수의 피꼬리가 의종게 노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처럼 피꼬리는 자웅의 정의가 두터운 새로 알려져 있다.

피꼬리는 특히 버드나무와 친근한 듯하다. 「유산가」에 있는 ‘유상앵비편편금(柳上鶯飛片片金)’이라는 구절은 봄철에 버들잎이 새로 피어날 때 그 위를 나는 피꼬리의 모양을 묘사한 시구로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글귀이기도 하다.<sup>9)</sup>

이외에도 김홍도의 그림 마상청앵(馬上聽鶯: 말위에서 피꼬리 소리를 듣다)에서도 피꼬리가 등장한다. 이 그림은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피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양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인문(李寅文)이 쓴 제화시(題畫詩)를 통해 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아리따운 사람이 꽃 밑에서 천가지 소리로 생황을 부는 듯하고 시인의 술동이 앞에 황금굴 한쌍이 놓인 듯 하다. 어지러운 금북이 버드나무 언덕 누비니 아지랑이 비 섞어 봄강을 짜낸다.

〈이인문, 「제화시(題畫詩)」〉



[그림 4-4] 김홍도,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52x117.2 cm 간송미술관 소장.

별서원림의 기록에서도 피꼬리와 관련된 경관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3장의 사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용익은 「소용당기」에서 ‘고운 피꼬리가 정원에서 우는데 혀를 놀리고 속을 울려내는 맑은 소리가 귀에 가득하면, 귀가 차마 여기에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권호문의 송암팔경(松巖八景) 중 ‘봄이 저물면 긴 제방에 수양버들이 어른거리고 피꼬리 울음소리가 막 바뀔 무렵 주렴을 걷고 이를 듣는다.’ 라고 하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피꼬리” 항목, <http://encykorea.aks.ac.kr>에서 ‘피꼬리’로 검색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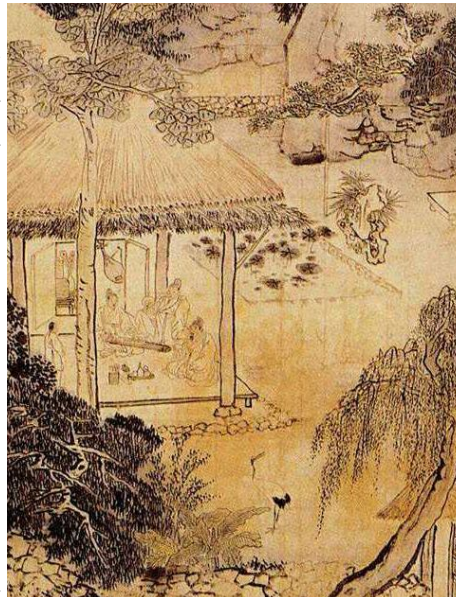
였다. 이외에도 채득기는 우담십영 중의 하나로 ‘남쪽 상봉산 피꼬리 소리(南澗流鶯)’를 꼽고 있으며, 이수광(李睟光)의 비우당팔경(庇雨堂八景) 중 ‘동지(東地)의 버들이 봄바람에 날리고 피꼬리가 지저귀는 모습’을 팔경 중의 하나로 꼽은 것으로 보아 특히 봄철에 피꼬리 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꼬리의 울음소리는 봄철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듣는 사람의 정서(情緒)를 자극함을 알 수 있다.

## 2) 학(두루미)

학은 예로부터 귀하고 성서로운 새로 인식되어 왔다. 학은 신선이 부리며 장수하는 영조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서 매우 친숙한 새로 등장한다. 까치가 서민적이고 친근한 존재라면 학은 품격이 높고 귀한 존재로서 고귀함, 신성함을 상징한다.

학의 이미지는 이상적인 선비의 기상과 매우 잘 부합된다. 따라서 덕망 높은 선비의 고결하고 숭고한 기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민족의 전통 복식에서는 학을 그 상징으로 삼아왔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을 학의 모습을 본떠 학창의(鶴氅衣)라 하였는데 흰 바탕의 창의에 깃, 소매부리, 도련의 둘레를 검은색으로 둘러 학과 같이 깨끗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기상이 돋보이도록 하였다.<sup>10)</sup>



[그림 4-5] 김홍도, <단원도(부분)>, 지본담채, 135×78.5cm, 개인소장.

광해군의 폐모(廢母)에 분개하여 낙향한 조춘풍(趙春風) 같은 이는 뜻있는 선비들과 학을 한 마리씩을 길러 날을 잡아 그 학을 울려 그 울음소리에 품격을 매기고, 또 학을 춤추게 하여 격조를 겨루었다.<sup>11)</sup> 고 한다. 또 기록에 채수, 이광한, 정약용 등 많은 선비들이 정원에서 학을 길렀다고 전해지며, 단원 김홍도가 그린 단원도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단원도는 김홍도가 창해(滄海) 정란(鄭瀾), 강희언(姜熙彦)과 더불어 세사람이 가

10)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서울: 도서출판 훈민, 2006), 27쪽 참고.

11) 같은 책, 157쪽.

졌던 풍류모임을 회상해 그린 작품으로, 거문고를 타는 김홍도의 모습과 정원에서 기르던 학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 3) 기러기

기러기는 그 울음소리가 매우 구성지고 처량하여 예로부터 시, 시조, 가곡, 그림 등에서 그리움과 이별, 고독을 노래할 때 많이 등장했다.

특히 고려와 조선 시대에 귀양을 떠난 선비들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고향을 그리는 그들의 적막한 심정을 읊은 시조 중에 기러기가 많이 등장한다.

신흙은 저서인 상촌집에서 “한 소리 찬 하늘 기러기 가람성을 지나가네” 라고 하였고 조명리(1697~1756)의 시조에서도 “기러기 다 날아가고 설리이는 몇 번 온고, 추야(秋夜)도 길도 길사 객수(客愁)도 하도하다. 밤중만 만정명월(滿庭明月)이 고향인 듯 하여라” (리영순, 2006: 34) 고 하였다.

또 채득기의 무우정 우담십영 중 “학사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平沙落鴈)”와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 송순의 면양정가, 면양정삼십영에서도 기러기와 관련된 기록을 파악 할 수 있다.

또, 기러기는 제비나 까치 등과 같이 사람과 가까이 사는 새가 아니며 일상생활과 먼 거리에 있는 새이다. 기러기는 예로부터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도 널리 인식되었다. 이는 기러기가 가을에 오고 봄에 돌아가는 철새이기 때문이다.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령님께 이내 소식 전해주오  
〈『춘향전』 이별요〉

북해상 찬바람에 울고 오는 저 기러기  
리상코 견방할 줄 네가 능히 알았고나  
사람이 만물령되어 저 지각에 없을 소나  
〈조황의 시조〉  
꿈에 입을 보러 베개에 지혀시니  
반벽잔등에 양금참도할사  
밤중만 외기러기 소리에 잠 못이뤄하노라  
〈이정보의 시조〉<sup>12)</sup>

위의 시조에서 기러기를 통해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와 당쟁으로 임금을 떠나 모시지 못함을 안타까워 여겼던 은거 선비들의 심정과도 일

---

12) 리영순, 앞에 든 책, 35쪽 참고.

치한다. 이처럼 별서원림의 여러 기록에서 기러기가 등장하는 것은, 홀로 나는 기러기에 자신을 투영하고, 한양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통해 자신의 충심을 임금에게 전해주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 4) 두견새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그 울음소리가 처량한 것과, 중국 촉나라 망제전설<sup>13)</sup>과 관련하여 슬픔을 표현하는 소리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박순의 「이양정기(二養亭記)」에서 두견새의 소리를 묘사하기를 “봄여름 두견새가 와서 울면 산이 텅 비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듣는 사람들이 감개하게 된다.” 하였으며 이언적은 그의 시(詩) 독락(獨樂)에서 ‘두견새 소리 들릴 때 달이 산을 들여다보네’ 라고 적고 있다. 독락이라는 뜻은 ‘홀로 즐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사마광(司馬光)의 「독락원기(獨樂園記)」에 맹자가 일견기를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며 자연과 더불어 즐긴다’ 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언적의 독락은 이와도 관련이 있다. 즉, 그의 시(詩) 독락은 사화로 인해 조정을 떠나 고향인 안강의 시골로 내려오게 된 이언적의 심정과 이를 위로해주는 자연물을 노래 한 것으로, 두견새 소리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다 하겠다.

---

13) 옛 중국의 촉(蜀)에 망제(望帝)라고 불린 왕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으로 쫓겨난 망제는 촉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온종일 울기만 했다. 마침내 망제는 울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한맺힌 그의 영혼은 두견새라는 새가 되어 밤마다 불여귀(不如歸:돌아가고 싶다는 뜻)를 부르짖으며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었다고 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두견새설화)

## 제 2 절 인공음에 담긴 의미

### 1. 거문고

옛 선비들은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것을 선비들의 기본적인 교양처럼 여겼으며, 또한 그것은 인격 수양의 중요한 방편이기도 했다. 풍류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호젓한 장소에서 혼자 즐기는 풍류가 있다. 그런데 혼자 즐기는 풍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문고였다. 거문고가 시(詩), 주(酒)와 함께 풍류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선비들에게 있어 단순한 악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풍속통의(風俗通義)」<sup>14)</sup>에 따르면 거문고를 금(琴)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바른 것을 지켜서 스스로 금(禁)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즉,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른 뜻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현 군자들은 거문고를 타면서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느껴 사악한 것과 금할 것을 조절하였다고 한다. 또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따르면 일찍이 공자는 사양(師襄)이라는 사람에게 거문고 타는 법을 배웠는데, ‘거문고를 배우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sup>15)</sup>

거문고를 즐기는 모습은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하서 김인후는 소쇄원을 위한 즉흥시에서 ‘거문고 한곡이 맑고 깊은 물에 메아리치니 마음과 귀가 서로 알게 된다네’라고 하였으며, 고산 윤선도는 ‘눈은 청산에 귀는 거문고 소리에 있으니 세간의 무슨 일이 마음에 내키랴’라고 하였다. 또한 신흠은 상촌집을 통해 ‘거문고와 바둑은 병중에도 여전하다.’라고 하고 있어 거문고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김양근의 풍계집승기, 권호문의 송암팔경 중 ‘달빛을 마주하는 거문고(對月琴)’ 등의 기록에서 거문고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몇 가지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문고는 선비들의 풍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문고와 더불어 즐기는 풍류는 공자의 악도(樂道)와 두보, 도연명, 소동파의 풍류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깥으로 들어내지 않는 내재된 멋과 절제와 내면세계에로의 침잠을 추구했던 선비들의 성향이나 사고(思考), 그리고 행동의 모범을 옛 성현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복고주의(復古主義) 성향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다.<sup>16)</sup>

14) 후한(後漢) 때 응소(應劭)가 지은 책 이름. 10권에 부록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풍속통(風俗通)이라 함. 전례(典禮)를 살피고 당시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쓴 책.

15) 허균,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서울: 북폴리오, 2004), 99쪽 참고.

## 2. 피리소리

거문고와 더불어 피리소리도 수많은 팔경시에 등장한다.

송시열의 경호팔경 중 홍장문적(洪莊聞笛), 이항복(李恒福)의 동호(東湖) 팔경시 중 전교목적(前郊牧笛), 권호문(權好文) 송암팔경(松巖八景) 중 원촌목적(遠村牧笛), 경포팔경(鏡浦八景)의 환선취적(喚仙吹笛)의 팔경시와 김안국의 이호십육경 중 두천에서 목동들이 부는 피리소리, 면양정삼십영 중 목촌산 어부의 피리소리, 산성의 이른 뿔피리 소리의 제영시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피리소리를 아름다운 경관의 하나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신응구(申應渠, 1553-1623)와 단풍구경을 가기 위해 주고받은 편지에서 “산중에 피리가 없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당신 집의 피리 부는 하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소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선비들이 자연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피리소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또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에 피리소리를 묘사하기를 “산은 텅 비고 골짜기는 고요한데 온갖 소리가 모두 멎어 있었다. 피리소리가 맑게 퍼져나가니 마치 신선이 산다는 구렁에서 들려오는 듯하였다.”, “피리소리가 바람을 따라 높은 하늘로 흩어졌다. 마치 한나라 유안(劉安)이 ‘이른 닭소리 개소리 흰 구름 사이에서 은은히 들려오니, 신선이 사는 진일(眞一)이나 삼청(三淸)의 경지를 꿈에서 노니는 듯하네’ 라 한 것과 같이 황홀하다.” 고 하였다.<sup>17)</sup>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 좋은 산 속에서 거문고와 피리를 즐기는 것은 당시의 선비들이 경관을 즐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경쇠소리와 종소리

여러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별서원림에서 경쇠(磬)<sup>18)</sup>소리와 종소리를 팔경 중의 하나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16) 허균, 앞에 든 책, 103쪽.

17) 이종묵 편역, 『누워서 노니는 산수』(서울: 태학사, 2002), 20쪽.

18) 경쇠는 옥이나 돌, 또는 놋쇠로 만든 타악기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재료가 서로 다르다. 첫째, 아악기의 한가지인 특경(特磬)은 경석(磬石)으로 제조되었고, 그 모양은 ㄱ자형으로 생겼다. 둘째, 판수가 경을 읽을 때 흔드는 작은 방울을 가리키는데, 그 방울은 놋종지 비슷하고 안에는 치는 추가 달리고, 위에는 노끈을 꿰어 손잡이를 만들었다. 셋째, 부처 앞에서 절할 때 흔드는 작은 종 역시 경쇠라고 부르는데, 가름한 종의 끝은 벌어졌으며, 그 안에는 종을 치는 추가 달리고 위에는 나뭇자루가 달려 있다. 그리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風磬) 또한 경쇠의 일종이다.



경쇠와 범종은 불교에서 수행자의 나태함을 깨우치는 경세의 의미를 지닌 소리도구로, 수행자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우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소리도구이다.

채득기의 자천대 우담십경 중 ‘죽암에서 들려오는 맑은 경쇠소리’, 윤희경의 침류대이십영 중 ‘천단의 새벽 경쇠소리’ 또 윤희경의 침류대이십영 중 정업원의 저녁 종소리(尼院暮鍾), 경포팔경 중 한송정의 저녁종소리(寒松暮鍾), 경호팔경 중 인월암의 저녁종소리(引月募鍾), 낙산팔경 중 낙산사의 저녁종소리(洛迦暮鍾), 송순의 면앙정삼십영 등을 통하여 별서원림에서 경쇠소리와 저녁의 종소리를 즐기고 종소리를 통해 찌든 마음의 때를 벗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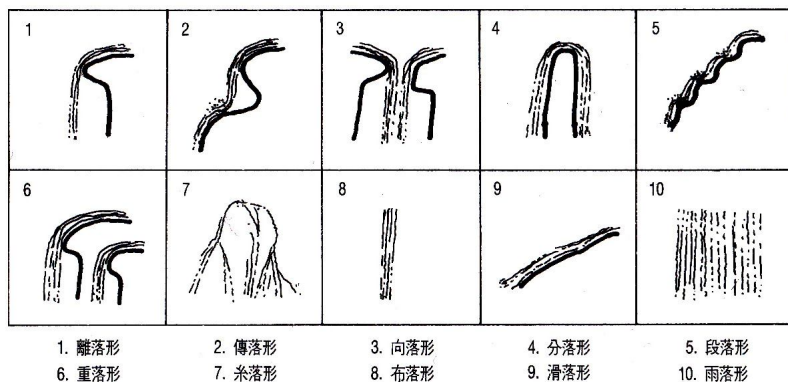


[사진 4-1] 경쇠

### 제 3 절 별서원림에 나타난 소리경관 기법

#### 1. 물소리와 관련된 기법

예부터 흐르는 물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맑고 청아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원림 조성의 경우 또한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선조들에게 흐르고자 하는 물의 이러한 원초적 성질은 거스를 수 없는 수경관의 연출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스스로의 수양을 강조하던 선비들의 사상과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물의 흐름성은 긍정적 상징성이 원림을 조영하는 조영자에게도 긍정적인 심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특히 물소리를 정원에 도입할 때 그 방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였다. 물의 처리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이 있는 바, 물이 낙차로 인하여 힘 있게 떨어지도록 인공적으로 처리를 한 폭포를 비천(飛泉)이라 하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폭포를 괘천(掛泉)이라고 한다. 또 당지에 물을 넣을 때 소리를 내며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폭포형 급수 장치를 현폭(懸瀑)이라 한다. 샘은 그 자체보다는 바위, 돌, 못 등과 연계되어 조경적 요소를 이룬다. 유수로서는 자연수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고, 정원 내를 흐르게 하고, 다시 정원 밖으로 보내는 수로가 형성된다.



[그림 4-6]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폭포형의 분류 (출처: 민경현, 1998: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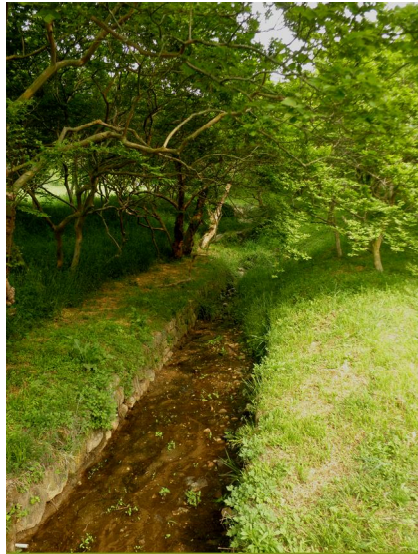
정원 수경의 급수원이 되는 상류, 또는 정원에서 배출된 물이 흘러가는 하류를 이루는 작은 개울을 간수(澗水)라고 한다. 정원이 큰 경우에는 정원 안에도 이러

19) “별서정원 내 수경관: 떨어져 내리는 물(落水)이 만들어내는 풍경의 아름다움, 폭(瀑)”,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2&id=1071> (검색일: 2012년 5월 14일).

한 수로가 있을 수 있다. 대개 돌로 된 계곡을 흐르고 있다고 하여 석간(石澗), 석간수라고 부르고, 주변의 경물과 더불어 송간(松澗), 죽간(竹澗), 이라고 특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간수가 정원 안으로 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담장 아래를 비워 만든 수로를 원규투류(垣竅透流)라고 부르기도 하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무를 파서 만든 홈통을 비구(飛溝)라 한다.<sup>20)</sup>

## ■수로

별서원림은 그 입지가 냇가와 계곡에 위치한 것이 많지만, 지형적인 여건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로를 통해 연못으로 샘물을 끌어 들인 것을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는 원림으로는 명옥헌의 상지와 하지를 잇는 수로가 대표적이며, 송준길(宋浚吉, 1606 ~ 1672)은 『동춘당선생문집(同春堂先生文集)』에서 “서원의 일꾼과 일하는 승려가 오는 대로 바위를 옮기고 힘이 남아 작은 연못을 파서 가느다란 샘물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산허리에서부터 언덕 몇 개를 넘어와 새로 지은 집의 섬돌까지 팔팔 소리를 내며 흐르니(후략)”<sup>21)</sup>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심수경(沈守慶, 1516 ~ 1599)의 간송정(澗松亭) 시판에서 “작은 정자 새로 엮어 놓으니, 깨끗하여 조용히 살기 알맞네. 물 끌어다 못을 만들고, 술 심어 절로 울타리 되게 하네”<sup>22)</sup>라 하였고 또 김양근(金養根)은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에서 태고정의 조영당시의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정자 북쪽 구멍으로 시냇물을 끌어들이 바위 바닥으로 흘러들게 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안국(金安國)의 『모재집(慕齋集)』에서도 ‘작은 소당을 만들고 물을 끌어다 대었다’ 고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료를 통해 원림을 조영할 때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2] 명옥헌의 수로

20) 박승오, 마을마당에서 재현된 전통조경요소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2쪽 참고.

21) 원문 : 院助與役僧 依到輸石 餘力鑿得小池塘 引細泉 從山腰踰數岡 循新堂階除 瀾瀾有聲

22) 박경자, 앞에 든 책, 199쪽.

## ■ 비구

소쇄원의 대붕대 남쪽에는 두곳의 크고 작은 방지가 있고, 북쪽의 계류를 흐르는 물이 떨어지고 고이는 인공적인 수경을 대붕대와 광풍각에서 감상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오곡문 담장 아래에서 흘러든 계천물이 나무 홈통을 타고 흘러들어 25cm폭의 물도랑으로 상지로 유입되는데 이것을 비구라고 한다. 비구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고목작비구원홍천맥접(袴木作飛溝遠興泉脈接)” 이라는 문구를 통해 물을 끌기 위해 나무를 파서 만든 홈통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또 김육의 「구루정기(樞樓亭記)」의 “대나무를 쪼개 만든 수로(水路)로 물을 대어 연못에는 연꽃을 심을 수가 있다” 라는 기록을 통해 대나무로 만든 비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유회당 권이진은 유회당 종가를 지을 때 ‘그 물줄기에는 지류가 있고, 그것이 흘러갈 때는 소리가 나는데, 대나무 통을 놓아 빠르게 흘러가게 한 것은 그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대나무 통을 사용하여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단순히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더욱 크게 감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김창협(金昌協)은 「유송정기(游松京記)」에서 ‘계단 아래에 석천(石泉)을 끌어다 나무 가운데를 파 홈통을 만들어서 물을 대는데 그 맛이 매우 시원하였다.’ 라 하였다. 이외에도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수많은 별서원림에서 비구를 통해 물을 끌어 왔고, 못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감상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刳木橫絕壑 나무 파서 깊은 골짜기에 걸쳐놓고  
 斲石夷險危 돌 깎아 험한 부분을 평평히 하고  
 引彼幽澗水 저 그윽한 시냇물 끌어다  
 注此方畝池 이 한 이랑짜리 못에 물을 대네.  
 <김안국(金安國), 잡흥(雜興), 모재집(慕齋集)><sup>24)</sup>

뜰 오른편에는 조그마한 못을 파되, 크기는 사방이 수십 보 정도로 하고,  
 연못에는 연(蓮) 수십 포기를 심고 붕어를 기르며, 별도로 대나무를 쪼개 홈통을  
 만들어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가 못으로 대고, 넘치는 물은 담장 구멍으로  
 남새밭에 흘러들어 가게 한다.  
 <정약용(丁若鏞),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sup>25)</sup>

23) “별서정원 내 수경관- 흐르는 물, 그 자연스러움의 미”, <http://www.heritagechan.net/tv/story/storyView.asp?hid=3&id=1032> (검색일: 2012년 6월 7일).

24) 박경자, 앞에 든 책, 266쪽.

刳竹引寒泉 대를 쪼개 찬 샘물 끌어 왔나니  
 琅琅終夜鳴 한 밤 내 졸졸졸 우는 그 소리  
 轉來深澗澗 자꾸 오면 산골의 깊은 물도 마르리  
 分出小槽平 갈라내어 조그만 수조가 찰랑인다  
 細聲和夢咽 가느다란 그 소리는 꿈속처럼 흐느끼고  
 淸韻入茶煎 맑은 그 운치는 차에 들어 달리운다  
 不費垂寒綆 찬 두레박 긴 줄 내려서  
 銀床百尺牽 은상에 앉아 백 척 끌어 무엇하리  
 <김시습(金時習), 죽건(竹筧: 대나무 흠통)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sup>26)</sup>

### ■ 소쇄원 원규투류(垣竅透流)

소쇄원의 오곡문 담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소쇄 양산보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기법으로 원규투류(垣竅透流)라고 한다.

흐르는 개울 위에 위치한 담장 아래를 비워 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처럼 계곡의 물길을 정원 내로 끌어들이므로서 청각과 더불어 시각적으로도 자연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법이다.



[사진 4-3] 소쇄원의 원규투류

### ■ 부용동 세연정 판석보

세연정의 물은 계천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과 샘에서 나오는 물로 충당 되는데 세연정 내에서 물은 못 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쳐 유속이 감소되면서 잔잔한 수면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우기(雨期)에 비를 통해 계천의 물이 넘치게 되면 판석보로 물이 넘쳐 폭포가 연출되면서 시원한 폭포소리를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4-4] 부용동 세연지 판석보

25) 박경자, 앞에 든 책, 206쪽.

26)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 ■ 남간정사의 대청 밑으로 흐르는 물

남간정사는 계곡의 샘에서 흘러내린 물이 건물의 대청 밑을 통하여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한 독특한 기법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도입함으로서 물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감상할 뿐만 아니라 청각적 효과까지 상승시키고 있다. 또 물소리의 울림, 즉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음파의 진동마저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4-5] 남간정사의 대청마루

### ■ 독락당의 창살문

경주 독락당의 창살문은 어지러운 세상의 시선을 담장으로 막고, 오로지 계류 주변의 자연의 소리만을 듣고자 하였던 이언적의 지혜가 돋보이는 특이한 기법으로, 계정과 독락당 사이의 담장에 창살문을 설치하여 독락당에 앉아서도 계류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



[사진 4-6] 독락당의 창살문

### ■ 소리를 듣기 위해 흰돌을 깔다

장위항은 와운유거기에 별서를 조영할 때 개울가에 흰돌을 깔아서 비가 내리면 그 소리를 즐겼다고 한다.

“채마밭 바깥은 낮은 울타리로 막고, 울타리 아래로는 예전의 개울을 보수하여 뿔 찌개의 물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흰 돌을 깔고 푸른 잔디로 꾸며, 무더위가 자극할 때 산에 내린 비가 모이면 개울물이 줄줄 흘러 마치 금이나 옥이 쟁그랑거리는 것 같으니,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듣노라면 심신이 상쾌해진다.”

〈장위항, 「와운유거기(臥雲幽居記)」〉<sup>27)</sup>

27) 박경자, 앞에 든 책, 153~154쪽.



## ■ 물레방아

별서원림의 기록에 물레방아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김수증의 곡운 정사에 용운(春雲)이라 불리는 물레방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암자 서쪽으로 흘러나오는 작은 개울물이 있으니, 골짜기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물을 대어 물레방아를 만들고는 용운(春雲)이라고 이름지었다.”

<김수증, 「화음동지(華陰洞誌)」, 『곡운집(谷雲集)』 ><sup>28)</sup>

본래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곡식을 뿜기 위해 만든 장치이지만 소쇄원의 경우에는 물레방아 주변으로 곡식을 뿜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월당에서 물레방아를 통해 쏟아져 내리는 물의 소리와 역동성을 즐기고, 방아찰는 소리를 듣기 위해 설치했던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제 7영과 8영의 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7영 나무 흠통을 뚫고 흐르는 물(剝木通流)

委曲通泉脈 샘 줄기의 물 흠통을 뚫고 굽이쳐 흘러

高低竹下池 높낮은 대숲 아래 못에 내리네

飛流分水碓 세차게 쏟아져 물방아에 흠어지고

鱗甲細參差 물 속의 인갑들은 잘아서 들쭉날쭉 해

제8영 물보라 일으키는 물방아(春雲水碓)

永日潺湲力(영일잔원력) 온종일 줄줄 흐르는 물의 힘으로

春來自見功(용래자견공) 찢고 찢어서 절로 공을 이루네

天孫機上錦(천손기상금) 직녀성이 짜놓은 베틀의 비단

舒卷壙聲中(서권도성중) 조용히 방아소리를 따르네.

이처럼 별서원림에서의 물레방아는 방아를 찢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물을 더욱 즐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8) 박경자, 앞에 든 책, 210쪽.

## ■가산을 통해 흐르는 폭포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하며, 단차가 있을 경우 떨어지려고 하는 낙하성과 물형상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는 자연 속에서 장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정원의 수경기법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행(李荇)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사(高麗史)에는 “궁원에 석가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와서 비천을 만들었으니 그 사치하고 화려함이 끝이 없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 오래전부터 원림에 폭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떨어지는 물은 낙차로 인하여 힘 있게 떨어지도록 인공적 처리를 가한 비천(飛泉)과 조용히 흘러내리는 괘천(掛泉)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물이 가지고 있는 역동과 청량감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공간 속에 담아냄으로서 보는 즐거움과 동시에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떨어지는 물의 대표적 유형인 폭포는 고이거나 흐르는 물과는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이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시원스럽고 우렁찬의 미로 표현하였다.<sup>29)</sup> 앞서 살펴본 보길도의 비래폭과 다음의 기록에서 폭포를 가산을 통해 원림에 재현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전략) 가산(假山)을 만들어 둘러싸게 하였다. 시냇가 돌 중에 꺾이한 것을 가져다 만든 것이다. 조금 북쪽의 시작되는 곳에는 봉우리를 만들어 가파르게 하였는데 하방(何妨)이라 이름 하였으니, 왕의(汪禕)의 ‘벼슬 버려 참된 은자라 자신 하니, 돌을 사들여 가산을 만든들 어떠랴’ 라는 시구에서 취한 것이다. 산이 시작되는 곳이라 이렇게 이름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봉우리에서는 폭포수가 흘러나오는데, 개울물을 끌어들여 대통으로 흐르게 하여 높이 가산의 허리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돌 틈으로 흘러내려 구슬이나 옥처럼 허공에 뿜어지며 떨어진다. 그 아래에서는 목 메인 듯 오열하는 듯 소리치는 듯 꾸짖는 듯 물이 흘러 몽정으로 들어간다.”**

〈권이진(權以鎭), 「하거원기(何去園記)」, 『유회당집(有懷堂集)』〉<sup>30)</sup>

채수(蔡壽)는 자신의 남산 별서에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 매우 독특한 석가산을 만들어 눈으로 즐기고 또 귀로 즐겼다고 전해진다.

29) “별서정원 내 수경관: 떨어져 내리는 물(落水)이 만들어내는 풍경의 아름다움, 폭(瀑)”,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storyView.asp?hid=2&id=1071> (검색일: 2012년 5월 14일).

30) 박경자, 앞에 든 책, 121쪽.



“종남산(남산) 별서에는 남쪽 담장 바깥 돌 틈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맛이 달고 시원하다. 이에 마루 앞에 못을 파고 물을 모아 연꽃을 심었다. 기이한 돌들을 모아 그 안에 가산을 만들었다. 소나무와 삼나무, 늙었지만 조그마한 누런 버드나무를 심고, 또 샘물이 나오는 바위틈을 계산하여 지면에서 3척 정도 높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 땅속으로 못 동쪽으로 흘려보내고, 그 곳에 대나무를 잘라 구부린 다음 땅속에 묻어 대통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여 가산 위쪽에서 솟아나오도록 하였다. 물이 흘러나와 2단 폭포를 이루며 못으로 떨어진다. 샘물이 담장 밖에 있는 것도, 물이 땅 아래 대통에서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갑자기 맑은 물이 가산 꼭대기에서 샘솟아 흘러나오니 놀랍고 기이함을 헤아릴 수 없다. 사람들은 그 물이 가산에서 바로 나온 줄 안다.(중략) 기암괴석과 소나무, 전나무 사이를 흘러 몇 자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니 한 가닥 물줄기가 병풍 같은 푸른 산을 갈라놓은 듯한데 아침저녁 마주해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다 할 만하다. 고요한밤 잠을 이루지 못하여 베개를 새우고 그 소리를 듣노라면 차라리 공후나 축을 연주하는 소리 같으니 귀에 맞다 하겠다.”

〈채수(蔡壽), 「석가산폭포기(石假山瀑布記)」, 『나재집(懶齋集)』〉<sup>31)</sup>

## 2. 바람소리와 관련된 기법

바람소리를 듣기 좋아했던 선비들은 그 소리를 즐기기 위해 원림 주변으로 인위적으로 대나무, 소나무, 활엽수 등을 식재하여 바람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바람의 소리를 활용한 사례는 담양 소쇄원 입구의 죽림(竹林)과 부용동 원림의 세연정 죽림, 강릉 오죽헌(烏竹軒) 앞 언덕의 검은 대나무 숲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구를 지날 때 바람에 의해 대나무가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버드나무와 활엽수의 식재를 통해 바람이 불 때 잎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또 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바람소리를 인공적인 소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장치였다. 풍경은 종교적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수행자의 나태함을 깨우치는 경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속성의 고음은 맹수를 쫓는 역할과 함께 정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완화시키기도 한다.<sup>32)</sup> 즉 풍경은 환경과는 이질적인 소리로 정적을 깨는 장식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1)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태평성세와 그 균열』 (서울: 휴머니스트, 2006), 56쪽.

32) 민정희, 앞의 책, 67쪽 참고.

### 3. 소결

제 3 절에서는 별서원림에서 소리와 관련된 기법을 살펴보았는데, 명옥헌, 태고정 등의 원림과 김창협, 송준길, 김양근, 김창협 등이 남긴 기록을 통하여 수로를 통해 원림으로 물을 끌어 들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용동 원림의 곡수당의 은통, 소쇄원의 대나무 홈통, 구루정에서 비구를 통하여 물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물소리를 크게 듣기 위하여 대나무 홈통을 사용했다고 기록에 밝히고 있어, 비구가 단순히 물을 끌어들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물소리를 증폭시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곡수당의 비래폭을 통해 가산을 이용하여 폭포소리를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담장 밖의 계류 소리를 듣기 위한 독락당의 창살문, 남간정사의 건물 아래로 흐르는 유수, 소쇄원의 원규투류(垣竇透流) 등과 바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처마에 매단 경쇠(風磬)와 같은 기법을 통하여 별서원림에서 소리와 관련된 여러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원림 안으로 끌어들이어 그 소리를 더욱 즐길 수 있었다. 이는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였던 사대부들의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리와 관련된 기법을 분석·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소리경관기법 분석표

| 소리종류 | 기법    | 기능                    | 감상태도/효과        | 사례/기록 |
|------|-------|-----------------------|----------------|-------|
| 물소리  | 수로    | 물을 끌어들임               | -              | 명옥헌   |
|      |       |                       | -              | 간송정   |
|      |       |                       | -              | 태고정   |
|      | 비구    | 물을 끌어들임               | 물소리를 크게 함      | 유희당   |
|      |       |                       | -              | 소쇄원   |
|      | 원규투류  | 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기법 | 자연 존중          |       |
|      | 관석보   | 석조보                   | 우기에 폭포소리 감상    | 세연정   |
|      | 남간정사  | 대청 밑 수로               | 물소리 감상         | 남간정사  |
|      | 현돌 깔기 | 물소리 감상                | 심신이 상쾌해짐       | 와운별서  |
| 바람소리 | 죽림조성  | -                     | 구슬 같은 소리, 옥소리, | 곡수당   |
|      |       |                       | 귀를 맑게 함        | 소쇄원   |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16~17세기의 별서원림을 ‘소리’라는 관점으로 조명하였다. 이와 함께 별서원림에서 소리가 가지는 의미와 소리를 즐기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을 연구하여 당시, 사대부들에게 있어 시각적 경관과 더불어 ‘청각적 경관’이 원림을 감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의 사대부들이 소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소리사상의 기초가 되는 예악사상(禮樂思想)과 더불어 여러 소리사상을 살펴보고, 사대부들이 당시에 즐겼던 음악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조의 예악사상에서는 악(樂)은 예(禮)를 실어내는 방편이자 예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의 범주를 넘어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이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예기(禮記)에서는 소리와 감성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소리와 감성에 대한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 고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음(陰)과 양(陽)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자연적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아보고, 소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기악(器樂)과 성악(聲樂)에서 모두 자연을 닮은 소리를 내고자 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이 주로 즐겼던 정악(正樂)의 특징을 파악하여 당시에 음악을 즐겼던 이유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연주자 스스로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16~17세기의 별서원림의 조영배경과 조영자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조원기(造園記), 원림을 방문하고 쓴 유기(遊記), 경관을 노래한 시조, 제영시(題詠詩) 등의 사료 연구를 통해 별서 원림의 소리경관을 조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유수, 비폭 등의 물소리와 소나무, 대나무를 통해 들리는 바람소리, 파초와 연꽃 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찹꼬리,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즐겼으며, 동시에 거문고, 피리소리 등의 악기소리와 노래를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경쇠 소리, 종소리와 같은 인공물의 소리와 물레방아, 빨래하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 바둑 두는 소리와 같은 생활 속의 다양한 소리 역시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소쇄원, 부용동 원림, 명옥헌, 독락당 등의 별서원림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의 소리경관을 파악하고, 소리지도를 작성하여 사료를 통해 파악한 조성당시의 소리경관과 현재의 소리경관을 비교하여, 사라져버린 소리와 소리경관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소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별서원림의 청각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별서원림의 사료를 통하여 파악한 소리경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서원림의 아름다운 경관의 하나로 꼽은 물소리, 대나무 소리, 솔바람소리, 찢꼬리 울음소리 등과 같은 소리에 담겨진 감상과 더불어 소리를 내는 대상이 가지는 의미도 함께 연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서 김인후, 곡운 김수증, 선원 김상용, 김창흡, 김양근, 장위항, 김상헌, 하수일, 이산해, 이경전, 조희일 등과 같은 많은 사대부들이 남긴 제영시(題詠詩)와 팔경시(八景詩), 그리고 조영기록과 같은 많은 사료를 통해 많은 청각적 경관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자연을 즐김에 있어서 소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즐긴 소리가 ‘물소리’임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 물소리는 다시 계류, 폭포, 연못, 샘물, 유수 등의 소리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물소리는 주로 패옥 소리. 구슬 굴러가는 소리, 거문고 소리. 우레, 용의 소리 등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옥소리의 비유가 가장 많은 것은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함은 물론이고, 옥과 같은 물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의 청정’, ‘심신의 상쾌함’, ‘세속을 씻음’, ‘청명한 기운의 스미’와 같이 세속에서 벗어남과 더불어 심신 수양의 효과를 물소리를 통해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유학자들에게 ‘물’은 인성을 수양하는 세심(洗心)과 선도(仙道)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유학자들은 ‘물소리’를 통해서 한층 더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물소리를 통한 세심(洗心)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며 더욱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였다. 즉 자연이라는 영원한 존재와 합일하고자 하는 의식이 물과 물소리를 통해 구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별서에서 물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은둔을 위한 별서의 위치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소리와 더불어 바람소리도 별서원림에서 즐겼던 대표적인 소리다. 박상, 김석주, 하수일, 신희 등이 군자의 도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그 소리를 즐겼는데, 당대의 사대부들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군자의 하나로 보았고, 소나무 역시 절개와 군자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다. 이들이 대나무와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를 즐겼음은, 사대부들이 추구하였던 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장옥, 김안국, 김창협, 박순 등이 빗소리를 별서원림의 아름다운 경관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빗소리가 시심을 자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보아, 당시 16세기 조선 조에는 당과 싸움으로 인한 사회의 영향으로 많은 유학자들이 벼슬을 버리고 심산유곡에 은거하여 세속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적인 이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자연관을 이러한 자연의 소리(물소리, 대나무, 소나무 등)를 통해서도 구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윤선도, 신희, 김양근, 양산보, 서경덕 등이 거문고를 즐겼으며, ‘거문고 소리를 통해 사악함과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었다’ 하였다. 또 비파, 피리소리 등의 악기의 소리와, 어사용과 같은 노랫소리도 즐겼으며, 송순의 면앙정삼십영, 유희경의 침류대이십영, 채득기의 우담십영 등에서 새벽의 경쇠소리와 저녁의 종소리 같은 인공적인 소리의 아름다움 또한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소리를 즐김과 더불어 신희, 송순, 김인후, 이언적 등의 문사(文士)들의 경우처럼, 기러기와 소쩍새,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여 자신의 마음을 투영(投影)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별서원림에서 소리와 관련된 기법을 살펴보았는데, 명옥헌, 태고정 등의 원림과 김창협, 송준길, 김양근, 김창협 등이 남긴 기록을 통하여 수로를 통해 원림으로 물을 끌어 들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용동 원림의 곡수당의 은통, 소쇄원의 대나무 흠통, 구루정에서 비구를 통하여 물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물소리를 크게 듣기 위하여 대나무 흠통을 사용했다고 기록에 밝히고 있어, 비구가 단순히 물을 끌어들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물소리를 증폭시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곡수당의 비래폭을 통해 가산을 이용하여 폭포소리를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담장 밖의 계류 소리를 듣기 위한 독락당의 창살문, 남간정사의 건물 아래로 흐르는 유수, 소쇄원의 원규투류(垣竇透流) 등과 바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처마에 매단 경쇠(風磬)와 같은 기법을 통하여 별서원림에서 소리와 관련된 여러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것 역시 자연의 소리를 원림 안으로 끌어들이 자연의 소리를 더욱 즐기고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였던 사대부들의 사상과 일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원림의 연구에 있어 ‘소리’라는 관점으로 다루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6~17세기의 별서원림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넓은 연구범위와 대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 또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소리경관의 연구와 별서원림 외에도 궁궐정원, 가택정원, 사찰정원, 서원정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각만이 아닌, 촉각, 후각 등 원림에서 즐겼던 다양한 감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조선시대 원림을 연구함에 있어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원림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강명관(2010).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서울: 푸른역사.
- \_\_\_\_\_(2010). 『조선풍속사3: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서울: 푸른역사.
- 강영조(2003). 『풍경에 다가서기』. 파주: 효형출판.
- 고연희(2007).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파주: 돌베개.
- 고전연구회사(2007). 『조선 지식인의 아름다운 문장』. 서울: 도서출판 포럼.
-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공편(2007). 『소리-만남, 생각 그리고 추억』. 서울: 국립국악원.
- 국립수목원(2011). 『한국의 전통정원: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통정원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수목원.
- 김남이(2003).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파주: 태학사.
- 김정인(2003). 『조선중기 사림의 기문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머레이 웨이퍼, 한명호, 오양기 역(2008). 『사운드 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서울: 도서출판 그물코.
- 문화유산답사회 한터(1998). 『조선 500년 풍류지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이토.
- 문헌(2004).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조』. 서울: 민속원.
- 민경현(1998). 『숲과 돌과 물의 문화: 韓國 古代文化의 뿌리와 변천과정』. 서울: 도서출판 예경.
- \_\_\_\_\_(1998). 『主 從 添과 不等邊三角의 美: 韓國 古代文化의 흐름과 意匠技法』. 서울: 도서출판 예경.
- 박경자(2009). 『조선시대 정원: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조경구조물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 박정욱(2001).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 배연형, 서희원(2007).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 서울: 랜덤하우스.
- 송희경(2008). 『조선후기 아회도』. 서울: 다할미디어.
- 성종상(2010).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일산: 나무도시.
- 성호경(2009). 『한국시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서울: 새문사.

- 신대철(2001).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 서울: 민속원.
- 안대회(2008). 『고전산문산책: 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서울: 휴머니스트.
- 역사경관연구회(2008). 『한국정원답사수첩』. 파주: 도서출판동녘.
- 예천군예천문화원 공편(2010). 『예천 누정록』. 서울: 예일출판사.
- 오주석(2008). 『그림 속에 노닐다』. 서울: 솔 출판사.
- 이근우(2009). 『문인화총론』. 서울: 월간 서예문인화, 이화문화출판사.
- 이규태(2000). 『한국인의 환경문화』. 서울: (주)신원문화사.
- 이종묵 편역(2002). 『누워서 노니는 산수: 조선시대시산수유기 걸작선』. 서울: 태학사.
- 이종묵(2006a). 『조선의 문화공간, 태평성세와 그 균열』. 서울: 휴머니스트.
- \_\_\_\_\_(2006b). 『조선의 문화공간, 귀거래와 안분』. 서울: 휴머니스트.
- \_\_\_\_\_(2006c). 『조선의 문화공간, 나아감과 물러감』. 서울: 휴머니스트.
- \_\_\_\_\_(2006d). 『조선의 문화공간, 내가 좋아 사는 삶』. 서울: 휴머니스트.
- \_\_\_\_\_(2010).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 파주: 김영사.
- 이효분(2008). 『우리 樂 그림을 품다』. 서울: 궁리.
- 조상현(2006). 『18c-19c 그림속의 관동팔경』. 충남: 한서대학교출판부.
-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정재훈(2004). 『보길도 부용동 원림』. 제4판. 파주: 열화당.
- 최승범(1992).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서울: 주식회사 예음.
- 토리고에 게이코, 한명호 역 (2005). 『사운드 스케이프: 그 사상과 실천』. 서울: 세진사.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5권』 서울: 돌베개.
- 한홍섭(2000). 『한국의 음악사상』. 서울: 민속원.
- \_\_\_\_\_(2003). 『우리 음악의 멋 풍류도』. 서울: 책세상.
- 황기원(2011).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얹』.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허 군(2002).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서울: 다른세상.
- \_\_\_\_\_(2004).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서울: 북폴리오.
- \_\_\_\_\_(2009). 『한국의 누와 정: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 서울: 다른세상.
- 홍광표, 이상윤, 정운익 공저(2001). 『한국의 전통수경관』. 서울: 태림문화사.



## 학위논문

- 강상우(2008). 사운드 스케이프 개념도입에 의한 지역특성화 방안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10). 조선시대 지피식물에 관한 연구: 옛 그림 및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12). 조선후기 정원에서 전개된 에로티시즘 양상과 표출방식 연구: 풍속화와 시문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희(2003). 소리 환경을 도입한 공감각적인 환경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오(2005). 마을마당에서 재현된 전통조경요소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미성(2002).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와 청각적 정보와의 관계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종상(2003).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고산윤선도 원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규(2005). 소채원의 사운드 스케이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훈(2005). 해남 땅 끝 전망대의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경(2010). 사운드 스케이프 개념을 도입한 공공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2006). 조선시대 관동팔경도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아(2008).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석(2012).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사운드시스템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의돈(1999). 관동팔경 누정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찬민(2011). 해안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팔경 중 망양정, 월송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희(2006). 朝鮮時代 別墅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광철(2009). 조선 중기 사립계층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학술지논문

- 김태숙(2010). “동양 철학에서의 소리의 속성과 감성 유형: 중국의 악론과 조선의 천기론을 중심으로”. 『감성과학』. 13(1): 215-224.
- 박병오, 양병이(2003). “조선중기 영남사림(士林)의 원림조영 특성에 관한 연구: 16~17세기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1(4): 14-26.
- 송혁, 이태강, 국찬, 장길수(2004). “음풍경 디자인을 위한 도입음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810-813.
- 조경진, 서영애(2008).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해 본 정원의 풍류적 의미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5): 94-107.
- 성종상.(2005).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경연출기법”.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43: 269-280.
- 신용규, 남기봉, 국찬(2004). 소쇄원의 음풍경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4(1): 21-26.
- 신훈, 국찬, 장길수(2004). “노랫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음풍경 인식 조사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802-805.
- 이태강, 장길수(2005). “고시조에 표현된 한국인의 소리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15(6): 724-730.
- 조송식(2002), “조선초기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 『한국미학회지』 33: 25-74.

## 인터넷자료

- 고산 윤선도관련 사이트. <http://yungosan.hosting.paran.com>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co.kr>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네이트 백과사전. <http://alldic.nate.com>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http://www.heritage.go.kr>
- 소쇄원 홈페이지. <http://www.soswaewon.co.kr>
- 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http://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Abstract

# A Study on the Soundscape during 16,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Meaning of Sound and Techniques.

Ha, Ei Ya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grasping the soundscape of the Joseon Dynasty's Byulseo-wonlim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and researching meanings of the sound and techniques that were used to appreciate the s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Byulseo-wonlim, which was creat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and related historical resources and field studies.

Through the research, soundscapes of Byulseo-wonlim, such as soswaewon, booyongdong- wonlim, Myung-ok-hun and Dongnakdang were grasped.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in Byulseo-wonlim, sounds of water flowing and dropping, wind sounds that can be heard through bamboo, sound of the rain that drops on leaves, and sound of the nature such as nightingale and wild goose twittering were enjoyed along with sounds of instrumentals such as geomungo and pipe. It was also discovered that sounds of artifacts such as gyeongsoe and bell, as well as diverse sounds in life were also enjoyed. Through this, it is shown that auditive elements in traditional wonlim were used as important elements when it comes to space experience.

The summary of this study's conclusions is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appreciating wonlim, it was comprehended that sou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dition to visual elements. The proof is a frequent appearance of auditive landscapes in historical resources such as creation records and poems that describe the scenery of wonlim.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sound was a very important element when it comes to nobleman enjoying the nature.

Second, attitude and emotion for the sound when appreciating wonlim were examined through historical resources that are related to wonlim, and the meaning and reason of sounds enjoyed at wonlim were grasped.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sound of water was enjoyed the most, and the sound of wind was enjoyed a lot as well. The sound of water was mostly compared to the sound of jade, and its effects were described as 'making the body and mind clean and fresh', 'removing smuttiness' and 'deepening the thought'. Also, the sound of wind was enjoyed by planting bamboo and pine trees. The sound of wind was mostly compared to the sounds of wave, Korean mandolin and geomungo, and its effect was supposedly 'clearing the mind and soul'. Also, the 'sound of rain' is chosen as one of the beautiful landscapes of Byulseo-wonlim, and it can be seen that poems were sometimes wrote while listening to the sound of rain. It was discovered that the body and soul were developed by listening to such sounds.

Third, diverse techniques related to the sound in Byulseo-wonlim were grasped. Wonlim attempted to reproduce the nature's sound of water such as flowing and dropping water sounds through waterways and waterfalls. This coincides with the thoughts of nobleman who wanted to get closer to the nature by drawing the sound of the nature into wonlim and enjoying it.

Fourth, by studying Byulseo-wonlim, the current status of Soundscape was grasped, a sound-map was created in order to compare today's soundscape to the soundscape at the time of its creation through historical resources, and sounds that should be reproduced and removed were comprehended. Through this, methods of improving auditive environments of Byulseo-wonlim were suggested.

This manuscript attempted to prepare for the ground that deals with the perspective of 'sound' when it comes to researching wonlim.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study, Byulseo-wonlim's garden culture can be understood in three dimensions through auditory senses in addition to visual senses, and contributions can be made to restoring the soundscape of Byulseo-wonlim at the time of its creation.

**Keywords:** sound, soundscape, 16-17th century, Joseon period, Byulseo-wonlim

***Student Number : 2010-23911***